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빗길에 타이어가 펑크 난 것뿐이야

IT'S ONLY A FLAT TIRE IN THE RAIN

The sea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is a large, light gray watermark in the background. It features a central shield with the Korean characters '제주대' (Jeju University) and a book. The shield is surrounded by a laurel wreath. The outer ring of the seal contains the text 'CHEJU NATIONAL UNIVERSITY' at the top and 'SINCE 1952' at the bottom.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英科

金材妍

2007年 2月

# 빗길에 타이어가 펑크 난 것뿐이야

(It's Only a Flat Tire in the Rain · Max Davis · 論文翻譯)

指導教授 金元寶

金材妍

이 論文을 通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金材妍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6年 12月

# It's Only a Flat Tire in the Rain

Max Davis

Je-Yo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Won Bo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ebruary 200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book is about God. It starts with the unexpected deafness of the author's son, James. In any family, if one gets a serious illness or physical problems, then fear, anxiety, and worries fill the hearts of the family. As a result, we tend to try hard to control or overcome the situation, and in this process some people turn to God. They build a relationship with the heavenly Father.

Max Davis talks about God, life, and struggle. In his writing God's message reverberates through his experiences and those of others. The message is that when you are out of control you should leave the situation to God, and accept that life is a struggle. It is then that you will find peace and comfort. Different episodes related to miracles also add to the flavor of these stories, which make us compelled to wonder, does God really exist?

At the end of this book Max Davis also mentions that this is not a look-at-the-bright-side motivational book. However, you will get some jewels after you turn the last page. Not in a sensational or dramatic way, but in a very quiet and inspiring fashion. It will open a door to the fact that life's not perfect, and neither are people. And if you give God a chance, with a big dose of faith, He will help you have optimism, vision, and happiness with big blessings.

## 감사의 글

끝까지 지도해 주신 통역 대학원의 김 원보 교수님, 박 경란 교수님, 김 재원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나를 지켜봐준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드리며, 특별히 태성오빠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빠의 깊은 지혜와 유머 그리고 끊임없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은 언제나 저에게 감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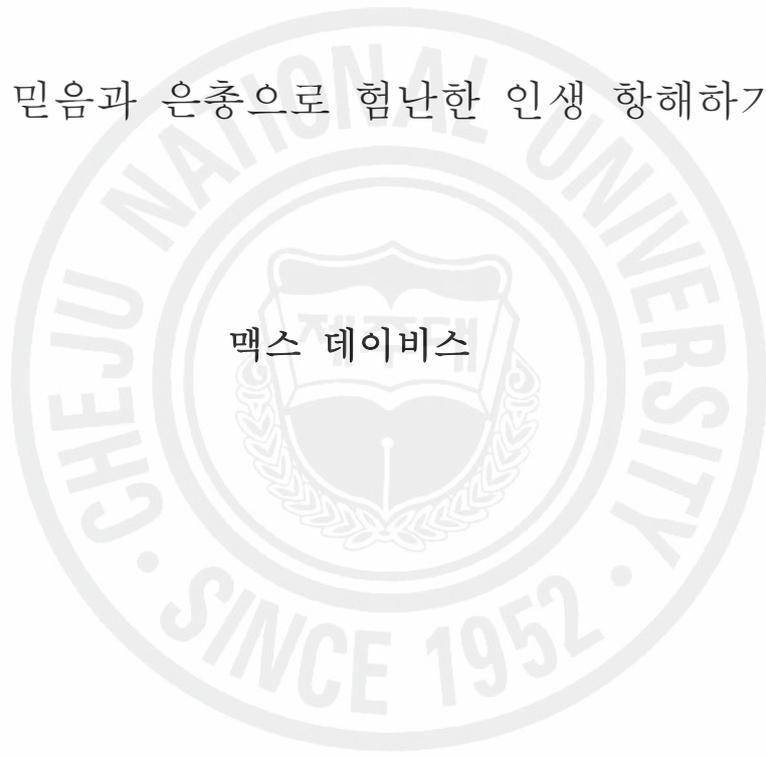


빛길에서 타이어가

핑크 난 것뿐이야

믿음과 은총으로 험난한 인생 항해하기

맥스 데이비스



## 감사의 글

많은 소중한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이 서점 진열대는 고사하고 책이 완성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먼저, 文解 에이전트 메레데스 번스타인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책 출판에 쏟으신 당신의 수고와 시간은 영원히 저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덕분에 제가 좀 더 나은 작가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뜻남의 편집 발행인 웬디 허버트씨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계획을 믿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있어서 커다란 즐거움이었습니다. 바톤 로그의 편집자인 데비 페니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우정과 건설적인 비판 덕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통찰력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동반자인 엘리나, 각 장마다 적절한 균형을 잡아준 당신을 이 책의 공동저자로 올려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셨으며 내 꿈을 이루도록 해 주셨습니다.

빛나는 나의 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크리스틴, 제임스, 트레바

크리스틴, 어려운 상화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면을 보는 너의 탁월한 능력에 나는 항상 깜짝 놀란다. 너의 왕성한 에너지, 근면성과 삶을 사랑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켜 너를 닮아가게 하는 것 같다. 나의 딸, 크리스틴 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제임스,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매력적인 성격 그리고 놀라운 명석함으로 너는 성공 할 거야. 내가 아빠지만 아주 많은 면에서 너는 나의 스승이란다.

트레바, 우리 귀염둥이 막내. 집에서 들리는 너의 노래 소리와 함께 습관적으로 매일 나를 안아줘서 나의 인생은 더 할 나위 없이 행복하단다. 너는 내 인생의 선물이란다.

# 목 차

서론

1. 사건이 많은 인생
2.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너머로
3. 하나님께 정직하라
4. 25센트의 은총
5. 영혼의 밑거름
6. 실망에서 다시 일어서기
7. 내가 원하는 한번의 기적
8. 빗길에서 펑크 난 타이어를 바꾸는 일곱 가지 효과적인 방법
9. 계속되는 인생

참고문헌

## 서론

실망, 역경, 좌절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언어이다. 인생에서 가끔 아주 모진 역경으로부터의 영향을 느껴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직 목사와 카운슬링을 했었고 지금은 모든 분야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작가로서 나는 정기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 최근 몇 개월 사이 어려움이 있어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보았다.

-한 젊은이가 낮은 호수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를 다쳤다. 지금 그는 사지가 마비되어 정신병자들이 있는 요양원에 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그는 아주 명석한 머리를 가졌다. 그가 바라는 것은 현재 그가 있는 요양원을 떠나 인간적으로 존엄성과 존경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고 내가 그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칠십 대의 한 노인은 오십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인과 사별을 했다. 그들의 사랑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 되었다. 지금 그에겐 상실감과 외로움만 남았다.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어린 딸을 하나 둔 삼십대의 한 기혼 남성은 직업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가정은 빛에 허덕이고 있어서 평생 벌어도 항상 쪼들리는 삶인 것 같다. 그래서 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찾아 왔었다.

-아름다운 부인과 어린 두 딸이 있는 삼십 팔세의 한 남성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내게 그를 위한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한 여성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 딸의 남자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는데 딸과 대화를 나눠 줄 수 있는 지 물어 보았다. 6개월 후에도 그 딸은 아직도 슬픔을 떨쳐 내지 못 하는 것 같아 보였다.

-열세 살 된 딸이 발작을 일으켜서 욕조에서 익사 한 후, 그녀의 어머니는 책을 쓰고 싶어서 나를 만나고 싶다고 전해 왔다. 그 사고 후 그녀의 어머니는 깊이 깨달은 바가 있으며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고 했다.

-한 치과 의사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녀는 항상 기분이 저조하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 어찌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 달라는 기도를 드린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 한다면 아주 슬픈 일이라고 하나님께 기도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나의 최근 저서가 그녀에게 도움과 위안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 주고 싶어 했다.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쓸 수 있지만 나의 핵심은 여러분이 잘 알 것이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만큼 역경이란 것은 자연스럽게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목사 중 한 명인 요셉 파커는 젊은 신학도 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힘들어하는 자를 전도하면 신도 수는 절대로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상처 받은 영혼들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현대인들은 역경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마라는 책은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다. 이 시대의 적절한 조언을 담고 있는 멋진 책이다. 그러나 인생의 호된 시련은 절대 사소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 순간 역경에 부딪히면 마치 인생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고는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병에 걸린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어 있다. 주식 시장도 폭락 할 수 있다.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예방조치를 취한다 해도 역경은 여전히 기습적으로 우리를 집어 삼키기도 한다. 일부 안 좋은 일들은 경미하더라도 중요한 행사에 가는 도중 타이어가 펑크 날 때처럼 우리를 짜증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암 선고나 가정 폭력처럼 결코 사소하게 넘길 수 없는 시련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이 기혹하고 헤아릴 수 없을 고통이라도 그 속에 희망은 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도 좌절 할 필요가 없다. 절망의 늪에 빠지지 마라.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의 겪고 있는 역경을 기회로, 비극을 승리로, 상처를 행복으로, 폭행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동으로, 실망을 재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내 인생과 다른 이들의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만나 왔던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나와 내가 상담하는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불어 넣어 주는 훌륭한 원천이 되고 있다. 그들은 우리들의 고민이 우리를 더 성장 시키고 성취를 이루는 데 징검다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론서가 아니다. 일상생활의 도량에서 찾아 낸 이야기이며 그 원칙들은 신뢰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인생의 문제점에 대해 낱아빠진 해답들을 던져 주거나 하룻밤의 성공을 위해 흔한 공식들을 나열하는 책이 아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화로운 마음과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 책을 쓴 것이다.

## 1. 사건이 많은 인생

위기로 인해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무한한 능력의 충만한 하나님을 찾게 된다. - 캐서린 마살

귀가 안 들린다고! 나는 멍하니 거기 앉아 있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 말이 내 몸속으로 가라앉으면서 갖가지 감정들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제임스가 귀머거리 일리가 없어!” 나는 의사에게 외쳤다. 그전까지만 해도 내가 보았던 귀머거리들은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나를 쫓아와서, “저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열쇠고리 하나 사주세요.”라고 적힌 카드를 내미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이 항상 안쓰러웠다.

“아드님께선 귀가 안 들리는 게 확실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얼마나 안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애는 귀가 안 들립니다.”

오늘 전처와 함께 제임스 때문에 병원을 찾았을 때 내 인생은 되돌릴 수 없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제임스는 태어난 지 13개월이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걷고, 웅얼이 하고 웃는 그저 정상의 어린아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을 하진 못했다. 나는 제임스가 적어도 두 마디 정도는 발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제임스가 말을 아직 시작하지 못 하고 있다는 말을 할 때 마다 사람들은 여자 아이들보다 사내아이들이 말을 조금 늦게 배운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생각이 나는 안심시켰다. 왜냐하면 사랑스런 내 어린아들이 뭔가 크게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임스의 정기 검진 결과는 항상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제임스를 돌봐주는 사람이 그 애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며 청력 검사를 해 보라고 했다. 애 엄마와 나는 전문의와 만날 약속을 했다. 우리는 의사가 “제임스가 감염이 되었군요. 이 항생제를 먹이시고 2주 후에 다시 오세요.” 라고 말해 주길 기대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가 “죄송합니다만 아드님은 전혀 귀가 안 들립니다.”라고 말했을 때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차례 추가 검사 후, 제임스는 귀가 전혀 안 들리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사실상 청력이 전혀 없음을 뜻한다. 그가 특정한 저음을 알아들을 수 있더라도 소리 크기가 120 데시벨 정도라야 들을 수 있다. 이 음향 크기는 제트기가 이륙할 때 내는 소음과 같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애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닌 오직 특정 음만 들을 수 있어서 보청기도 그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병원 문을 나서는데 온 세상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전처와 나는 곧바로 목사님 댁으로 갔다. 우리가 울고 있는 동안 목사님과 사모님은 소파에 앉아서 우리 걸을 지켜 주셨다.

그날 밤늦게 집에서, 나는 제임스 몰래 그 애 등뒤로 가서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반응이 없었다. 그는 내가 거기 있는 것도 몰랐다. 많이 울었다. 며칠을 울었다.

하나님은 기도에 답해 주신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응답이 아주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본적이 있다. 하지만 내가 제임스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차가운 침묵만 느껴졌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위한 기도를 했다. 교회 신도 전체가 기도를 드렸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어떠한 반응과 징후를 기대하면서 몇 주 동안 나는 제임스 주위에서 냄비와 그릇을 두드려 댔다. 그러나 전혀

변화가 없었다. 고통과 죄책감만 느껴졌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그의 상태를 눈치 챌어야 했다. 제임스가 평생 내 목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음악 연주를 못 듣는 다고 생각하니 고통으로 심장이 터 질 것 같았다. 나는 기타 연주와 노래 부르길 아주 좋아한다. 이제 음악을 연주해야 하는 이유가 없어졌다. 제임스가 평생 나의 음악을 같이 나눌 수 없다면 내가 어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우리 가족 모두 원치 않는 다른 세계로 떠밀려졌다. 귀머거리 세상 속으로. 이 과정에서 나는 원치 않은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야 했다. 가족 모두가 수화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생후 5년은 가장 중요한 유아 형성기라서 제임스는 18개월에 특수학교에 입학해야 했다.

한 때 취학 전, 제임스는 청각장애아 담당 선생님이 있는 반에 배정되었다. 내가 제임스를 보러 학교에 갔을 때 그는 정신 지체아들과 같이 수업을 받고 있었다. 내가 정신 지체아들을 달리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임스의 정신은 온전치 않은가. 단지 소리만 듣지 못 할 뿐인데. 나는 곧장 학교위원회로 가서 제임스를 다른 학교로 옮겨 달라고 부탁했다. 고통이 다시 살아나서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만큼 나는 아무것도 해 줄 수 없어서 무력했다. 아들은 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으며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 이후 11년이 지났다. 정말 힘든 11년 이었다. 의사들은 청각 장애인 한명을 키우는 것이 일곱 명의 정상아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했다. 틀에 박힌 글이라면 “몇 년 동안 애가 소리를 못 들어도 살만 했고 나중에는 그게 더 소중한 경험이었죠.”라고 썼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제임스 때문에 여전히 고통스럽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자주 아버지로서 불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고통은 지금도 엄연한 현실이다. 내 청력을 포기

하고 그가 들을 수 만 있다면 당장 그러고 싶었다. 진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실은 *희망*이다. 희망은 살면서 불행한 일을 방지하는 능력이나 주위 상황을 통제 하는 능력에 있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 할 수 있고 그 고통의 시간을 초월 하는 것을 뜻한다. 웹스터 사전은 ‘초월하다’는 단어는 “-를 능가하다”로 풀이 하고 있다. ‘초월하다’의 의미가 “제거하다”는 뜻이 아님을 주목 해야 한다. 시련도 경험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시련은 아주 다양한 모습과 정도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 시련을 초월하는 것과 마음의 평화를 느끼는 것은 원칙적으로 같은 말이다.

### 원칙1 삶 자체가 역경임을 이해하라

이 말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가 삶을 통제하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우리 모두 시련 없는 인생을 원한다. 삶을 힘들게 이겨 내며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누구나 “정상적인 삶”을 원한다. 문제는 각자의 정상적인 삶의 정의가 다르다. 물질만능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들을 꿈꾸게 하는 이미지들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행복하기 위해 무엇을 사야하고, 어떤 집에 살아야 하고, 슈퍼모델처럼 보여야 하며, 슈퍼모델과 결혼을 하고, 교외에서 사랑스런 두 자녀와 살아야 하며,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한다, 등등.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삶”의 이미지는 순탄한 인생이다. 할리우드 기준의 정상적인 삶은 넘쳐나야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비정상이거나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믿게 만든다. 우리는 타인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는 함정에 빠진다, 하지만 자주 그들이 겪는 시련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 대부분은 단지 그들의 곁만 본다. 그

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도 또한 우리처럼 걱정거리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이끌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갑자기 불행이 닥치거나 계획한 일들이 잘 풀릴지 않을 때, 이런 인생은 정상이 아니며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럴 때 나는 이런 질문을 해 본다. 그러면 도대체 “정상적인 삶은 무엇인가?”

스콧 펙이 쓴 책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에 나오는 표현들이다.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장 중요한 진실 중 하나로서 이 말에는 상당한 진실이 담겨 있다. 우리가 이런 진실을 꿰뚫어 깨달으면 인생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정말로 인생이 어려운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인생이 힘들지 않게 된다.

“정상적인 삶”도 많은 역경과 힘든 시련의 일부이다. 스콧 펙이 말했듯이 산다는 것은 어렵다. 우리 마음처럼 일이 통제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거나 원망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며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우리는 수 없이 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실패도 없는 듯이. 언젠가 한 여성이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 왔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라고 말했다. 이 말은 그녀가 생각하는 인생이란 이래야 된다는 그녀의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디서 그녀는 올바르게 살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배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녀는 자신을 인생의 피해자라고 느낀다. 이러한 비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만연해 있다.

우리가 인생을 고난의 연속임을 직시했을 때 평화를 느끼며 초월 할 수 있다. 그러면 불평 대신에 힘든 일을 해결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믿음, 기도, 긍정적인 사고로 무장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자신을 인생의 피해자로 보지 않게 되고, 시련의 깊이와 상관없이 희망을 나누는 징검다리가 된다. 이것이 순수한 의미의 성공이다.

## 원칙2 역경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인생을 역경이라고 이해한다면 그 역경을 받아들여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는 부정적인 것이 전혀 아니다. 나는 운명을 받아 들여야 한다느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도록 놔두거나, 이를 그냥 참고 지켜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현명한 결정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그래도 우리 인생에는 겪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다. 나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를 안다면 나를 영원한 낙천가라고 생각 할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역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세의 문제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대신 고통 속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뜻이다. 분명히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마음 한 구석에서 아픔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고통은 현실이며 그것과 함께 할 때 인생이 달라진다.

제임스의 귀가 안 들리는 것 때문에 고통도 많았지만 이 고통은 또한 많은 축복도 가져다주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오직 시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깊이를 경험하고 있다. 나는 좀 더 성숙해 졌고 제임스도 성숙해 졌다. 우리가 허락만 한다면 시련과 고통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 것이다. 노예폐지 운동가인 프레더릭 더글라스는 “시련 없이는 성장도 없다”라는 말을 했다. 보디빌더는 꾸준히 하는 운동으로 저항력을 높여 체력과 근력을 향상 시킨다. 병

아리는 부리로 힘들게 알을 깨서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런 노력이 바깥세상에서 생존하는 데 필요한 힘을 키우는 데 사용된다.

어느 날 나는 제임스를 일찍 집에 데려오려고 그 애 학교에 갔다. 쉬는 시간이어서 제임스가 다른 아이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것을 봤다. 이 학교는 청각 장애아와 장상아 모두 함께 다닌다. 운동장 한쪽에 눈도 안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조그만 남자아이가 있었다. 선생님들은 그 애와 수화를 한다. 사실, 그 애는 선생님과 수화 할 때 그 손을 만진다. 놀라운 광경이며 수화하는 양쪽 모두에게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대화 방법이다.

개구쟁이인 내 아들이 시청각 장애아를 배려하면서 수화로 끈기 있게 노래를 불러주는 모습을 보고 나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 남자아이가 제임스의 손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이 놀라웠고 선생님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그 애와 시간을 같이 보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대단해 보였다. 노래를 끝낸 제임스는 천천히 그 애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려주어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어갔다. 그들 뒤로 아이들이 노는 소리와 콘크리트 바닥에서 공 튀는 소리와 줄넘기하는 소리가 뒤엉켜서 들려왔다. 대부분의 정상아들은 그 아이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들은 노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15분 동안의 쉬는 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단 일초라도 더 놀고 싶어 했다. 그 애가 자신들과 달라서 혹은 그 애와 어떻게 얘기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를 멀리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열 살 밖에 안 되는 제임스는 측은한 마음으로 그 아이의 좌절감을 이해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아주 소중한 휴식 시간에 그와 대화를 했다.

제임스는 부끄러워하거나 서두르지 않았다, 다른 친구들의 생각 따윈 신경도 안 썼다. 자기와 다른 누군가와 신체적 접촉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깊이이다. 어른보다 더 속 깊은 성숙함인 것이다. 이것은 제임

스 자신도 시련을 이겨내야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아버지로서 느낀 욕심은 아들을 시련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인지 나는 배우고 있다. 남을 배려하는 지금의 제임스가 되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시련이다. 간혹, 이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약 시련을 받아들이면 그 시련은 우리의 가슴에 동정심과 이해심을 불러일으킨다. 시련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한다.

### 원칙3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사람들은 행복할 때, 행복해서 그가 필요함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럴 때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는 두 손 벌려 환영할 것이다. 당신의 요구가 절실할 때,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다고 느낄 때. 무엇을 발견하는가? 문 앞에서 문이 콧 닫히고 안에서 빗장을 거는 소리가 들린다. 그 다음은... 침묵... -C. S. 루이스

내 여동생은 청각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 유아 때부터 청각장애가 있는 열여덟 살 된 남자의 청력을 검사하였다. 그는 동생에게 말했다. "저는 수년 동안 기도드리고 있어요. 내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제 생각에는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요." 그의 믿음과 희망은 아주 대단했다. 검사결과과정에서도 그는 청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그는 확신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여전히 그는 들을 수가 없었다. 이 소식을 전하자 그의 두 뺨으로 실망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동생도 슬퍼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런 일에 익숙하거든요"라고 말을 건넸다.

이런 종류의 실망에 익숙하다는 것이 상상이나 되는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 청년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왜 저를 버리셨어요?", "제 기도를

못 들으셨나요?”라고 질문을 해왔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내 생각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C. S.루이스가 위에 인용했던 차가운 침묵을 그도 느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제임스의 귀를 고쳐달라고 몇 번이나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 어떻게 이 아이를 다루어야 하는지 방법을 보여 달라는 기도할 수도 없이 했다. 제대로 된 교육을 그가 받고 있는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로 옮겨 할지, 정상아들과 같이 교육을 받게 할 것인지, 제대로 읽는 법은 배우고 있는지 궁금했다. 제임스는 말을 전혀 못한다. 이게 정상일까? 그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얼마만큼 뒤쳐져 있는가? 그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은 어떤 상황 인지 파악 했을 것이다. 오 분 동안의 내 기도는 시를 읽는 듯 한 기도가 아니다. 나는 갈피를 못 잡아 괴로워하며 간청했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느낌이었다. 어떤 경우엔 상황이 실제로 더 나빠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평화를 얻고 고통을 초월하기 위한 한 가지 원칙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겠는가? 특히 많은 질문에도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너무 간단하고 유치하며 순진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다. 충분히 그는 믿을 만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에 대해 잘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그가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통해 그에게 말을 전했다. 바울은 기적들을 체험했다. 무수히 많은 죽을 고비를 불가사의하게 모면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박힌 가시는 제거해 주지 않았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시력이 아주 나빠서 고생했다고 믿고 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바울은 몇 번이나 하나님에게 가시를 없애 달라고 간청했으나 하나님은 "나의 은총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응답

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자신이 믿을 만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서 역경이 닥치는 것을 항상 막아 주어서가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이 말이 진실임을 깨닫고 있다. 많은 경우에 희망 없이 절망적이고 어쩔 줄 모를 때 어둠 속으로 빛이 비출 때 나는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있다고 확신한다.

예를 들면, 제임스는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며 운동도 아주 잘한다. 그 애의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더 관심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코치들은 청각장애아들과 의사소통할 줄 모르거나 한 선수에게 집중할 여유조차 없다. 따라서 제임스는 다른 아이들을 관찰해 가면서 배워야 한다. 지난여름 나는 YMCA에서 어린이 야구팀 코치 자원봉사를 했다. 나는 수화를 하기 때문에 제임스에게는 수화로 다른 정상아들에게는 말로 동시에 의사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다. 내가 자원 봉사할 때, 나는 누구에게도 제임스가 청각장애아임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 제임스가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나에게 중요했기 때문이다. 신청서에 나이와 학년을 기재해야 했다. 청각장애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아무런 말도 안했다. 첫 코치회의가 다가왔을 때도 제임스의 청각장애에 대해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다.

바튼 로고는 비교적 큰 도시이지만 이곳의 다른 코치들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회의에서 코치명단이 배포되었다. 우리 팀은 미리 결정되어 있었다. 나는 선수 부모들과 연락하여 연습 일정을 잡았다. 회의 후 나는 귀가했다. 그게 다다.

코치회의가 지난 며칠 후, 나는 YMCA 관장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전화내용은 이렇다.

“데이브씨, YMCA의 빌입니다. 두 명의 청각장애아들이 합류할 팀을 찾고 있는데 데이브씨 팀에 같이 뛰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아들이 청각장애아이고 내가 수화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요?” 나는 흥분해서 물어보았다.

수화기의 상대방은 잠시 조용하더니...“저는 모릅니다.” 라고 했다.

“잠깐만요, 제 아들이 청각장애아고 제가 수화하는 것 전혀 모르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냥 코치명단에서 데이브씨를 알았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 아이들을 맡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에는 세 명의 청각장애아들이 있는 셈이네요. 제임스가 아주 신나하겠군요!”

상상이 가겠지만, 나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일은 잘 풀렸다. 주말 쯤, 나는 미리 결정된 우리 팀 명단 선수들의 부모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등번호 13번 선수의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주의 사항을 나에게 말해 주었다. “마론은 청각장애가 있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거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YMCA에는 여덟 개 팀이 있다. 전체 리그에서 청각장애아는 네 명뿐이다. 그 네 명 모두 내가 맡고 있는 팀에 올라와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인위적으로 짜여진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면서 단순히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들을 보아왔다. 하지만 의심 많은 사람일지라도 지금 나의 상황이 그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리그에서 뛰는 네 명의 청각장애아가 수화를 하는 코치 팀에 배정받았다는 것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내게 다시 들려온 메시지는 이러했다. 제임스가 왜 청각 장애아가 됐는지 이해를 못해도, 그가 들을 수 있기를 내가 아무리 원하고 고통을 겪더라도 나보다 더 큰 일들은 계속 벌어진다.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이해 한계를 넘어선다. 하나님께서 제임스의 귀를 멀게 만들었을까? 십년 전만 해도 나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확신은 안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제임스는 청각장애 삶을 통해 그가 살 수도 있었던 “정상적인” 삶보다 다른 축복을 받고 있다. 요점은 하나님은 정확히 제임스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가 제임스를 걱정하는 만큼 하나님도 걱정하신다. 하나님은 야구만큼이나 평범한 것을 통해 이런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상황을 무조건 믿게 되자 내게 평화가 찾아왔다. 지능과 지식이 어디서 끝나는지 알고 믿음과 확신이 시작될 때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고통을 초월하고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

앞서도 얘기 했듯이 작가로 연사로서 나는 여러 종류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아픔을 딛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보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의식적이던 무의식적이던 내가 이번 장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원칙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 중 하나를 여러분께 합니다.

내 친구 로빈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더 이상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는 45세이며 20년 이상 심각한 신장병으로 괴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신장병은 다른 합병증으로 이어져 백내장과 팔다리의 신경조직에 손상을 가져왔다. 복용하는 약으로 인해 불필요한 몸무게가 많이 붙었다.

그녀는 몸이 많이 쇠약해져서 지팡이를 사용한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최악의 것은 그녀가 이성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의 평생소원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로빈은 지쳐있고 참담했다.

담당 의사는 복용하는 약의 효과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여러번 그녀는 투석을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혐오스러운 삶을 더 연장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힘주어 말했다.

나는 이를 반박하면서도 그녀에게 이치를 따질 수는 없었다. 2년 넘게 로빈은 나에게 그녀의 상태에 대해 말해 주었다. 우리는 그녀가 지닌 수완과 재능에 대해 토론했다. 과거 이야기도 많이 했다. 로빈은 하나님을 믿지만 무척 화가 나 있었다. 그녀는 솔직했다. 그녀에게 있어서, 그분은 무관심하고 차가운 존재였다.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 기도했다. 또한 이성과의 교제가 잘 진행되게 기도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갔다. 로빈은 말했다. “신이 그렇게 위대하다면,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 건가요?”

결국, 로빈의 주치의는 그녀가 투석을 받지 않는다면 3개월 이내에 죽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로빈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며 투석을 거절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죽으면 장례식 때 조사를 읽어 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우리는 또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그녀를 감정적으로 대했다. 그녀를

측은히 여기는 것 대신에 투석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적어도 6개월 동안만 이 책에서 추천하는 세 가지 원칙을 실천해 볼 것을 권했다. “겉보기에 현저한 변화가 없으면 그때는 당신이 결정해라”라고 나는 부탁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6개월은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는 전문 상담원으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입장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나는 로빈에게 그녀를 위한 기도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다. 나는 기도의 효력을 아주 분명히 믿는다. 그녀는 “물론, 해도 돼, 하지만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라고 대답했다. 로빈 같은 전형적인 대답이었다. 내가 그녀의 종교를 개종 하려고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기 바란다.

나는 간단한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 당신은 로빈에게 특별한 분이며, 손을 내밀어,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당신과 이 세상에 그녀가 특별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다.

그날 저녁, 로빈은 잠자기 전에 머릿속에서 세 가지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첫째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투석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둘째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셋째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내일 아침 일을 안 해도 돼.” 그리고는 잠이 들었다. 다음날 잠에서 깨자 그녀는 “어떤 의식이 나를 감싸 안았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살고 싶다!”는 생각에 당장 의사에게 전화 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가 잠든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한 게 분명해. 그렇게 해서 그가 내 마음을 바꾼 거야. 내 마음을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 그녀는 이 가르침에 따라 집에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리처드 칼슨과 웨인 W. 다이어가 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그 책은 어떤 감정으로 결정을 하던 자기 자신이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로빈은 자신에게 물었다. “이 아픔이 날 파괴하도록 허락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야 하는 것인가?” 이어 그녀는 자신의 *피해의식*을 벗어 버리고, *병과의 투쟁*을 포용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다.

그 날 이후, 일 년이 더 지났고, 로빈의 삶도 극적으로 변했다. 지금의 그녀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사실 나는 180도 변해 있는 그녀의 삶 주변에서 계속 놀라워했다. 일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기에, 나는 그녀가 감정적인 극복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말했다. “겉으로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어. 굉장히 멋진 일들은 내 생활에 일어나지 않았어. 투석을 받는 데도 일주일에 열두 시간씩 걸리곤 했지. 하지만 내적으로는 엄청나게 변했어. 인생에서 행복함을 느낀 건 처음이야.”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했다. “나에게 지금 축복받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느껴. 하지만 지금까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알아차리지도 못했어. 이제 내가 축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축복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

와! 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인가! 로빈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삶을 사랑하고 있다. 그녀는 지금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다.

그건 그렇고, 제임스와 나는 지난 주말 풋볼을 했다. 내 아내가 양쪽 팀의 쿼터백이었다. 그는 3대2의 터치다운으로 나를 이겼다. 우리는 모두 살아남았다.

## 2.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너머로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킨다.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더 확신을 주며, 어떠한 사랑보다도 더 무조건적이고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사랑. 이것이 랍비들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특성이다. - 랍비 데이비드 율페

“아빠, 내가 두 다리 펴고 앉은 묘기 한 번 보세요! 아빠, 내가 옆으로 채주넘는 거 봤어? 아빠, 아빠, 제가 하는 이 응원 동작 좀 보세요!”

지난 십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 온 일들이다. 아마도 누군가가 치어리더로 태어난다면 그것은 십대의 내 딸, 크리스틴이었을 것이다. 내가 기억을 더듬어 보건대 치어리더 되는 것이 딸의 큰 꿈이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연습을 계속해왔고, 정말로 열심히 연습했다. 나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체조 반에 등록 시켜 주었으며 고등학교 축구경기에 데리고 다니면서 경기장의 치어리더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틴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8학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다음 해의 대학팀의 치어리더로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그녀는 학수고대하며 일 년, 한 달, 하루, 날짜를 세어가며 시험 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려 왔다. 드디어, 그녀에게 중요한 한 주가 찾아왔다. 크리스틴은 자신감이 넘쳤다. 그녀는 통과 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뭐라고 해도 이것은 그녀의 꿈인 것이다. 연습을 열심히 한 그녀에게 인생은 공평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인생이 공평한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 거의 백 명 가까운 여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오직 소수의 학생들만이 치어리더팀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상급생들이다. 내 아내는 학교 다닐 때 춤을 추었는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 준 적이 있다. 그들 중 몇 명은 시험에 떨어진 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크리스틴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혼자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 그녀의 자부심에 큰 타격이 있을 텐데” 나는 걱정이 되어 안절부절못했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그려 보았다. 크리스틴이 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낙심해 있는 딸에게 나는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녀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시험 당일, 나는 계속해서 시계를 들여 다 보고 있었다. 크리스틴이 심사위원 앞에 서는 시간을 대략 알고 있어서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자마자 집에 전화를 걸었다.

“크리스틴, 애야, 시험은 어땠니?”

“그게, 아빠, 조금 긴장했어, 왜냐면 심사위원들이 나를 두 번 불러서 응원해 보라고 했거든. 월요일까지는 결과를 몰라요”

“월요일! 이런 사람들을 봤나? 왜 나를 고문하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딸에게는 침착하고 멋진 태도를 보였다. 나는 마이클 조단이 어떻게 중학교 농구팀에 들어가지 못했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들려주면서 그녀가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했다.

월요일 하루 종일 나는 불안했다. 시간은 정확히 오후 3시30분, 소식을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 잔뜩 기대하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통화 중이었다. 나는 최악을 상상하고 있었다. “치어리더 시험에 떨어져서 친한 친구를 만나서 울고 있을 거야” 나는 다시 전화를 했다. 됐어! 신호가 간다.

“여보세요,” 크리스틴이 전화를 받았다.

“크리스틴이구나, 아빠야. 합격했니?”

“네, 그럼요, 붙었죠, 붙었다구요!”

“잘했다!” 안심이다! 기쁘다! 나는 너무 기뻐서 거의 소리를 지르면서 공중 제비를 할 뻔 했다.

“그런데, 아빠, 내 유니폼과 치어리어팀이 캠프 가는데 칠백 달러나 필요하대요.”

꿀꺽.... 침을 삼켰다...“얼마라고 칠백 뭐?...걱정하지마라, 애야. 아빠가 마련할 수 있을 거야. 항상 그래 왔잖아”

상상이 겁니까? 칠백 달러가 아니고 저 말입니다. 사업가이면서, 대학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했던 건장한 남자가 일종의 고등학교 치어리터 시험에 흥분했다. 고백을 하자면, 이번 치어리터 행사는 제가 자식과 관련해서 흥분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였다.

제임스가 처음으로 홈런을 쳤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홈런을 쳤을 때 저를 봐야 했다. 바보처럼 깡충깡충 뛰고 소리를 너무 질러서 나중에는 목소리가 쉬어 버렸다.

다음날, 아홉 살 난 트레바와 나는 식료품점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 서 있었다. 트레바는 내가 사준 문방구 상자와 스티커를 들고 있었다. 우리 옆에 있던 한 여성이 트레바가 들고 있는 것(우리는 이것을 상품이라고 부른다)이 귀엽다고 한 마디 했다. 트레바는 무심코 그 여성에게 대답을 했다. “알아요. 아빠가 저에게 너무 잘해 줘요.” 그 말이 맞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나 자신도 조절이 안 된다. 내 아이들에게는 주어도 또 주고 싶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나는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좌우명은 이렇다. “나의 인생에 끼어드는 것을 참을 순 있지만 내 아이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안 그러면 나도 가만 두지 않을 거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온갖 종류의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른다. 나는 더 많이 걱정한다. 더 많이 아파한다. 더 많이 웃는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차별화 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선다.

그런 사랑은 내 생애 처음으로 큰 딸 크리스틴을 내 팔에 안은 그 순간부터 시작 되었다. 그녀의 반짝이는 두 눈이 내 눈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그 반짝이는 눈에 나는 더 이상의 보통 어른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주는 것이 아버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즉 그들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 해주며, 교육시키고,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오해 하진 마라. 자화자찬이나 하려는 것은 아니다. 자식에 관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엄마와 아빠 둘 다 평범하지 않은 일들을 한다. 인간의 부모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인간적인 실수를 하지만 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내 평생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들어왔다. 성인이 된 지금도 세상의 고통에 대해 궁금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께 많은 질문한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가 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부모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심어 주셨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매년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감싸 안아 줄때 나는 그녀가 어쩌면 하나님의 연장 일 거라

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선수로 뛰는 거의 모든 축구 경기에 오셨고, 대학 다니면서 자잘한 일들을 같이 상의하며 내가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을 때 나를 보호해 주는 등, 내가 아버지와 같이 뭔가를 할 때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식이 필요로 하는 든든함을 내게 느끼게 해주셨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내가 부모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 느꼈다.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관점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만일 우리 부모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랑을 베풀고 자식을 아껴주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또한 그런 분으로 비쳐 질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애정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장 끝에 가서 얘기하자. 지금은 애정이 있고 상냥한 부모로서의 하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무조건적 헌신이 내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조금은 헤아리기 시작했다. 내 아이들 모두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라서 사랑한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할 때, 무조건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아껴주는 완벽한 부모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깨달음은 우리 자신과, 타인들, 사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깨달음은 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힘을 준다. 길 잃은 아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으면 바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가 나타

나서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 곧바로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이 평화롭고 든든한 마음으로 바뀐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힘은 아이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 아이 곁에 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모로서 이해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예수가 사용한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아바(Abba)이다. 이 단어는 뻘뻘(영어로 Daddy 혹은 Papa)처럼, 한 때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의 아빠를 부를 때 사용했던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을 지칭 할 때 친근한 방법을 강조하셨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름으로서 가장 친밀한 부모자식의 관계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내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를 때 나는 이 단어가 가진 모든 특권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빠”라는 뜻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자식들이 내 무릎에 갱충 뛰어 오를 수도 있고 내 등위에 올라 탈 수도 있다. 밤에 무서우면 나를 부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특권은 어머니들에게도 물론 적용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기도를 지시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한 것도 이런 점을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다. 예수는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긴밀한, 부모자식관계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클리브랜드 대학 유대교학 학장인 데이비드 아리엘은 다음과 같이 썼다.

*신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랍비가 이제 까지 보았음직한 여느 부모의 이상적인 특성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사랑하고, 애정으로 돌보고, 서로 공감하고 자식들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희생과 자기 절제를 하는.... 신은 부모처럼 자신을 자제하며 양육한다.*

사랑하고 보살피주는 부모와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성격 중에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해보자. 이러한 특징들을 인생에 적용 했을 때 있을 수 있는 멋진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좋은 부모는 자기 자식들을 무조건 사랑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무조건 사랑한다**

빌의 불행한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에게 있을 수 있는 악몽이 빌에게는 현실이 된 것이다. 십대인 그의 아들 케니는 전여자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질투심에 불타서 그는 두 사람을 잔인하게 총으로 쏘아 살해했다. 변명 할 여지없는 끔찍한 범죄였다. 케니는 평상시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그의 부모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다. 그에겐 친구들이 많았으며 학교에서의 성적도 우수해서 의학대학 지원을 계획하고 있었다. 빌도 아들의 죄를 인정하고 법정에 소환되어 아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 그 증언을 하면서 이 아버지가 겪는 심장을 쥐어뜯는 아픔을 상상 할 수 있겠는가?

증인석에서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빌은 모든 사실을 배심원에게 털어 놓았다. 케니는 일급 살인에 대한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약물 주입에 의한 사형이 선고 되었다. 심리를 끝마친 배심원은 빌의 증언이 종신형과 사형선고 중 하나를 선택하는 평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TV를 통해 전국으로 방송된 인터뷰에서 빌은 울면서 아들이 저지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빌과 아내는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느끼는 죄책감과 비통함을 자세히 설명했다.

현재, 케니는 사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이다. 아들이 것처럼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르고 난 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지워 버리고 하거나 그의 존재를 잊어버리려고 무단히 애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주일에 두 번, 빌은 수감되어 있는 아들을 찾아가서 여전히 아들과의 관계

를 쌓아 가고 있다. 케니는 아버지가 해야만 했던 일들에 대해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 자신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으며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빌은 아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까지 아들 옆에 있을 계획이다. 아들의 죄가 극악무도 하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막진 못했다.

하나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스스로를 용서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있다. 물론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어떤 경우엔 그 결과가 심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러라고 하면 그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 삶을 회복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다윗왕이 생각한다. 그는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행동의 결과는 참혹했다. 다윗의 아들이 죽은 것이다. 하지만 여느 사랑을 베푸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다윗왕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 했으며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 부족 하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오며 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해답은 인생이 엉망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로 달려가는 것이다.**

**좋은 부모는 자식이 아파 할 때 같이 아파한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플 때 상심한다**

지난 달, 막내 딸, 트레바가 치아 근관 수술을 받게 되었다. 딸은 조금 긴장해 보였다. 반면 나는 겁이 잔뜩 났다. 십여 년 전에 나도 치아 근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치아의 신경이 완전히 죽은 상태가 아니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차례 치과 의사는 치아 신경을 건드려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그 의사는 무심하게 “아직 마취가 덜 되었네요”라고 말했다. 그 사이 나는 죽는 줄 알았다! 트레바의 치과 진료 예약 전에

이 장면이 계속해서 내 머리 속을 맴돌았다.

마침내 치과에 도착해서 나는 딸에게 물었다. “아빠가 손을 잡아 줄까? 네가 원하면 내가 옆에 있어 줄게.” 그녀는 “그러세요.”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 대답했다. 딸로 인해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의사가 나를 진찰실 밖으로 나가도록 했다.

대략 한 시간 후, 딸에게 갔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의사는 “부모보다 아이들이 항상 더 잘 견디죠.” 라고 말했다.

왜? 어째서 이 말이 사실일까? 이유는 부모가 아이들의 아픔을 느끼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식들 대신 아파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아픈 것 보다는 자신들이 차라라 아프길 원한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낀다.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아파 할 때 그도 아파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같이 나누더라도 중간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미래에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최근 제임스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나는 이러한 원칙을 납득하게 되었다.

크리스틴의 열 번째 생일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우리 가족 모두 평상시처럼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있었다. 아이들 생일잔치에 무슨 별다른 일이 있겠는가. 친척 몇 분은 장식을 도와주었다. 장식물로서 현관에 풍선을 매달아 놓았다. 화분을 달아 매 놓기 위해서 든든하게 박힌 못에 풍선들을 고정 시켜 놓았다. 그 풍선들 중 하나는 두꺼운 라텍스 고무로 만들어졌고 아주 매우 튼튼한 고무밴드가 부착 되어 있었다. 그 고무밴드는 손으로 잡고 지상에서 몸을 튀어 오르게 할 정도로 단단한 강도였다. 각본이 진행되자 제임스는 풍선 하나를 원했다, 바로 그 문제의 풍선을 갖고 싶어 했다. 그는 당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풍선을 붙잡고 여느 여덟 살 아이가 하듯이 그 풍선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풍선의 고무 끈이 못에 고정되어 있어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제임스가 잡아당길수록 그 끈은 더 팽팽하게 늘어나고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 풍선이 아닌 못이 빠져나왔다. 팽팽하게 늘어난 고무 끈의 반동으로 그 못이 순식간에 날아가 제임스의 가슴에 꽂혔다. 제임스가 3인치 못이 가슴에 박인 채 겁에 질려 거실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받은 충격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끔찍한 모습이였다. 못이 그의 가슴뼈 위로 빠져나와 있었고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서 죽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제임스를 이동시킬 경우, 못이 동맥, 폐 혹은 다른 부위를 건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겁나서 옮길 수 없었다. 누군가 911에 전화를 했다. 곧바로 구급차와 소방차가 우리 집 앞마당을 가득 메웠다. 비상등이 모든 곳에서 깜빡이고 있었고 지나가던 차들은 무슨 일이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속도를 낮추었다. 응급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을 때 크리스틴의 생일 케이크와 선물들은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여자 아이들은 울고 있었다. 의료진은 제임스를 들것에 고정시키고 구급차에 밀어 넣고 장인과 내가 따라 가려고 하는 데 재빨리 출발해 버렸다. 그들은 내가 아들과 함께 구급차에 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제임스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보며 같이 가자고 소리를 질렀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런 그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구급차에 타 있는 동안 제임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들이 일어났을까? “아빠는 왜 나를 홀로 남겨 둘까? 왜 같이 가지 않지?”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 결과 못은 아슬아슬하게 동맥을 비켜서 폐 쪽에 위치해 있었다. 다행히도 폐를 뚫지는 않았다. 응급실 담당 의사는 말했다. “아마도 누군가 위에서 맥의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분명 합니다, 만약 그 못이 어느 방향이던 위치가 0.5인치만 달라도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또 그

못이 아이의 눈이나 머리를 맞힐 수도 있었겠지요.” 그리고서 말을 이었다. “제임스를 마취하고 못을 빼내는 수술을 하지만, 제임스처럼 어린 아이인 경우 앞으로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을 빼내야 합니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말했다. “제임스가 아프겠지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임스에게 진통제가 투여되었으나 별 효과가 없는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의사는 자신이 못을 빼내는 동안 나에게 제임스를 잡아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힘들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의사가 못을 가볍게 조금 건들 때 마다 제임스는 아파서 몸을 비틀고 고함을 질렀다. 의사는 펜치를 가져와서 못을 잡아 당겼으나 그 못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못이 통나무에 망치로 박아 놓은 듯이 그의 가슴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그 시간 내내 제임스의 눈은 나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두 눈동자는 가슴 아프게 말하고 있었다. “아빠, 어떻게 좀 해 줘요. 의사가 나를 아프게 하지 말게. 제발, 아빠, 제발.” 나도 또한 울고, 순간 나약함에 포기하려 했다.

의사는 강경하게 나를 말렸고 내가 강해져야 한다면 제임스를 단단히 붙들고 있으라고 했다. “이건 제임스를 위한 겁니다.”라고 그는 나에게 확인시켰다. 어떤 것이 최선의 길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제임스를 잡고 있어야 했던 것은 아주 견디기 어려운 일 중 하나였다. 나는 또한 이 모든 과정을 중단 시키거나 수술을 선택 할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나의 본능은 결국에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숨을 깊게 들이 마시고 다시 한번 팔로 제임스를 감싸 안고 처음 보다 더 강하게 그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 제임스의 눈은 쉬지 않고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아빠, 어떻게 저를 버리실 수 있어요, 나는 아빠와 엄마만 믿었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아시잖아요. 아빠, 내가 아프다고. 어떻게 좀 해 줘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붙잡고 있는 것뿐이었다. 이번에는 의사가 말 그대로 제임스에게 올라타서 다리로 누르고 더 힘껏 못을 잡아 당

졌다. 그 만큼 못이 깊숙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영원 할 것 같던 순간이 지나고 못이 뽑혀 나왔다. 제임스와 나는 땀을 한 바구니 흘렸고 나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픔은 서서히 누그러졌다. 걱정도 이젠 끝났다. 제임스는 마치 “아빠, 왜 사람들을 그냥 놔 두셨어요?” 라고 말하듯이 쳐다봤다.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는 그를 안고 사랑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알지 못했고 언어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가 어른이 되고 좀 더 성숙해지면 그도 이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아프다는 것이다. 오직 부모들만이 내가 겪은 고통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관여하여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할 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고 나도 또한 제임스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서 제임스에게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나의 아들 때문에 아파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인해 아파하신다.

“여호와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 (시편 34:18).

**좋은 부모는 사랑의 경계선을 주신다. 하나님도 사랑의 경계선을 주신다**

제임스는 오토바이를 갖고 싶어 했다. 오토바이 관련 잡지를 항상 읽는다. 방에는 오토바이 포스터들로 가득하다. 차를 타고 오토바이가게를 지나칠 때마다 그는 멈추고 오토바이를 보고 싶어 했다. 지난 삼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했다. 내가 사 줬을 것이라고 생각 하세요? 절대 안 되죠!

그 이유를 아세요? 제임스 자신보다 내가 더 그를 잘 알기 때문이다. 아들은 오토바이를 운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끔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안 해줘서 제임스가 화를 내기도 하지만 나는

제임스를 그 자신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내 친구 중 한 명이 이십 대 중반에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는 책임감이 있는 친구였다. 또한 오토바이 사고로 한 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던 한 소녀도 알고 있다. 오토바이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이 다룰 수 없는 것을 해 줄 수는 없다.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에 경계를 정하는 것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에 경계선을 정해 우리를 보호 하신다.*

이 우주에 도덕률(경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가 대단하고 성격이 고약해서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만 바라신다. 율법학자 스튜어트 보겔은 십계명을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십계명을 단순히 자신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 목록으로 보면 사람들은 겁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 법률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랑, 명예와 존경이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영혼 속 깊숙이 내재하며 그러한 보편 법칙들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한 법칙들은 종교와 문화를 넘어선다. 역사를 통해 다른 문명 속에서 믿어왔던 도덕률의 일례를 살펴보자. 여기 인용된 문명사회는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했지만 그들의 법에는 놀랄만한 유사성이 있다.

“남을 흉보지 마라” (바빌로니아)

“너의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을 하지마라” (고대 유대교)

“남을 해 할 수 있는 말을 삼가라” (힌두교)

“네가 원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마라” (고대 중국)

“네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도 베풀어라” (기독교)

“한번의 거짓말로 희생이 사라지고 한번의 부정행위로 선행이 소멸된다.”  
(힌두교)

“신사는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대 중국)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기독교)

“부모를 공경하라” (유대-기독교)

“부모를 잘 돌보라” (그리스)

“너의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한 신의 모습이다. 너의 어머니는 대지의 모습이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효심은 헛되도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힌두교)

“너희들은 어른을 돌보는 광경을 보게 되리라” (아메리카 인디언)

위의 예는 전 세계 문명사회의 비슷한 수백만 개 법칙 중 일부이다. 하나님 이 그의 성격인 우주의 법칙을 우리 각자에게 심어 뒀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창조 할 때 그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다. 신약성서 사도행전10장 34-35절 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 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다.”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하나님의 법칙에 따른 삶을 선택하나 그렇지 않은 삶을 선택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는 계획의 범위를 벗어

나면 사람들은 종종 아픔을 겪고, 사람들은 생애 대부분 아픔을 경험한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보살피고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의 경계선을 그어 놓는 것이다.

개인적인 면에서도 우리 자신보다 그가 더 우리를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이 보기에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것이 아닐 때 그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거스 브룩스란 가수가 부른 노래 ‘응답하지 않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는 제목의 노래가 생각난다. 노래 가사는 이렇다. 그가 헤어진 여자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다. 따라서 여자 친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거스는 결혼하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된다. 우연히 옛 여자 친구를 만나는데 그때 바로 자신이 얼마나 기죽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 예전 여자 친구와 잘 되는 게 실수였을 거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노래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울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한다.

나는 이 노래를 무척 좋아한다. 단지 하나 내가 고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스의 기도에 응답을 했다는 것이다. 대답은 “아니다, 거스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 좀 더 나은 것을 준비해 뒀다.”이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준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길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데 아주 긴 시간이 걸렸다. 그는 우리를 압도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성공과 행복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 계신 것이다. 휴가철에 모든 부모들을 잘 살펴보라.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며 장바구니

에는 아이들을 위한 물건이 잔뜩 있다. 돈이 빠듯할지도 모르지만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구걸이던, 빌리던, 심지어 훔치던 부모들은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싶어 한다.

만약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해 줄 형편이 안 될 경우, 부모는 그것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기 까지 할 것이다. 97년도 크리스마스를 잊을 수 없다. 내쉬빌에 있는 가게에서 출판 사인회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날씨는 아주 혹독했다. 비는 쏟아지고 있었고 아주 추웠다. 바람은 주차장 쪽으로 세차게 불어서 가게의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차가운 바람과 비가 안으로 들어 왔다.

말할 것도 없이, 사인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실,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지울 수 없는 출판 사인회 중 하나였다. 한 젊은 여성이 그런 날씨를 무릅쓰고 다 젖은 옷에, 화장은 번진채로, 추위에 떨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 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남편의 저지른 끔찍한 폭력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로 자신과 아이들을 때린다고 했다. 마약과 술에 돈을 탕진하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돈조차 없었다. 그녀는 절망적이었다. 그 말이 진실이라고 나는 믿었다. 그녀는 금전적인 도움은 바라지 않았다. 대신에 선물 목록이 적힌 종이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지금도 그 목록을 기억한다.

- 켈리 열두 살, L 사이즈 바지, 신발 사이즈 240, 핫윌즈 완구 자동차 세트  
원함

- 앨런 열여섯 살, XXL 사이즈 바지, 신발 사이즈 280, 소니 워크맨 원함

- 팔 개월 된 아기, 따뜻한 옷 필요

- 크리스마스 저녁을 위한 조금의 음식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 맨 끝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나는 책 한권을 주면서 그녀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나의 원칙이다. 그녀는 고마워하며 남아있는 약간의 자긍심을 추스르며 가게를 나갔다. 나는 한 교회에 전화를 걸어 그녀가 도움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이 어머니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 도움을 청한 것이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 만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자녀들을 위해 돈을 낭비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해주는 방식이 우습다는 것도 안다. 줄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줄일 수가 없다. 아이들이 행복해 하면 부모는 아주 큰 만족을 느낀다. 사랑과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해도 자녀들에게 선물을 많이 퍼붓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4년 전, 카일은 죽어가는 딸인 미씨에게 신장 하나를 떼어 주었다. 그 특별한 선물로 미씨는 건강해 질 거라는 희망도 생겼다. 그러나 이글을 쓰고 있을 때 이식된 신장이 잘못되어 다른 신장 기증자를 찾아야 했는데 가능성은 희박했다. 혈연관계가 없고 혈액형이 비슷한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의 신장을 이식 받을 수도 있으나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장 이식성공률이 더 높다. 아버지인 카일만이 혈연 중 적합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들은 미씨가 신장 이식을 받지 않을 경우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겨우 열여섯 살이다.

카일은 딸을 무조건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신장까지 주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딸은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투석을 받아야 하는 카일의 건강은 치명적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대학병원의 미씨 주치의들은 처음에 이 제안에 난색을 표명했으나 가족의 요청으로 윤리위원회가 이 사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카일의 특별한 제안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장기 이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희생해가며 자식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윤리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는 그 제안이 비윤리적이라는 통고를 받았어요.”라고 미씨의 어머니가 말했다. 다른 관계자들은 “이것은 윤리가 아니라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족의 문제라고 평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선물은 자기 자신이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즐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좋은 부모는 과잉보호를 하지 않으며, 하나님도 과잉보호를 하지 않는다**

과잉보호를 하는 부모는 무관심한 부모만큼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이 스스로 커야만 한다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이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고, 의견을 제시해 주고,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체로 아이들을 구속하지 않는다. 설사 그러한 자유를 줌으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더라도, 현명한 부모는 자식들을 자유롭게 놓아 준다. 그것 또한 사랑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구속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신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된 인간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는, 한 인간으로서 생물학적 종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한 최고의 선물 중 하나이다. 선택 혹은 자유의지가 없으면 서로 주고받는 사랑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동물들과 다를 바 없다. 동물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 본능만이 존재 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인간에게는 선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색하고, 추론 하며, 사랑을 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며,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해 알고 있다. 동물들에게는 없는 아주 많은 감정들을 표현 할 수 있다. 슬픔, 짜증, 질투, 배반, 증오, 사랑, 기쁨, 희망을 느끼며 무엇보다도 인간은 독창적이다.

완전한 사랑을 위해서 인간을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관계가 성립 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선택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이런 자유는 꼭 필요하다. 하나님은 사랑과 함께 고통과 악이 세상에 들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신 것이다.

그는 우리의 삶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며, 우리가 아파 할 때 그도 아파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가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며 인간사에 개입 할 때가 가끔 있다. 우리는 이를 기적이라 부른다. 나는 기적을 믿으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정의감으로 행하신 그러한 기적 때문에 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를 키울 때 부모는 아이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고 싶을 때가 있으나 그것이 나중에는 득보다는 해가 된다는 것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들을 자유롭게 풀어 두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항상 똑 같은 자리에 서 있다. 우리가 바라는 만큼 우리의 삶에 관여하진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베푸는 부모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보살피 주신

다.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갖는 견해가 달라진다.

하나님을 부모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모습으로 보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많다. 우리가 부모에게 느끼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한 느낌으로 이어진다. 부모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마조리 홈즈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당신을 만날 수 있나요”란 책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돌이켜 보면 나의 아버지는 내가 생각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닮았다. 그는 복잡하지도 않았고 어려운 분도 절대 아니었다. 항상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가끔은 화를 내고, 고함치고, 엄격했다. 우리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공정했다. 용서하는 데 주저함이 없으며 악의가 없으셨다.

아버지는 늘 우리를 사랑하고 걱정하셨으며 그런 그를 우리는 사랑한다. 한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이 세상 아버지들이 이런 좋은 인성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것이 얼마나 자연스런 일이 되겠는가!

그러나 부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더러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를 생각 할 때 폭력, 고통, 버림받음, 수치심 같은 느낌을 떠올리게 된다. 아니면 부모가 죽거나 살해되어 혼자 남겨지는 쓸쓸함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사랑을 베풀고 보살펴 주는 부모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테레사 수녀님은 ‘사랑을 주는 기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세상 많은 곳이 적막한 영혼으로 가득 차 있다. 붕괴된 관계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버림을 받고 마음속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영적인 삶을 갈구하면서도 의심을 갖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삶을 의지했던 사람들로 부터 확신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결별로 인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어린 마음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회의적이고 자신감이 없다. 그들에게 삶의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겠는가?

같은 테레사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가 테레사 수녀가 언급한 불행한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하나님을 멀게만 느꼈다. 테레사가 말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경찰관이고 언제나 나쁜 이들을 벌주지만 전혀 온화하거나 우리를 보살펴 준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는 실제 나의 아버지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뼈뚫어진 시각은 그녀의 아버지가 보여준 폭력에 기인한다. 테레사 아버지는 딸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그녀를 위해 돈 한 푼 쓰지 않았다. 그녀가 열세 살 되던 해 아버지는 술이 아주 많이 취한 채 생일파티를 하는 장소에 나타나서 “이 못되고 멍청한 계집애”라며 고함을 질러댔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녀의 친구들 앞에서 “누가 널 좋아 하겠냐”라며 비웃기 까지 했다. 그 일로 인한 충격 때문에 테레사는 갈 곳 없는 외톨이가 되었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고 꿈이 산산이 조각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그 만의 방식으로 우리를 받아들인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실망을 안겨 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텅 빈 마음을 채워 주신다. 테레사는 “당신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주여. 저의 모든 것을 받아 주셔서 이제야 집으로 돌아 온 느낌입니다.”라고 말했다.

오늘 내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내 몸 전체에 커다란 사랑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일말의 주저도 없이 나의 삶을 그들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우러나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에 평화가 가득 찼다.



### 3. 하나님에게 정직하라

자신에게 솔직해야 신에게도 솔직할 수 있다. -작자미상

잠시 나와 함께 먼 옛날로 여행을 떠나보자. 때는 1500 B.C, 고대의 Uz으로 가보자.

우리가 타고 갈 타임머신은 성경이고 상상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고대 Uz에는 욥이라는 성경 속의 인물이 살았었다. 그를 실존 인물이라고 믿는 학자들도 있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심어 주기위해 만들어진 가공의 인간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여하튼 하나님은 욥 이야기로 많은 이들을 위로 하고 있다.

욥은 엄청난 재력가였다. 그의 재산목록에는 칠천 마리의 양, 삼천 마리의 낙타, 천 마리의 소, 오백 마리의 당나귀와 많은 수의 하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건강한 대가족을 거느린 가장이었다. 이 많은 재산과 사람들 숫자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가 소유한 토지는 만 에이커 정도로 광활하고 하인들이 거주하는 부동산도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그 당시 소, 낙타, 당나귀들은 오늘날 자동차처럼 필수 도구였고 그러한 가축들을 사육하고 판매해서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칠천 마리 양에서 얻은 털실로는 그 지역 전체 주민의 옷을 만들 수 있었다.

사업 면에서 보면 그는 지금의 빌 게이츠나 샘 왈튼과 같다. 욥은 몸집이 거대했고 동쪽에 사는 사람들 중 가장 건장한 체구의 남자였다고 성경에 쓰여 있다. 그렇지만 다른 여느 부자들과 달리 그는 항상 겸손하고 자신의 성공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 덕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그는 하나님에게 복종했으며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

고 사업에서는 윤리를 지켰다. 그는 “옳은 일들만” 하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날들이 혐오스럽지 않나요?) 청천벽력과도 같이 나쁜 일만 연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성공의 길을 달리다 느닷없이 쿵, 쿵, 쿵 연속하여 비극이 그를 덮친 것이다. 먼저, 강도들이 들이닥쳐 밭에서 일하고 있던 그의 하인들을 죽이고 많은 가축들을 훔쳐 달아났다. 그 이후, 견잡을 수 없는 산불이 일어나 양떼들과 목초지를 다 태워버렸다. 거기에다 세 무리의 강도들이 낙타를 훔쳐가면서 낙타들을 돌보던 하인들까지 살해했다. 그리고 끝으로, 혹독한 사막폭풍 때문에 그의 집이 날아가 버리고 부인을 제외한 전 가족이 목숨을 잃게 된다.

이런 슬픈 사건으로 욥은 나약해진 상태에다 부스럼까지 온 몸에 퍼졌다. 이 모든 혼란스런 사건 후 남은 것은 빈털터리, 병들고, 슬픔에 빠진 자신뿐이었다. 재물, 건강, 행복도 다 가졌던 그가 이젠 경제적 파탄, 병마,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까지 겪게 되는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혼란 속에서, 내가 덧붙이자면, 욥은 자신을 제어 하지 못했다.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 울부짖었다. “나의 분한(憤恨)을 달아보면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들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운 것이라.. 평강도 없고 안온(安穩)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앞으로 결코 다시 행복하지는 못할 것이니.. 나의 생일을 저주하노라”(욥기 3:1, 26; 6:2-3). 욥이 곤란에 처해 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는 비통해하고 있었다.

우리의 시련이 욥만큼 심하지 않더라도 욥과 비슷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도 많을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삶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할 것이다. 삶을 계속 살고 싶지만 깊고 킁킁하고 계속 되는

의기소침이란 구덩이에 갇혀 버린다. 스스로 그 곳을 빠져나오려고 구덩이를 기어오르려 하지만 내가 가진 짐을 상징하는 팔다리의 무게는 천근만근이다. 그는 자신을 그저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구덩이 속으로 더 깊이 떨어진다. 포기하는 것이 미래의 일을 직면하는 것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래가 있다면 어떤 미래인가? 당신의 인생은 절름발이 인생이다. 당신은 어떤 희망도 꿈도 볼 수 없고 오로지 고통만이 당신 눈앞에 있다. 이게 바로 읍의 운명이었다. 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죽고 싶을 만큼 참담했다.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있던 읍에게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펄쩍 떠올랐다. 사실 그랬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 친구 세 명이 그가 있는 천막으로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런데 이런! 걱정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었다. 읍은 위로하러 온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너희가 말로 격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나는 당신들을 모르오, 나와 당신들과 어떤 관계라도 있단 말인가!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하면 그에 대한 처방을 갖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독선과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줘야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직선적인 말과 함께 뽀족하고 상처를 입히는 표현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으며 듣는 사람의 감정을 해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자신들의 위안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진지하게 말을 쏟아 놓기만 한다. 읍의 친구 중 한명은 *“그런즉 읍이여 내 말을 들으며..내 말이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히 말하리라”*

라며 말을 시작했고 욱이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불행이 닥쳐온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그에게 숨 가쁘게 토로했다

그렇다, 이들은 진실한 마음에서 욱을 위로했다. 그렇다고 해도, 한번 생각해보라. 이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알고 있나요? 욱 이야기 끝에 하나님은 그의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진솔한 질문들은 그냥 내버려두었다. 그 대신 위로하는 자들 중 우두머리인 엘리파즈에게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욱의 팔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며 꾸짖으셨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욕을 위로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진정으로 그와 함께 슬픔을 나눴다. “욕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저 할 수 있는 일이란 칠일 동안 그의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또한 올바른 일이었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어떤 훈계나 강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친절을 베풀며, 희망을 주며, 측은지심을 느끼며,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들과 같이 있어주고 필요할 때 옆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자가 되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한 번에 한 걸음씩 옮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어라. 현실의 밝은 면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말이다. 그리고 일상에서 성공을 맛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을 수 있게 도움을 주어라.

욕의 친구들은 한동안 그와 함께 슬픔을 나누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만큼 욱이 빨리 회복되지 않자 태도를 바꿔 그를 질타하기 시작했다.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래, 네

가 슬퍼서 울었어. 그럼 이제 추스르고 살아가야지. 이제 그만하고 네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야” 라고 말했을 것이다. 친구의 이런 재촉에도 그가 아랑곳하지 않자 그들은 욱을 “고쳐” 보려고 시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힘든 일은 겪는 사람들 대부분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 욱도 친구들에게 “나의 도움이 내속에 없지 아니하냐?...” 물어 본다. 이 질문은 “아니, 없어” 라는 뜻이다.

상처가 치유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지당한 말이다. 사람이 상처를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 각각이다. 이런 때는 자포자기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시간이라기보다 정신적인 정화를 하는 기간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아파하면 그 고통은 스스로 치유 된다. 잃어버린 것에 대해 충분히 슬퍼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죄책감, 괴로움 또는 분노를 평생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욱의 친구들은 욱과 비교해 자신들이 경험한 고통이 가볍기 때문에 더 정직하며 더 도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공을 하게 되면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이 얼마나 흥미로운 반응인가? 옳은 일을 해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와중에도 나쁜 결과가 따를 수 있다. 감지 할 수 없을 정도지만 우리는 나름대로의 값을 치르며 살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다면 정말 명심해야 한다. 당신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언젠가는 도움과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욱은 잘못된 일도 없으며 그릇된 결정을 내린 적도 없었다. 하나님은 욱을 위로하는 자들을 힐책하였으나 성경의 욱기에 쓰인 것을 읽어보자 “욱은 순진하고 정직하여...이 모든 일에 욱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욱이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욱 친구들에게 “잘못”을 인정하

게 했으며(자신들이 박식하다고 생각하는 오류!) 욥에게 그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 잘못이란 위로하러온 친구들이 현학적인 말 때문에 욥이 모욕을 느끼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욥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살면서 고통스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거나 믿음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잘못된” 죄책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느끼는 책임감과 잘못된 죄책감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평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친한 친구 한 명이 2년이 넘도록 폐암과 힘들게 고달픈 사투를 벌였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병마에 무너져 젊은 선다섯에 죽었다. 무자비한 암과 투병하는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버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는 믿음이 깊은 친구였다. 하지만 병세가 심해질수록 그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절망하다 못해 거의 공포에 질려 나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친구는 자신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병에 차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확신 시키면서 인생의 시련은 정의로운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 다는 말을 인용해 주었다. 일은 발생하고 폭풍은 찾아온다.

욥은 자신이 당한 일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며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고 욥의 친구들도 그를 심판 할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찢막한 비난을 들은 욥은 한 친구에게 말했다.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찌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바꿔 말하면 “나 스스로도 걱정하고 있으니, 남의 걱정하지도 말고 더 이상 위로도 하지마라!”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받아 들였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려 부단히 노력했다. 또한 그는

개인적 책임감과 자기 궤멸을 분명히 구분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도 알고 있었으며 그의 자비를 구하기도 했다. 욥은 자신감이 있었고 모든 것이 구비되어 인정도 베풀었다. 잘못된 죄책감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내 몰아 실수나 불행, 고통을 유발하여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친구들의 위로가 듣기 괴로웠지만 욥은 그들의 동정심을 가볍게 한귀로 흘려보냈다. 소위,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과 일을 끝마친 후 그는 하나님과의 진심 어린 대화를 하는 데 집중을 했다. 이런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욥은 경청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듣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말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지전능한 분과 솔직한 대화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질문들, 의심, 두려움, 성냄, 짜증을 보여주었다. 그는 하나님에게 솔직해지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을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직장을 잃었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가? 장애가 있는가? 이혼? 미혼? 좌절하고 있는가? 배신당했는가? 인생이 당신을 속인다고 생각하는가? 믿음이 없고, 현세적이고 신성을 모독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을 드러내 놓지 못하고 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거나 결끄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 욥과 같은 기분을 느끼는가? 혼자인데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많은 감시의 눈길을 보내고 있진 않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인생을 경험하고 배우지만 하나님에게는 질문을 던질 줄 모른다. 그런 질문을 하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로운 일만 하신다” 혹은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준비하려는 것이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 나를 오해하지는 말라. 이러한 말씀이 진실

임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암으로 죽는 사람들,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사람들, 혹은 장애가 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이란 때론 참으로 감지하기 어렵다. 비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이나 좋은 말들은 너무 추상적인 것들이며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일과는 상관없어 보인다. 욥의 이야기가 이런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다. 욥을 위로하는 친구들은 이론적으로 정신적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옹호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렸다. 핵심을 찌르면서 말 하나 하나에 진실이 담겨있긴 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하고자하는 말 속에 반쪽 진실이 욥을 괴롭힌 것이었다.

-“췌! 욥. 그런 말은 말게! 하나님이 그런 말 좋아하지 않을 걸세. 긍정적인 믿음이 들어간 말만 하도록 해” 긍정적인 고백은 바람직하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런 긍정적인 고백이 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진실된 감정을 속인다면 잘못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솔직하고 허심탄회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는 하나님이다. 그 앞에 솔직하면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욥, 네 맘속을 잘 들여다봐. 무슨 죄를 지었음에 틀림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옳게 살면 상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시잖아. 네가 죄를 고백하고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 잘못된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는 나쁜 일이 일어 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준 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은 너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 기회를 통해 배워야 해. 영광스럽게 생각해야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마라. 이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잊지 말게”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기도 하지만 이런 말들을 통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즉,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아닐 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이며 믿음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겪게 함으로서 가르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전혀 진실이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운 일의 대부분은 세상 자체가 얽히고설킨 복잡한 곳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만 그도 우리가 힘들어할 때 힘들어한다. 나는 작고한 로이 힉스 주니어가 한 말을 소중히 생각한다. “네게 가슴 아픈 일에 대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아도 그분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네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등을 돌리지 도 않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욥” 이 말은 이치에 맞게 들린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스스로 도울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 할 때도 가끔 있다. 그러나 시련이 닥친 경우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비판적인 판단이다.

욥의 친구들이 지적한 점들은 그 자체로 옳고 유익하게 들린다. 그렇지만 하나님까지 그들을 꾸짖지 않았던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옳은 말을 하라며 꾸짖으셨다. 이 점을 잘 이해하기 바란다. 어떠한 주장이 정당하고 옳바르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주장을 펼칠 권리는 없다. 친구들의 주장에 대해 욥은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안위자로구나!” 라고 대꾸했다. 욥은 그들이 하는 말을 이미 들어 왔다. 그도 모든 종교적 표현을 알고 있으며 전혀 새롭지 않았다.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욕을 위로하는 자들에 대해 필립 안시는 그의 저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에서 “욕에서 도움이 되는 충고는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찾고 있는 해답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부적절한 시기에 내려진 잘못된 처방이라고 쓰고 있다.

힘이 들 때 자주 묻게 되는 질문은 하나님이 진정 나를 강하게 단련시키며 모든 것을 좋게 하려는 계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믿는 것 하나하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 주저했던 질문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이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요?”, “이런 분노와 치욕을 제가 어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은 끝이 없다. 그리고 고통은? 우리는 고통 때문에 좌절한다.

결혼생활 12년 만에 고통스런 이혼을 한 후 보냈던 일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때 나는 어떤 한 교회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텅 빈 집으로 퇴근했다. 하룻밤 사이에 내 인생은 급작스럽게 변했다. 아이들과 이별하고, 집을 나오고. 나는 망연자실했다. 우리 집안에서 나 이외 이혼한 사람이 없었으며 게다가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목사였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구석에 쭈그려 앉아서 그냥 하염없이 울 때도 가끔 있었다. 한번은 밤에 어딘가를 가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하나님에게 울부짖으며 왔다갔다 서성이기도 했다. 어느 정도 아픔이 가시자 차로 돌아와서 가던 길을 갔다.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라서 교회일도 그만두었다. 내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겠는가?

일년 동안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내가 계속해서 그에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항상 옳은 말과 행동과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년 넘게 교회 문턱에는 갈 수도 없었다. 너무 아팠다. 그 당시 나를 지탱시켜준 단 하나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풀기 어려운 질문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가 떠나고 싶을 때조차도 나를 놓지 않으셨다. 내 친구들 중 나를 가장 많이 위로해준 이들은 그냥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판단하려 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시키려 하지도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기댈 수 있도록 해 주었고 자신들의 짐을 언제든지 열어두었다. 나는 평생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나를 설득하려 했던 사람들의 의도는 좋았으나 그다지 도움이 되진 못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르다는 것이 아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상처 이외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런 많은 일들 속에도 희소식이란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나를 끝까지 지켜보았다. 8년 동안, 정말로 나는 어느 때 보다 행복했고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아참, 이 이야기는 주제를 벗어나는군요.

어느 날, 헬스클럽의 사우나에서 어떤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대화 도중 그 남자는 몇 년 전 아들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죽었다고 했다. 그리고는 말을 이었다. “부모가 자식 장례를 치루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라고. 그 반대가 돼야 정상인데” 자식을 잃는다는 것을 상상 할 수 없는 나로서는 어떻게 그가 고통을 이겨내며 살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전혀 심오하다거나 종교적이지 않았다. 멋있게 들리지도 않았다.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이보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사하고 간청했다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거야. 하루에 한번. 그분의 도움 없었으면 고통을 이겨내는 게 전혀 불가능했지”라고 그가 대답했다.

욥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어떠한 질문이나, 의심나는 것들, 분노, 죄책감, 슬픔 등 무엇이든 다 쏟아 부어도 좋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솔직하길 하나님은 바라신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며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건강한 관계는 정직한 대화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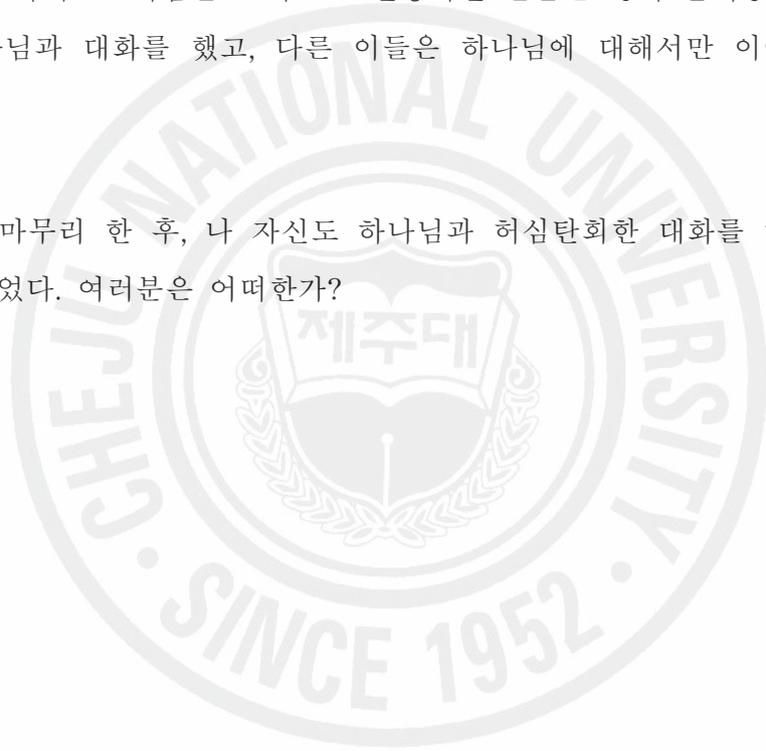
욥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진실한 질문과 불평을 하나님께 털어 놓았다. 그는 하나님께 물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확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취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외치는 욥의 불평을 느낄 수 있는가? 그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너무나 솔직했다. 그 정직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만이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또한 그것을 믿었다. 욥이 말했다. “내가 알기에는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내가 소망이 없노라....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마침내 욥을 위로하러 온 자들이 자신들의 말을 다 한 후, 욥은 자신의 불평과 속내를 하나님께 늘어놓았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며 현장에 모습을 보이셨다. 그리고 욥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의지함이나?...”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하나님이며, 욥 너는 인간이다”라는 것이다. 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응답은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스스로 한 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그가 느낀 좌절을 하나님께 쏟아낼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그러는 것이 건강하다. 그러나 그가 최종적으로 깨달은 바는 하나님은 그의 질문에 일일이 다 답을 해 줄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이 하는 질문에 항상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는 않

는다. 괜찮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리잔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명확하진 않지만 언젠가 완벽하게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시련을 겪는 동안 욥이 하나님께 솔직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고, 반면 그를 위로하려 온 사람들은 비난을 받았다. 이유는? 욥이 화가 나거나 좌절 할 때도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도 욥은 하나님과 솔직한 대화를 했다. 반면, 위로하려 온 사람들은 바르고 인상적인 말들만 많이 늘어놓았다. 욥은 직접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 다른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던 것이다.

이번 장을 마무리 한 후, 나 자신도 하나님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



#### 4. 25센트의 은총

죄를 지은 자는 은총의 손길을 갈구한다. - 필립안시

“옆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개의치 말라. 쏟아진 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냥 걸레로 닦으면 된다. 진짜 간단하다. 그런데 옆질러진 석유는 어떨까? 한 드럼통의 석유를 당신 차에다 쏟아서 카펫에 모두 스며들었다. 기절할 정도로 석유 냄새가 코를 찌른다. 불꽃만 닿아도 차가 화염에 휩싸일 수 있다. 한 드럼통의 석유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최근 여름에 내가 알아낸 사실은 한 드럼통은 아주 양이 많다는 것이다. 잘 꾸며 놓은 당신 차를 완전히 못쓰게 할 정도다. 부모님의 취향에 맞게 꾸며 놓은 차를! 내가 간단한 교훈하나 말해주겠다. 남에게 어떤 것도 빌리지 마라. 빌려 쓰느니 아예 없이 사는 것이 훨씬 낫다.

나의 아버지는 어느 정도 순탄한 삶을 사셨다. 나는 모든 일을 계획에 따라 실행하고 하루일과도 분 단위로 짜여진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그 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은 차에 쏟은 5갤런의(한 드럼통) 석유였다. 내 차가 아닌 부모님 차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건이 결국 나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순간, 주의 깊게 계획된 일정 대신에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녀야 했으며 정신 없이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일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도 아주 당황하지는 않았다. 이런 엄청난 일 와중에도 멈춰 서서 몇 번 심호흡을 하고 1부터 100까지 세었다. 그러자 곧 기적같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일로 우울해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나서 나를 추스르고 오후를 평온하게 보냈다. 그러나 그럴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팔고 싶은 플로리다 남부에 약간의 늪지대

땅을 소유하고 있으리라.

그러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몇몇 전문가와 통화를 해 보고나서 내 실수 하나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차를 깨끗이 치우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나의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좌절과 한탄의 한숨이었다. 왜 이다지도 멍청한지?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가득 넣었으면 석유는 정유소에 놔둬야 하는 것을 왜 몰랐는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하자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와 씨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차 창문을 모두 내리고 공기를 정화시키면서 별 문제없이 잘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뜰에서 일하는 것이다. 일하면서 무엇을 할지 생각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는가. 그 망할 놈의 잔디 깎는 기계가 시동이 안 걸릴 줄을! 시동 거는 줄을 당겨보기도 하고 기계를 앞뒤 좌우로 흔들며 맞춰보고 끝내는 발로 본체를 차면서 소리를 지르는 극에 달했다. 구입하지 삼주 밖에 안 된 기계가 작동이 안 되었던 것이다! 밖의 온도는 섭씨 25도였고 나는 잘 익은 가재처럼 얼굴이 빨개진 채 땀을 뻘뻘 흘렸다. 멀리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다. 잽싸게 뛰어 가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였다. 내 나이 사십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석유(기름)를 차에 쏟지 않았다고 말하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있는 나 자신이 열 살처럼 느껴졌다. 스트레스 수치가 측정이 불가능 할 정도로 확 높아져서 아버지에게 심한 말 몇 마디를 내 뱉어 버렸다.

웬지 모르게 그 날 온 종일 힘이 쭉 빠졌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느낄 수 없었다.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졌다. 나 자신이, 열성적이고 영향력 있는 작가이자 연설자와는 먼 사람처럼 느껴졌다. 차에 쏟은 기름으로 인해 이제까지 쌓아 놓은 모든 것이 단숨에 허물어진 것이다. 그때의 내 심정을 이해 할 것

이다. 피곤했다. 싸우는 게 지겨웠다. 인생의 문제들과 씨름하는 게 지겨웠다.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다. 카리브 해에서 개명하여 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다.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에게겐 빛이 있다. 열네 살 된 딸, 귀가 안 들리는 열두 살 된 아들, 아홉 살 된 딸 그리고 아내가 있다. 그들에겐 내가 필요하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삶을 꾸려가야만 했다. 내가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한발 한발 내 디디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까? 궁금했다.

그때 나는 스트레스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보 같았고 수치스러웠으며 꿀볼견이었다는 생각을 했다. 내 자신이 싫으면 나는 괴팍해진다. 아내와 아이들이 이런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다. 그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 나는 화풀이를 했다.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진심은 아니지만 상처를 주고 가시 돋친 말들을 해댔다. 생각 없이 내뱉는 심한 말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주어 담을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말은 이미 뱉어졌고 그들은 상처를 받았다. 독살스러운 거친 말들이었다. 바로 내 눈 앞에서 그 독이 아이들과 아내에게 퍼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본 것이다. 나의 행동은 전혀 기독교인 같지 않은 행동이었다.

졸지에 혼자가 되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 아무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내가 상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심시켰던 괴팍한 부류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동안 내가 했던 행동이 저속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우울함과 인내력이 최고조에 이르면 침대에 그냥 쓰러진다. 그러자 거대한 파도처럼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그런 감정을 없애기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나는 나의 그런 행동을 정당화 시켰다. 사실, 이 경우와 욕이 갖는 잘못된 죄책감은 엄격히 다른 것이다. 나의 경우엔 내가 잘못된 것이다. 부모님의 차를 못 쓰게 만들었다. 그 행동에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사고라고 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저지른 행동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사고에 대해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참 부주의한 행동이었고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결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자신의 결점을 다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내 직업에 해가 된다. 나에게 대해 좋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을 써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라. 가끔은 나도 이렇게 살아 갈 때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가끔은 저와 똑같이 이렇게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제목을 붙인 소위 “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머리를 식히고 다시 이성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기 위해 몇 가지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한다. 그 중 하나가 운동이다. 우리의 육체를 최대한으로 움직일 때 정신은 놀라울 정도로 진정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노르아드레날린이란 독성 화학물질이 몸에 쌓이게 되는데, 운동으로서 이 물질을 우리 몸속에서 말끔히 없앨 수 있다. 아드레날린과 함께 노르아드레날린은 우리가 불안해 하면 뇌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다.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 속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 축진되어 분노를 느끼게 되고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게 된다. 환자 가운데 75%가 스트레스 관련된 증세로 병원을 찾게 된다고 한다. 몸에 해로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맥박수가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되며, 턱관절이 경직되고, 숨이 가빠지고, 걱정, 공포, 불안감, 초조함을 느끼거나 혹은 빈번히 화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와! 바로 이런 상태로 그날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

던 것이다. 위에 열거한 모든 감정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운동은 무엇보다도 신체에 엔돌핀을 흐르게 함으로서 감정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엔돌핀은 뇌와 다른 신체 기관에서 나오는 천연 신경안정제이다. 나는 매번 힘든 운동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가고 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 평심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로기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다. 물론 뜰에서 하는 일과 저술 활동도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법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즐기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나름대로 있는 것 같다.

운동과 치료 효과가 있는 활동 이외에도, 잘 알려진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는 숨을 깊게 들이 마시고 내쉬기, 명상, 스트레칭, 생체 자기 제어 등이 있다. 이 모든 활동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며 중요하다. 일상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실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어느 정도 선까지만 도움이 된다. 원초적인 신체적 스트레스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장 심하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죄책감만큼은 운동과 치료활동만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 죄책감에 대해 이야기하기

가장 잘 이해가 되는 감정 중의 하나가 바로 죄책감이다. 거기에는 “참된 죄책감”과 “잘못된 죄책감”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 어떤 죄책감이든 죄책감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떠한 형태로든 남아있게 되는 죄책감 때문에 스트레스의 수치는 크게 증가하고 우리의 영혼마저 파괴시킨다. 너무 무거운 납으로 만들어진 옷과 같이 겹겹이 쌓인 죄책감을 지닌 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무게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허다하다. 죄책감이 빠져 속 깊이 스며들다 보니 그것이 우리의 성격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잘못된” 죄책감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 도니의 이야기이다. 도니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했다. 그의 부모는 도니의 양육권, 방문권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싸움을 벌였고 몇 차례의 법정 소송까지 있었다. 어느 날 밤, 도니는 아버지가 화김에 “양육비 때문에 내 생활이 쪼들리고 있고 그 아이를 낳은 것은 정말 멍청한 일이었어!”라고 말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부모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도니는 아주 깊은 “잘못된”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 부모의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자기 자신 때문이라고 도니는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스무 살이 되기 전에 그는 두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었다. 다행히, 자살 시도에 실패하고, 이후 줄곧 치료를 받고 있다.

분명히 말하건대, 이러한 “잘못된” 죄책감과 수치심은 없앨 수 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된” 죄책감이다. 과연 그런 “참된” 죄책감은 존재하는가? 물론이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참된” 죄책감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샤론 펠튼과 데이비드 다이아몬드는 *프리벤션(Prevention)* 잡지의 편집자로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저서 ‘인생의 결정자는 당신이다’에서 ‘참된’ 죄책감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동안 대중을 상대로 하는 심리학자들 사이에 유행했던 치료는 죄책감을 ‘쓸데없는’ 감정으로 보면서 그저 떨쳐 버리려고 하거나, 그로 인해 의식 속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속에 참된 죄책감이 있고 그게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찾아 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찰스 스윈들은 *스트레스 해소(Stress Fractures)*란 그의 책에서 이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다.

정말 이상한 장면 하나를 그려 보도록 하자. 이를테면 두 남자가 나란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계기판의 표시등 하나가 적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한다. 운전하는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거기 앞에 있는 글러브 박스에서 망치 좀 꺼내줘! 그래 그거, 고마워” 탁, 탁, 쿵, 쿵.. 팡! “이제 됐어. 빨간 불이 이제 없어졌지” 연기가 자동차 본넷에서 피어올랐지만 그들은 계속 운전하면서 간다.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그러나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망치를 건네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말한다. “네~, 죄책감이요, 그걸 왜 느끼나요.” 그러나 잠깐! 그것은 정말 **필·요·한** 죄책감이다!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이를 일깨워 준다. 의식 깊은 곳에서 우리를 일깨워 주고 도덕적 순수함이 더러워질 때는 따끔하게 충고하신다, 그게 바로 양심이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깜빡이는 빨간 신호등이다. 이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를 세워라. 본넷을 열고 문제가 정말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인 것이다.

윌라드 게이린은 의학박사이며 *감정! 생명의 신호의* 저자이다. 그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그런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감사해라”라고 말하고 있다. 랍비 해롤드 쿠쉬너는 “죄책감은 합당한 이유 때문에 마음이 언짢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참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인간이 가진 능력의 일부이다. “참된” 죄책감을 갖는다는 의미는 “그래, 나 잘못했어”라고 말하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낀 죄책감을 마주하고 필요하다면 행동과 사고를 바꾸면서 그 죄책감을 풀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 갈 수밖에 없지만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라는 말은 아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로 부터 많은 비평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신세대들과 자기 개발을 장려하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하는 말에 많은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나 진실을 안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으로서, 상상을 초월하는 자유와 유희를 경험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그런 자유와 유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은 죄인이다. 구약성서의 유대 예언자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라고 말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현재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모두, 그 중 한분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완벽하지 않다. 나는 당신에 대해 알지 못하며 그래서 안심이 된다. 정직하게 보이는 사람이 자신이 완벽하다거나 실패를 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심히 무지하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이다.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자만하며 불친절하며 이기적이 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은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다. 인간에게는 악한 마음도 선한 마음과 같은 양으로 존재한다.” 수녀님도 자신 속에 악이 존재 한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다.

죄책감에 대한 해답은, 그것을 대충 해결하여 넘겨 버리려고 하거나 죄를 졌을 때 나는 죄를 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단순히 우리의 실수를 얼렁뚱땅 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이를 선택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대충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면 날이 갈수록 감정이 무디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하는 것을 조금은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나는 묻고 싶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겁니까?” 죄책감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다만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이다. 그것이 때로 고혈압, 초조감 더 심한 표현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란 형태로 느낄 수도 있게 된다. 살인

이나 도둑만이 죄를 짓고 잔인한 것은 아니다. 가슴 깊은 곳에 비정한 마음을 가진 선량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러나 냉랭한 마음은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아니며 최선의 선택도 아니다. 그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변화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인생을 살면서, 현인이던 아니든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의 조치를 귀담아 듣지 말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생각에는, “참된” 죄책감을 해소시켜 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원하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비이다. 나는 스스로를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많은 스승들이 전파하는 핵심과는 어긋나는 말을 또 하나 하고자 한다. 내가 하는 이 말에 일부 목사들이 반발하기도 한다. 그래도 진실은 하나님의 자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확고한 신념으로 진실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아니라고 부르짖을 지도 모르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자. 이 생각을 단단히 머릿속에 붙들어 매어 항상 생각하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어. 삶을 살 수가 없어. 기독교적인 삶도 살 수 없거니와 유대교적인 삶, 혹은 그 어떤 삶도 살아 갈 수가 없어.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 좌절만 하게 될 뿐이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은총이 필요해. 그것도 아주 많은 은총을 원하고 있어. 복음이란: 하나님 자체가 은총이라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로 인해 우리의 운명이 정해진다거나, 우리 스스로 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휘발유를 차에 쏟은 날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보 같은 행동을 해도 좋다고 변명하는 것처럼 들리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하고자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인간의 자유에 대한 커다란 의문점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나약함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발휘된다.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 중 하나인 것이다.

혼자의 힘만으로 살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끌어 모은다.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굳은 결심을 갖고 일을 시작한다. 이런 것들만으로 살아가지만 실패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면 더 이상 삶을 지탱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위안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다. 그것이 은총인 것이다.

### 따뜻한 하나님의 은총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 알라나와 나는 차를 몰고 운전하고 가던 중 아주 귀엽운 금발 머리의 아이가 동네 길모퉁이에 서서 ‘쿨에이드 25센트’ 라고 적힌 마분지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루이지애나의 날씨는 아주 무더웠다. 그 아이는 다섯 살 정도 되어 보였고 조금은 더 철이 들어 보이는 (아홉살 정도) 그 아이의 누나는 도로에서 30피트 떨어진 곳에서 돈과 음료를 지키고 있었다. 음료가 잘 팔리지 않았는지 그 아이의 얼굴은 실망으로 가득 차 보였다. 차의 속도를 줄였고 알라나는 지갑을 뒤져 50센트를 찾아냈다. 그 소년의 얼굴에는 “야, 손님이다. 진짜 손님이야” 라는 듯이 반가운 표정이 넘쳐났다. 그러자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그 다음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천천히 우리가 있는 차 창문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 순간 표정이 변하면서 “진짜로, 저희 같은 아이들이 파는 쿨에이드를 정말로 사주시는 건가

요?”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여전히 의아해 하면서 그의 누이 쪽을 쳐다봤다. 누이는 그에게 “어서 가봐”라는 손짓을 보냈다. 알라나는 반짝이는 25센트 두 개를 그의 손바닥에 놓았다. 몇 초 동안 그 소년은 거기 서서 돈이 있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제 정신이 돌아왔는지 “50센트야”라고 외쳤다. 그는 뒤돌아서 자판 있는 곳으로 신나게 쏜살같이 달려갔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양손에 조그만 화장실용 일회용 컵 가득 녹색 쿨에이드를 들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음료수를 받아들면서 잘해보라는 말을 건넸다. 그리고 거기를 떠나게 되자 아내는 자신의 음료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킁킁거리면서 말했다 “저는 안 마실게요.” 나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한 모금 마셨더니 순전히 설탕물에 얼음 한 조각 띄운 것이었다. “나도 못 마시겠군.” 라고 했다. 그 아이들이 시야에서 보이지 않자 우리는 곧바로 그 음료를 버렸고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한바탕 웃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 대부분은 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한다. 달라진 모습을 보이려고 애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도 골치 아픈 상황으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죄책감에 휩싸이게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일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자신은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나 알라나와 내가 그 두 아이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그가 먼저 행동을 보이신다.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내게 다 주렴” 하고 말씀 하신다. 자신에게 오기 전에 죄를 씻고 완벽해져야 한다고 하지 않으신다.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아무리 보잘 것 없

고, 물을 섞고 원하지 않는 설탕이 가득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쿨에이드를 드시고 싶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실수나 대충하는 노력을 바라기 보다는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 분은 25센트 동전 두개를 주시려고 한다. 당연히 우리가 동전 두개를 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 가격에 합당해서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시편 103:8-14 구절을 좋아한다. 내 인생의 구심점이 되어준 글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 날 수 있다. 천천히 읽으면서 자신의 내면으로 이 구절이 스며들도록 하자.

*여호와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성격을 생각해보자! 그 분은 열정적이며 화를 내는데 느리며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더 좋은 점은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큰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나는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 맘에 든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가 됐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미미하고 불완전한 인간임을 알고 계신다. 우리가 신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

으며 그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 낱알이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다 알고 있다. 길모퉁이에서 서서 우리가 가진 것 중 최고의 것을 드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생에서 폭풍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실수 때문이거나 지은 죄 때문인 경우가 종종 있다. 스트레스 속에서 힘이 빠질 때도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멈춰 서서 우리의 삶을 어떤 방법으로든 보살피고 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기에서 “은총이란 25센트 동전 두 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그 어린 소년처럼 놀랄 것이다. 우리가 그 동전을 받을 때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신다.

개인적으로 내가 배워야 할 것은 투쟁하고 분투하는 삶을 되도록 하지 말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 부족함을 드렸다. 그랬더니 진짜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다. 은총을 내려주신 것이다. 넘치는 평화와 용서하는 마음을 내게 가득 채워주신 것이다. 기쁨이 내 영혼을 흠뻑 적셨다. 마음속에서 다시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겠다는 욕망이 솟아났다. 행동에는 결과가 뒤따른다. 잘못으로 인해 사람들과 우리 자신이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무척 싫어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 힘이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노력이 아닌 내 마음 속 그분의 기운이 나를 변화시켜갔다.

은총의 비밀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살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의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 되게 살며 우리의 단점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이다.

휘발유를 차에 쏟은 후 가족들에게 보여준 “정신 나간 행동”에 대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 스스로도 그런 행동을 용서한 후, 나는 내 아내와 아

이들과 아버지에게 가서도 그들의 용서를 받았다. 그들은 기꺼이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 감정이 폭발로 인해 상처를 준 그들에게 솔직히 우리의 잘못을 인정 할 때 돌아오는 응답은 실로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 5. 영혼의 밑거름

충만한 영혼이란 문제없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에 깊이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토마스무어, 영혼의 보살핌.

1871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완전한 손실이었다. 수년간에 걸친 투자계획과 열심히 일 한 것 모두 한꺼번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말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변호사인 호라쇼 스파포드는 미시건 호수가 부동산에 투자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1871년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 그의 전 재산은 한꺼번에 날라 가서 빗 더미에 올라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스파포드변호사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의 시간으로 그의 부인의 건강은 나빠지기 시작했다. 1873년이 되자 부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의사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요양을 권고했다. 스파포드와 부인, 그리고 네 딸들은 유럽에서 장기간 휴가를 보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업 걱정으로 스파포드 변호사는 출발 날짜를 늦추었다. 그의 부인과 네 딸들은 계획대로 빌레두 하버(villedu Havre) 여객선을 타고 떠났다. 그 변호사는 나중에 유럽에서 가족들과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그들은 만나지 못했다. 늦은 밤 어둠속에서 거센 폭풍이 이는 바다를 향해하던 빌레두 하버(villedu Havre)은 다른 배와 충돌하여 침몰하였다. 심하게 일렁이는 파도와 거센 바람에 스파포드부인은 그녀의 네 딸이 물에 휩쓸려서 죽어가는 것을 공포 속에 지켜봐야 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돛대가 그녀 위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떠다니는 난파된 배의 잔해 위에 있었고 나중에 의식이 돌아왔다. 그녀와 함께 몇몇 다른 사람들도 구출되었다. 유럽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두 단어로 된 전보를 쳤다. 내용은 “혼자 구출됨”이었다.

스파포드 변호사는 부인을 만나기 위해 곧바로 웨일즈의 카디프에서 유럽으로 출발했다. 변호사는 그의 가족이 탔던 배의 항로를 똑같이 따라 갈 것을 요청했다. 배를 타고 가는 내내 그의 마음은 찢어졌고 큰 상심에 하느님께 소리쳤다. 배가 비극의 사고 현장에 가까이 가자 스파포드씨는 선장에게 배를 정지 시킬 것을 부탁했다. 배 난간을 굽어보며 그의 딸들의 목숨을 앗아간 지점을 뚫어지게 쳐다보고서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호라쇼 스파포드는 커다란 평화가 마음을 압도하는 것을 느꼈다. 그 평화에 휩싸인 채 그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써내려갔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 울려 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글은 찬송가로 만들어져서 수십 년을 거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업에 투자한 모든 것을 잃고, 네 딸을 잃은 사람이 이런 글을 쓰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인다.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해서 그는 얻을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1920년대와 1930년대 대공황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부인이 집을 나간 후 남편이 자살을 했다. 그 부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러나 스파포드씨는 자살 대신에 잔잔한 강 같은 평화를 경험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 수 있을까?

호라쇼 스파포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서 가능했을까? 기본적으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어 필요할 때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분이어서 그랬을까? 독실한 나의 할머니는 한 때 나에게 “시련이 지금의 너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네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라고 했다. 감동적인 말이다. 호라쇼 스파포드는 충격으로 인해 심한 고통과 슬픔을 겪고 많은 질문들을 던졌을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한 결정 속에서 그가 안정을 유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평화 때문이었다.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던 것이 위급한 순간에 표면으로 떠오른 것이다. 그 자신 속에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저수지가 내재되어 있었다.

잠언 4:23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어렸을 적 할머니 댁에 가게 즐거웠다. 할머니는 작은 마을에 사셨는데 그 동네 한 가운데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었다. 깨끗하고 맑고 시원한 물이 깊은 지하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곳이었다. 매번 거기 갈 때마다 아버지는 빈 우유 통 두서너 개를 가지고 가서 통에 그 샘물을 가득 채우고 돌아오곤 했다. 지금은 한 생수 회사가 그 샘물을 전미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

여러분의 영혼도 이처럼 자연적인 샘물이다. 그 영혼에 들어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영혼이 충만하다면 충만함으로 인한 열매가 인생에 가득 열릴 것이며, 영혼에 영양분이 부족하면 당신의 삶 또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다. 이 때문에 잠언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로서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영혼을 잘 보살피라. 영혼을 보호해라. 영혼을 살찌워라.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해라. 영혼을 살찌우면 달콤한 미래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오늘을 사는데도 아주 도움

이 된다. 영혼이 살찌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힘든 시기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혼이 충만하면서 얻게 되는 평화와 비교할 수 있는 평화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이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치지 않고 흘러나온다. 그런 평화를 얻으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우리 자신과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영혼을 살찌우는 일에 전념하다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영혼이 충만해야만 남에게도 메마르지 않는 영양분을 줄 수 있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것이 넘쳐나서 주위의 모든 이들을 적실 수 있다. 영혼속의 내용물은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빨리 들어온다. 영혼이 충만하면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도,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갖고 있지 않는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는 행동을 그만 두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해야만 하는” 수많은 활동들(종교적이든, 아니든)로 인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되는 일이 사라진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분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슈퍼마켓도 교회만큼이나 성스러운 곳이다. 아마 예전보다 더 많이 조직적인 교회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새로운 의미를 느끼게 된다. 의무로써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처럼 우리는 애쓰거나 힘들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다. 때로는 힘든 환경도 이겨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하신 존재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영혼을 살찌우는 일은 일생동안 해야 한다.

당신이 누구이든지, 삶의 목적이 무엇이든 지금이 바로 영혼을 위한 여행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이 일에는 나이의 제한이 없다. 이 여행을 하면 꿈도 꿀 수 없다. 놀라운 모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당신에게 닥칠 수 있는 폭풍을 견딜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다. 진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런 여행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하느님은 함께 시작하는 당신을 위해 독특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늦추지 말라.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기독교인을 위해 내가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0:10).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저 단순한 신앙 활동인가? 예수는 당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인가?

그 유대인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시편 40:2,3에 감동적으로 찬송가 작가가 쓴 것이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은 더러운 웅덩이와, 진흙과 곤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다! 어떤 노래일까? 그 노래는 성령이 가득한 노래이며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종교가 있던, 없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한다. 당신 인생이 명화나 연주가 훌륭한 교향악단이 되어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성령을 나눠 줄 수 있는 것이다.

내 친구 한명은 열렬한 무신론자이다. 우리 둘은 서로에게 솔직해서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다. 자주 나는 그에게 “이보게. 내게 잘못이 있더라도 나는 어떤 일에도 실패하지 않아. 나는 엄청난 기쁨과 성취감을 만끽하며 살고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이 실제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지.” 그리고 계속하여 “그렇지만 자네가 잘못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라고 덧붙였다. 의문이 많이 생기고 두렵고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면 성령 충만이란 열매를 맛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행을 시작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한 선택은 당신이 하는 것이다. 만약 여행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잃을게 무엇이 있는가?

영혼을 살찌우고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산다면 생각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 영혼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우리 인생을 집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영혼을 죽이는 세 가지 방법

#### 영혼 죽이기 1- 많은 방해 요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의 순서 (Tyranny of the Urgent)란 책을 쓴 찰스 험멜은 사람은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할 때 현대 사회가 주는 가장 큰 비극은 일을 너무 분산시키는 것이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이것저것하고, 체계를 무시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끊임없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부터 멀어진다. 중요한 일이란 영혼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술 발달로 인해 보통 사람들은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린다. 시간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천천히 돌아보며 살고 자신과 가족들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들을 방해하는 일이나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다. 자동차와 비행기로 인해 여행이 훨씬 편리해졌다. 더 멀리 빠른 시간에 여행 할 수 있다. 팩스와 이메일로 인해 보고서나 편지도 요청 즉시 작성된다. 현금인출기, 패스트푸드 식당, 전자레인지, 핸드폰, 인터넷을 이용하지만 거의 쉬는 시간이 없다. 경제가 번성해서 돈이 있어서 편리하지만 분명히 돈이 해

결책은 아니다. 통계 자료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빛이 늘어난다고 보고한다.

사회생활의 오락이나 다른 것들을 비난 할 수는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바쁘다며 더 많은 일과 책임이 지워진 직책을 계속해서 원한다면, 자신을 진실 되게 관찰하고 개인적인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 바쁜 게 더 속이 편하다. 육체적으로는 천천히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생각은 계속해서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겠다고 마음먹으며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삶을 간소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굳게 가져야 한다. 처음에는 이런 실천이 어려워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곧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영혼을 살찌우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일레인 섬 제임스는 *단순하게 살기*란 책에서 “천천히 사는 인생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새로운 이해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와 주위를 둘러싼 인생들을 바꿀 수도 있는 직감력은 조용한 생활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했다. 영혼을 살찌우기에 앞서 첫째 우리는 느리게 살아야 하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예수님은 어느 날 씨앗을 심으러 밭으로 나간 한 농부에 대한 우화를 들려 주셨다. 씨앗 중에는 밭로 밟혀서 싹을 띄우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 어떤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주위 잡초와 가시 때문에 죽어버린다. 가시와 잡초는 인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들을 상징한다. 이것은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을 방해한다. 마음을 자꾸 만데로 돌리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된다.

## 영혼 죽이기 2- 지나친 유희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면 그 끝에는 오락과 유희가 따라온다. 지난 과거 세대는 생존을 위해 살았다. 여유라는 의미조차 그들은 모르고 지냈다. 나의 아버지 경우도 날이 밝기 전에 항상 일어나서 우유를 짜셨다. 그리고 나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저녁 시간되기 전까지 우유를 다시 짜셨다. 토요일도 그는 일을 계속하고 밤이 되어서야 친구들과 놀 수 있었다. 일요일은 갖고 모두가 그 당시 모두가 그렇듯이 휴식시간을 가졌다. 인생은 단순했으나 여러 면에서 더 힘들었던 시기였다.

현재, 엄밀히 말하면 더 많은 여유시간은 있지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여가 시간은 영혼을 값어치 먹은 오락으로 꽉 채워져 있다. 여기서 사용한 오락이란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쓰던 말로 실제 뜻은 “정신 활동을 정지 시키거나”, “생각을 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즐기거나 재미를 느낄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정신이 흐릿해진다.

물론 오락은 필요하다. 휴식을 취하고 즐거움을 느낄 필요는 있다. 여기서 문제는 오락이 아니라, 간단히 표현하자면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혼자 두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한다. 지루해 하는 것도 참지 못한다.

적절하게 쓴다면 그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을 하느님께 바치면 아주 보람 있는 경험을 하게 되고 창의력이 생겨난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즉시 비디오를 보거나 다른 행동들을 함으로써 영혼을 채우는데 쓰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거절 못하고 계속 하던 행동을 멈출 수 없는 것과 같이 오락을 멀리하는 것도 아주 힘이 드는 것이다. 재미있는 시간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의 창의력은 기능을 멈춘다.

잠깐 상상해보자. 어느 날 아주 부자인 삼촌이 86,000달러의 수표를 당신에

게 발행해줬다. 눈이 튀어 나오고 놀라서 턱이 바닥에 닿을 지경이다. 자신에게 들어온 큰 재산이 믿겨지지 않는다. 삼촌을 꼭 껴안으려는 바로 그때, “너에게 하루, 정확히 이십사 시간을 주마, 그 시간 안에 투자 할 수 있는 돈은 다 투자해라.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원하는 어떤 사업에라도 투자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이 다 되면 투자하지 않은 돈은 나에게 다시 가져와라.”라고 삼촌이 말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나는 어떻게 할지 알고 있다. 몸과 마음을 다 동원하여 가능한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다. 1페니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직감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도 나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매일 우리 각자에게 86,40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든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때 그 시간은 없어진다. 절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절대 오늘 하루를 다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내일이 다시 온다는 보장도 없다. 당신의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는가? 헛된 행동에 소중한 시간들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영혼을 살찌우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자신을 새롭게 가꾸고 성숙하게 하는 행동을 못하는 이유로서 시간의 부족을 내세운다.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봅시다. 평균 미국인들이 일주일에 사십내지 사십 시간을 TV앞에 앉아 있다. 우리는 모두 바쁜 사람임에도 여전히 우리 대부분에게 있어서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라는 것이다. 내가 만나봤던 성공한 사람들은 아주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시간을 아주 현명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철저한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운 사람들이다.

덧붙이자면 “게으른 자는 악마의 편이다.” 같은 말 속에는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나는 ‘재미를 느끼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영혼을 죽이고 쓰레기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활동 보다는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이완 시키는 활동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다.

유희에 빠지고 정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정신을 약하게 하는 각종 생각들이 지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영혼 가꾸는데 쓰지 않는다. 여기서 영혼 가꾸기란 방 안 어딘가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 손바닥을 허공에 펴고 ‘암~~’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나는 산악자전거 타는 것을 즐긴다. 말하자면 산악자전거 코스를 탈 때 내 영혼은 활짝 열린다. 마당에서 일할 때도 영혼이 열린다.

요점은 스스로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중요하다. 때로는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 “아니오”라는 말을 하고 대화를 원하는 작은 소리들을 경청할 수 있도록 조용히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 영혼 죽이기 3 -너무도 많은 잡동사니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만들며 삶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영혼이 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주위의 많은 일들에는 책임감이 따른다.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주요 단어 중 하나는 *보다 적게*이다. 젊고 부유한 지도자가 예수를 찾아왔다. 예수는 그 지도자의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서야 자신을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젊은 지도자는 고개를 숙이고 그 자리를 슬픈 얼굴을 하고 걸어 나왔다. 모든 재산을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영혼 여행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 지도자가 재산이 있는 집으로 돌아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갑자기

헛되었다는 것을 느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물질적인 것은 우리를 채워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물질적인 것들이 영혼에 쓸데없는 얼룩을 남긴다.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꿈을 이루거나 직장을 쫓는다면 결국 언덕 위의 멋진 집을 장만 할 수는 있으나 영혼은 시궁창에 버려져 있을 것이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마약을 한다는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이유는 무엇일까? 평행동안 명예를 뒤쫓고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춘 후에는 그들은 여전히 공허함을 느낀다. 쓰라린 경험을 통하여 그런 물질이 자신들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억만장자인 하워드 휴는 죽으면서 이십억 달러 재산을 남겼다. 그렇지만 죽기 전 십년 동안 그는 적적한 삶을 살았고, 그가 죽었을 때 그를 위해 울어 줄 아내도, 아이들도 없었다. 그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외로웠다.

억만장자인 존 폴게티는 석유사업으로 이십억 - 사십억 정도의 부를 축적했다. 그러나 사생활은 난장판이었다. 그는 이혼을 다섯 번이나 했다. 1953년에는 막내아들이 폐렴으로 목숨을 잃었고 1973년에는 장남이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만약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가져다준다면 위 두 억만장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야 했다.

내가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것들에게 귀를 기울여라.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도 또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예수는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젊고 부유한 지도자에게 가진 모든 것을 다 처분하라고 명하였다. 예수는 그 지도자가 어떤 신을 섬길지 알고 싶어 했다.

재산을 소유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건 그 자체와 소유하려는 목적으로 산다면 영혼은 죽는다. 영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즐거움과 충만함을 맛볼 수 있다. 영혼의 소리를 쫓아간다면 결국 좋은 것들을 갖게 되며 그것들로 인해 물건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을 확률이 더 높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많던 적던 여부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의 행복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정신의 충만함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의사가 한명 있다. 그는 한때 성공가도를 달리던 병원의 원장이었다. 일을 좋아했고 600,000달러의 저택을 소유하고 아름다운 부인과 세 자녀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도심가에 병원을 차려 진료를 하라는 말씀을 느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영혼 속에서는 갈등이 점점 커져 고통스러워졌고 끝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새로운 진료소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의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수입도 적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엄청난 돈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위험부담도 큰 것이었다.

그래도 그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름 또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라고 털어 놓았다. 가족들에게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조달되지만 아주 많은 돈이 줄어 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규모를 줄이고 간소화하는 것으로서 컨츄리 클럽에 위치한 값비싼 저택을 매각하는 것이다. 며칠동안 심사숙고 끝에 그의 가족은 계획을 실천하기로 했다.

이 가족에게 나는 경의를 표한다.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최고의 선물을 마다하지 않았다. 영혼의 부름을 완수하려면 어떤 것들은 바뀌어야 할지도 모른다. 새로 시작하기 위해 삶을 간소화해야 할 수도 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물건에 집착하게 되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너무 많은 물건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

## 영혼을 살찌우는 세 가지 방법

### 1. 영혼에게 필요한 양식 공급

우리들 각자는 인생의 희생자와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각자가 처한 환경에 대한 반응 또한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책임감이 꼭 어떤 일에 대한 비난을 감수한다는 뜻은 아니다. 책임감은 대처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며 동물과 구별 짓는 행동이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수동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 창의성을 가지고 그에게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선택이 없는 곳엔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을 바로 드러내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어딘가에 숨어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모든 곳에 그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남겨 놓는다. 그 단서를 하나씩 발견할 때 마다 그 자신을 서서히 드러내는 것이다. 하지만 각 단계에서 믿음이란 선택이 필요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도 커져간다. 믿음 없이 신을 찾기로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그를 찾고 그가 우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성경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보통 우화를 이야기하셨다. 몇 년 동안 나는 예수님께서 요점을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다. 성경과 성경 연구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우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점을 숨기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스스로가 그 뜻을 찾게끔 하려는 것이었다. 믿음을 갖고 추구하는 사람들은 귀중하고 위대한 지혜를 찾게 된다. 그러나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냉소적이 되며 뜻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서 믿음을 시험하려 했던 것이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의 하나이다. 영혼에 자양분을 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선택을 함으로서 시작된다. 선택은 정신이 하는 것이지 감정이 하는 것이 아니다. 정신은 영혼이 있는 자리이다. 따라서 정신은 영혼에 자양분을 주는 첫 걸음이 시작되는 곳이다. 우리는 좋은 것들로서 정신을 채워야 한다.

시계의 분침을 자세히 보라. 지금 30초간 분침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라.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큰 기업들은 삼십초 광고에 수백만 달러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다. 왜? 그 순간을 위해 그 정도의 막대한 돈을 쓰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광고주들은 소비자로서 우리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번으로 끝나는 광고는 거의 전무하다. 같은 시간대에 광고는 계속해서 선전하고 선전한다. 결과적으로 반복 효과로 인해 광고주는 원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심어준다. 하루 일과 중 우습기 짝이 없는 광고에서 나오는 노래 후렴구를 얼마나 자주 따라 부르는지 생각해 봤는가? 그보다 더 쉬운 예로, “음료수”를 뜻하면서 몇 번이나 콜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티슈”를 뜻하는 말도 클리닉스 라고 몇 번이나 사용했는가? 우리가 보는 것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코미디언은 “지방이 많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몸이 지방과 기름 덩어

리가 된다.”고 말했다. 사실이다. 당신이 먹는 음식이 곧 당신이다.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의 영혼은 영양분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정크푸드(junk food)을 먹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어쩌다 가끔, 시간을 내서 정화되고 건강한 영양을 영혼에 공급한다.

먹는 음식과 운동형식을 바꾸면 체형이 변하듯이 정신도 어떠한 것을 주느냐에 따라 우리 영혼이 변하게 된다. 로마서 12:2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이해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할 때 초자연적인 변화가 생겨난다. 땅에 심어진 자그마한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 것 또한 이해 할 수 없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그 자그마한 씨앗에 불어 넣은 것이다. 우리 모두의 영혼에는 믿음이라 씨앗을 가지고 있다. 멋있는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는 잠재력이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 이는 일부분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 따서 창조된 것이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영양분과 함께 잘 가꾸어야 한다. 세속적으로 산다는 것은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냥 맞춰서 살아갈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인생과 몸이 저절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그냥 그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다. 정원과 같다. 그냥 놔두면 여기저기 잡초가 무성해지고, 뭐가 뭘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가게 된다.

이에 반해, 영혼에 영양분을 준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세속으로부터 플러그를 빼고 힘의 원천에 그 플러그를 다시 꼽아야 한다. 정원사처럼 우리 정원을 우리가 가꾸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같이 한다. 하나님께서 변화와 성장을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는 잘 가꾸고 물주기를 해야 한다.

옛날에 시골 목사가 풀이 무성하게 자란 토지 한 구획을 매입했다. 녀쿨이

도처에 자라고 있었고 거의 그곳의 나무들을 덮다시피 한 상태였다.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너무 뻥뻥하여 그 목사가 그 곳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주말마다 그는 그 땅을 경작하였다. 필요 없는 것들은 베어내어, 소각하고,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며, 계속하여 잡초를 뽑고 토양을 손질하였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었다. 그러자 농부의 정원에서 훌륭한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곳을 들러서 말을 걸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은총을 주셨군요. 이렇게 비옥한 토지를 갖고 계시다니.” 이 말에 목사는 대답했다. “예, 그분은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십니다. 아직 그분을 모르시는 것 같군요.”

영혼에 영양을 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수양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난 후 영혼에 제공된 내용은 당신의 성격의 일부가 된다. 부정적인 진실보다는 긍정적인 진실에 더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으로써 어려움이 닦혔을 때 대처를 다르게 할 수 있게 해준다. 영양분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안내 해준다. 그것은 허드렛일이 아니라, 그 자양분이 당신의 일부가 된다. 영혼에 자양분을 주는 것은 인생을 균형 있게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균형 잡힌 영혼을 위한 식단에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삶을 단순화해야 영혼을 살찌우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
- ~ 성경에 따라서 매일 명상을 한다.
- ~ 성경 말씀을 실천에 옮긴다.
- ~ 정신세계를 넓히는 좋은 함양 도서를 읽는다.
- ~ 계속해서 기도 한다. (하나님께 솔직해 지기)

~ 방해하는 요소를 차단해야 작고, 낮은 자신의 내부 음성을 듣는다.

~ 영감을 주는 예술 작품을 신중히 음미하고 영혼을 고무시키는 음악을 듣는다.

~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한다.

~ 야외에서 자연과 시간을 보낸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는 정원에서 인간을 만드셨다. 자연 속에서는 영혼이 열린다.)

~ 운동과 함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한다. 몸이 예민하면 마음까지 예민해진다.

## 2. 순간을 주시하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이다. 과거나 미래를 살면서 이 순간 놓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 일 때문에 현재를 보지 못한다. 미래 일어날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축복을 놓치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가 삶을 천천히 살아간다면 영혼은 충만하고 하루에 일어나는 아주 조그만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는다. 이러한 조그만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진실을 밝혀 주신다. 영혼에 자양분을 주는 시간 없이 살아 갈 수 없다. 지금 순간에 산다는 것,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주 값진 짧은 순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영혼에 영양을 주는 시간동안 심은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어느 날 밤, 주말을 우리 식구와 함께 보낸 두 아이를 그들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었다. 운전해서 약 두 시간 떨어진 곳이었고 그들 부모들도 열한시 경에 내가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 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촌에 가까운 지역에 칠십 에이커 단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아이의 가족은 “진짜 촌”에 살고 있다. 그 집과 가까운 동네 전체 주민 수도 오천 명에 불과했고 거리는 차로 이십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자갈이 깔려진 차 진입로 입구에는 송아지 우리 출입문이 닫혀져 있었다. 차를 멈추자 한 아이가 폴짝 뛰어 내려가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아이들이 입구에서 집까지 거리는 족히 일마일은 된다고 말해 주어야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했다. 지금이 밤 열한시이고 춥고, 집으로 통하는 자갈길은 목초지와 나무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다. 심지어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집은 보이지도 않았다.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두 시간이나 걸린다. 가까운 주유소는 길 아래 십오 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지금 핸드폰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속으로 “멍청이들 같으니라고.”라고 중얼거렸다. “왜 문을 열지 않은 거야, 내가 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두 아이들도 자신들끼리 나직하게 속삭였다. 그때, 좋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 순간을 망치지 말자. 하나님께서 지금을 위해 뭔가 준비해 두신거야.”

그 생각이 나자, 나는 아이들에게 자기 소지품을 다 챙기라고 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등산을 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첫 반응은 조금 두려워하였으나 걷기 시작하자 하늘의 별이 밝게 빛나는 게 보이고 우리는 모두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들 집으로 가는 동안별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걸었다. 어느새, 우리는 집 앞에 다다랐다. 두 아이의 부모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미안해하며 아이들이 열쇠 조작법을 안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그 부모는 차로 내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오는 내내 너무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걸어가도 좋겠어요.”라고 응답했다. 차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하나님과 가장 멋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화를 내고, 실망하고, 조금해 지는 마음을 말기

보다는 내가 처한 순간에 마음을 열었다는 것에 나는 무척이나 즐거웠다. 물론, 집에는 늦게 도착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순간을 산다면 우리 영혼에 영감을 불러 넣을 수 있다.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한다면 지금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것에 집중 할 때 당신이 사는 순간순간이 완전할 것이며 영혼도 살찌게 될 것이다.

### 3. 다른 사람들에게도 씨앗을 심어라

테레사 수녀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인 켈커타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궁금증을 가져 본 적이 있는가? 그 곳은 병자,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평화롭고 충만한 삶을 사셨는지. 수녀님께서 정상적인 집에서 이웃과 함께 보통의 삶을 그리워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수녀님께서 영혼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추호도 안했다고 나는 믿는다. 그녀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셨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주위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쏟아 낼 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평화를 수녀님께 되돌려 주셨다. 그녀가 계속해서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인생변화를 꾀하는 원칙은 하나님은 당신이 남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신다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이들의 삶에 씨앗을 심으면 심을수록 더 많은 것들이 당신에게 되 돌아온다.

조안 에릭슨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씨앗을 심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놀라운 본보기이다. 나치가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하려던 시기에 스웨덴에는 매일 유대 아이들을 가득 실은 기차로 도착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

양실조에 걸려 있고, 비쩍 마르고 창백하며 까만 두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목에 두른 신분증과 슬픈 표정뿐이었다.

많은 스웨덴 가족들이 “전쟁기간”에만 아이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 중에 조안 에릭손도 자신의 집에 아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안은 아홉 살 된 롤프라는 남자아이가 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동정심을 느꼈다. 조안은 독실한 침례교도이기 때문에 어린 롤프도 침례교 방식의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처음에는 누가 문을 두드려도 롤프는 이불속에 숨거나 옷장 속으로 숨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조안은 그에게 아주 많은 사랑과 확신을 보여 주었다. 곧, 롤프는 살이 오르고 절망스런 눈빛도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었다. 마침내 그가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나치군의 침공이 기정사실화 되자 조안의 동료는 “히틀러가 쳐들어오면 네 집에 있는 유대 꼬마 때문에 난처해 질 거야”라고 했다. 조안은 어금니를 꼭 물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를 데려 갈 수 없어”라고 단호히 말했다.

나치의 위협과 더불어 그의 침례교 신자들도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교회 신자들은 조안이 그 아이를 침례교로 개종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일과 부딪혔을 때 조안은 다시 어금니를 꼭 깨물었다. 스웨덴 정부도 유대인 난민 기관에게 아이들의 종교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롤프가 계속 유대교를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조안은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았다. 가족 모두 교회 갈 때 그 아이를 데리고 가긴 했으나 그가 유대 전통을 계속 배우게 했고 적절한 연령이 됐을 때 유대교의 성인식을 준비하고 맞이하게끔 분명히 했다. 전쟁이 끝나면 조안은 롤프 부모가 바라는 만큼 최대한 잘 자라서 롤프를 부모에게 돌아가기를 바랐다. 전쟁이 끝났지만 그의 부모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처럼 롤프의 부모도 강

제 수용소에서 죽었다.

롤프는 성인이 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사진이 계속 그를 괴롭혔고 정신장애를 겪었다. 그가 위험스럽다고 해서 당국은 정신병원에 그를 가두어 버리려고 했다. 그러나 조안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롤프는 여기 있어야합니다.” 라고 조안은 확고하게 주장했다. “여기가 그가 있을 집입니다.” 1년 넘게 조안은 롤프를 돌보며 정신적 안정과 평온을 되찾게 해 주었다. 그 이후 롤프는 비교적 무난한 삶을 살았다. 그는 그의 인생에 조건 없는 사랑의 씨앗을 심어준 그 분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는 영혼을 나누었고 다시 그 영혼이 가득 차기 때문에 조안도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일단 당신이 영혼을 계속해서 가꾼다면 그 속에서 열매가 맺힌다. 그러나 열매를 그대로 방치하면 썩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주고 그들 삶에 당신이 가꾼 열매의 씨를 심어야 한다. 이것이 영혼을 살찌우는 마지막 방법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영혼을 살찌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면서 가장 힘든 경험을 할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평화를 주신다. 또한 매일의 일상에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당신의 영혼은 삶 속에서 마르지 않은 원천이다. 지금 바로 그 영혼을 가꾸어라.

## 6. 실망에서 다시 일어서기

길 잃어버렸다고 이젠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 나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며 나에게 숨겨져 있던 속성들을 알아가게 되었다. 이는 예술가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정이 되기 때문이다. - 빌리조엘

내 친구 테사를 만난다면 아마도 곧바로 그녀의 따뜻한 성격과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뛰어난 지식적인 자극에 빠져 들게 되며 무엇보다도 그녀가 지닌 영혼의 깨끗함에 매료 될 것이다. 테사는 도심가의 어린이들을 훌륭하게 가르치는 교사이며, 그녀가 실망과 깨어진 꿈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두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열세 살 때 테사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허전함으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다른 대부분의 또래 아이들의 삶보다 더 힘들어졌다. 다행히, 테사 곁에는 특별한 이모가 있어서 그녀의 삶에 기둥이 되어 주셨다. 많은 날을 이모 집에 찾아가서 지냈다. 그곳은 사랑, 애정이 가득했고 부엌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는 집이었다. 이모는 전업주부로서 집안일을 아주 잘 하셨다. 이모 집에 갈 때마다 테사는 멀리서 이모를 지켜보면서 언젠가 그녀도 이모와 같은 주부가 되서 사랑과 따뜻함이 있는 집에서 사는 상상을 하곤 했다. 테사는 자라면서 그렇게 그녀의 인생 목표를 세워 놓았다. 그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주 멋진 가정을 이뤘다.

물론 “이상형의 왕자님” 결혼하고 꿈에 그리던 집을 짓기 시작했다. 남편이 알코올 중독과 마약에 빠지고 바람피우는 것을 알기 전까지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테사가 이 모든 것을 남편에게 조목조목 따지자 남편은 술과 마약을 끊고 가족에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물남용과 바람피우는 것은 계속 되풀이 됐다. 테사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세 명의 아이를 혼자

키워야하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평생 가정주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그런 쪽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변변한 경력조차 그녀에겐 없었다. 결혼의 파탄은 테사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계속해서 그녀를 집어 삼킬 듯한 우울증과 두려움과 싸워야 했고 몸무게는 너무 빠져서 건강도 나빠졌다. 희망 없는 삶 같았다. 이 기간 동안 테사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적은 편지를 자신에게 썼다.

오늘 밤 아이들과 나는 크리스마스트리를 장식했다. 저녁엔 나뭇잎이 무성하고 완벽한 모습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찾기 위해 나무 농장을 야단법석을 떨며 돌아다녔다. 하나하나 다 조사한 후 크리스마스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나무 하나를 확실히 선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즐거웠다. 트렁크 밖으로 2피트나 빠져나온 크리스마스트리를 싣고 운전하는 데 딸들은 킁킁 웃어댔다. 천사가 입을 맞추고 체다 치즈를 우리 집 강아지, 가비에게 준 것을 꾸짖고 난 후, 지금은 모두가 평화롭게 잠든 시간이다.

나는 저녁 내내 참고 있던 울음을 쏟아내려고 이층으로 조용히 올라왔다. 아이들 아빠 없이 크리스마스를 외롭게 아이들과 보내는 크리스마스도 2년째이다. 크리스마스는 가족들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가족이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었다. 이러한 바람이 굴뚝같았지만 내 건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나는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힘든 싸움 속에 함께 시간을 나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그런 나를 보면서 상처는 더욱 더 커져 갔고 절망감은 극에 달했다. 때로는 올바른 일을 한다는 것이 혼자서 세상을 헤쳐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고,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만큼 고통스럽지 않다는 것도 깨달았다.

삶을 사랑했지만 잘못 선택을 내린 한 남자와 15년 결혼 생활을 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삶의 스트레스를 때문에 점점 술에 빠져 드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다. 몇 년 동안 나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꿈을 붙들고 있었다. 마치 산불이 번지는 숲 속에서 타들어 가는 나무속에 도토리를 모아서 저장하는 다람쥐와 같았다. 끊임없이 나는 가족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는 나의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 매번 울면서 도움을 청할 때마다 남편은 핑계를 대곤했다. 그 핑계란 대부분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이 변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없었다. 약물 복용과 나를 배신하는 바람기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이며 또 내 아이와 나 자신을 위해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이혼이란 내가 믿던 모든 것과는 역행하는 것이었다. 나는 결혼 서약을 존중하며,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조력자로서, 친구로서 남편을 대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지만 그는 나를 배신했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서약과 가정 가꾸는 것을 내 핑개쳐 버렸다.

순간순간, 분노와 고통이 나를 집어 삼켰다.

아이들과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테사는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계속해서 절망과 가난의 구렁텅이에서 살 수는 없었다. 미친 듯이 그녀는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할지 알려 달라고 울면서 소리쳐 기도했다.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자신의 인생 목표도 찾아야 했다.

과거에 테사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이혼 후 원하기만 하면 교사직을 공부 할 시간도 있었다. 삼십대 초반에 부양 할 아이들이 있는 테사였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으나 굳게 결심한 테사는 아이들과 함께 친정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하고 대학 등록을 했다. “애정으로 도와주는 가족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삶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테사는 내게 말했다.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수업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내가 예전에 꿈꿨던 완벽한 아내, 어머니, 가정주부는 이제 죽었다. 내가 그런 꿈을 포기하기 훨씬 전에 죽었다. 건강한 길로 가기 위해 나는 새로운 꿈을 꾀야했다”라고 덧붙였다.

테사는 예전에 실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는 실수를 거듭하지 않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하고 싶어 했다.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기를 희망했다. 자신에게 결심했다. “이번에는 옳은 일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어.” 그래서 테사는 성공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여행을 시작했다. “만약” 그녀는 내게 말했다,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아 낼 수 있다면.”

그 시기에 테사는 건전하고 로맨틱한 남녀관계에 대해서는 포기한 상태였다. 배신을 당해서 더 이상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여자로서 자신의 길을 결정해야한다.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가 되겠다는 그녀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부에서 성공한 교사로 그녀의 꿈은 바뀌었다. 학교에서의 성적은 높았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그녀의 자신감도 덩달아 솟아올랐다. “멋있는 선생님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 결국, 그 주에서 최고의 초등 교사 교육대학 중 하나에 입학했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도 아주 깊었다. 이런 나를 누가 채용하지 않겠어요?”

테사가 바라던 학급은 영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밝은 원색으로 꾸민 교실에서 “안녕하세요. 테사 선생님!”이라고 소리쳐 인사하는 말끔한 학생들이었다. 사랑을 베푸는 적극적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똑똑한 아이들로서 학습 열의가 있고 그녀가 가르치는 모든 지식을 쑥쑥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학생들을 마음속에 그렸었다.

졸업은 했지만 직장을 구 할 수가 없었다. 샅샅이 일을 찾아 다녔으나 빈자리는 구할 수 없었다. 마침내 한 자리가 생겨서, 마약이 만연하고 범죄가 잦은 도심가의 한 학교의 교사로 면접을 봤고 1학년 교사로 취직되었다. “처음 직장이라 승낙을 했어요.”라고 나에게 말했다.

수업을 맡게 되자, 그녀가 “바라는” 꿈이 다시 한 번 산산 조각 나버렸다.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 대부분은 준비물이 없었다. 학생들의 부모는 가난에 쪼들려 있었다. 아이들은 배우려 하지도 않았다.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예절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고 몇 시간씩 가르쳐야 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대받거나 방치되었다. 우리 반 학부모 중 세 명이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아주 많은 수의 학생이 마약에 중독된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이 때문에 활동향진 상태를 보인다. 그런 학생들 중 한명이 학교에 총을 소지하고 등교했다. 일학년이었다. 다른 학생 한 명은 백선을 앓았는데 온 몸에 킴 뚜껑만한 파스를 붙이고 나타났다.

하루일과가 끝난 후 테사는 울었다. 신문 구직란을 빠짐없이 보며 새 직장을 찾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두꺼운 첩문이 ‘짱’하고 닫힌 것처럼 어디에도 빠져 나갈 기미는 없었다. 일할 만한 곳이 없었다. 절망에 쌓인 테사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 일은 못하겠습니다. 학교 오는 것이 너무 무의미합니다. 만약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테사는 실패자 느낌이 들었다. 결혼에 실패하더니 이제는 교사로서도 실패이며 더 이상 교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너무 비참하여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나를 돌게 만들었고, 하루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 지고 결국, 어느 날 또 참을 수 없는 한계까지 도달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그날, 맑은 기도 후, 어느 날 밝은 빛이 그녀의 머리에 쬐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보통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그녀의 기대에 아이들을 끼어 맞추려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다. 테사는 아직 교사직을 포기 하거나 학생들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는 일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밀어 붙이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녀가 말했다. “내가 변하기 시작했죠. 지금 알았지만 변화가 필요한 건 아이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더라고요.” 그녀는 학생을 각자 문제점을 가진 개개인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유일하게 나만이 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는 사람이었다.”

테사는 하루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악수를 하던, 하이파이브를 하던, 가벼운 포옹을 하던 그녀에게 인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쉬이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경계하였다. 이 아이들의 삶은 항상 좌절이었었고 그래서 대부분이 테사와 접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테사의 지속적인 칭찬과 함께 어떤 경우이던 친절하게 아이들을 받아 주었기 때문에 서서히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지금은 거의 모든 학생이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포옹을 하며 인사한다. “어떤 아이들은 나를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아마 하루 동안 나랑 하는 포옹이 유일한 거라서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은 나를 믿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자신과 학생들에게서 변화를 목격하고 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녀가 교사라는 이상적인 꿈을 가지게 했고 그 꿈이 실현되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 부름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테사를 이곳에 보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테사는 교장선생님의 칭찬에 “예.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학교에 오게 했지만 그것은 학생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응답했다. 굉장한 변화가 아니겠는가!

테사가 얻은 지혜는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볼 수 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즐거운 날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 할 때면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안다. 예전에는 울었지만 지금은 많이 웃는다.

내가 배우고 있는 내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은 인생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이다. 항상 위험에 따른 결과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혹은 현재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위험을 빠져나올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내 학급은 대학교 다니면서 상상한 수준이 아니며 또한 항상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있으나 예전보다 더욱 더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수업시간에도, 나의 개인적인 삶과 마찬가지로 나는 계속해서 모든 것이 완벽해 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사람과 하나님을 다시 믿는 다는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믿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내가 완전한 인간이고 내 자신과 하나님께 대해 확고하다면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로 미래에 대한 중요한 희망이 현실적인 희망이 나에게 생겼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각난 꿈들과 좌절된 기대를 거둬서 우리가 허락한다면 그분께서는 그것들을 활용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벽해 질 것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자신이 그리는 이상에 필사적으로 삶을 맞추고자 한다. 도료에 있는 과속 방지턱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과속 방지턱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숨어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때가 가끔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생각 전환 방법은 조이스 메이어가 쓴 감정 조절하기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가 실망했을 때 우리는 적응과 변화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려 새로운 시도를 해서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때를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개개인 안에는 이렇게 크나큰 힘이 내재하고 있어서 어떤 일이 닥치던 하나님께 우리가 겪는 실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게 할 수 있다!” 라고 그녀는 서술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삶에 좌절을 느낄 때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개념을 무척 좋아한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써먹었던 것들이다.

내 친구 테사는 많은 실망과 아픔 속에서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던 것이다. 그녀는 독백했다. “나의 낡은 삶이 기억 속으로 사라지면서 나는 새로운 꿈을 꿀 것이다.”

현재, 테사는 자신의 지지자이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멋진 남자와 결혼 약속이 되어 있다. 결혼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녀는 또한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고 사람을 다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녀는 이를 실천하고 있다.

삶은 여지없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이는 정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삶에 대한 이러한 진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때때로 경험하는 막다른 길, 실패, 좌절 등은 더 큰 축복으로 통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쪽 문을 닫으실 때 그 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또 다른 문이나 창문을 활짝 열어 놓는다.

본 페이지를 시작하면서 인용한 빌리 조엘은 유명한 팝 가수이며 나를 경탄케 했다. 처음 그에 대한 글을 읽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나는 팝 가수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빌리 조엘의 이야기를 읽고 그런 나의 선입견이 무너져 버렸다. 그의 이야기는 실망을 새로운 약속으로 바꾼 또 하나의 실례이다. 자라면서 빌리 조엘은 11년간 피아노 공부를 했고 그의 꿈은 베토벤처럼 심포니를 작곡하고 연주하는 것이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는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를 했다. 결국 그는 제2의 베토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그의 실수가 그의 독특한 음악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코네티컷 주 페어필드 대학 졸업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진 장점은 나의 결점의 산물이며 성공은 실패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나의 음악스타일은 나의 한계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수많은 시간 음악 공부와 피아노를 완벽하게 연주하기 위한 연습과 잘된 악보를 쓰기위한 힘든 노력을 다 한 후에야 아주 정확한 시간에 피아노 건반을 칠 수 있는 솜씨가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독창성의 비밀이다. 생각해보라. 오직 당신에게만 있는 훌륭한 스타일 속에서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독특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풀어야 문제에 맞닥뜨린다면 그 문제로 인해 당신의 창의력은 풍부해 진다.

테사는 자신의 실망감을 다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빌리 조엘도 마찬가지다. 이 둘 모두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다음번에 당신이 실망스런 상황에 처했을 때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분이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시 갖추어 줄 것이다.

## 7. 내가 원하는 한번의 기적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 시편42:11 리빙바이블

“기적은 내가 필요한 전부이다...” 이것은 유명한 락앤롤 노래의 가사이지만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는 가슴으로 외치는 소리다. “하나님께서 저의 부탁을 한번만 들어 주신다면 내 인생은 될 것입니다. 내게 기적이 한번만 일어난다면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입니까? 그러실 수 있나요?

기적이란! 단순히 이 단어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온갖 상상력이 다 동원된다. 어떤 이들에게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주 법칙을 역행할 때 일어나는 아주 드문 것이다. 혹자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조그만 씨앗에서 커다란 떡갈나무가 자라는 것부터 아기가 탄생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기적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으로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무력하게 하는 감격 있어야 한다.

기적이란 주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자주 꿈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과 거리가 먼 마치 구름과 같은 것을 타고 떠다니는 사람들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갈 겁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소위 “기적종교”라 불리는 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들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기도의 힘을 믿는 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믿는 온건한 지식 기독교인들이 분명 이성을 잃은 사람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이 불쾌하다. 기적을 믿는다는 것은 분

별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믿음이 아주 깊고 조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기적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봐 왔다. 내 친구 벤이 그러한 경우이다. 책을 저술하고 연설을 직업적으로 하기 시작 할 때 즈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당시 벤은 자신이 암 말기임을 알게 되었다. 벤과 나는 나이가 비슷하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부인과 네 살과 여섯 살인 사랑스런 두 딸이 있다. 우리 두 사람은 같은 성경 공부반 이었다. 매주 얼굴에 웃음을 띠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신의 병 회복에 대해 기도하는지 말했다. 기도와 함께 그는 의사의 처방에도 충실히 따랐다. 우리 성경반은 벤의 회복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 하지만 차도가 있어야 하는데 벤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다. 그의 병마가 심해진 만큼 우리의 기도도 더욱 더해 갔다. 그럼에도 단 한번이라도 벤이 불평하거나 투덜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벤이 암과 투병기간에 나의 첫 저서 출판 사인회를 가졌다. 삼백 여명의 사람들이 찾아 와서 나에게 잘 되기를 바랐다. 벤과 그의 가족들도 바로 그 자리에 줄을 서서 나에게 응원을 보냈다. 벤이 내가 앉아 있는 자리로 걸어오면서 함박웃음을 짓고 진심으로 나의 성공을 기뻐해 주었다. 이 세상에 진정 독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벤이다. 나는 그에게 줄 책에 서명을 하고 사랑스런 그의 가족에 대해 몇 마디 적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고 이심전심으로 따뜻한 온정이 통했다. 그는 나의 심장을 꿰뚫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피곤함과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마치 그가 내게 말없이 작별을 고하는 것 같았다. 그 이후 나는 벤을 다시 보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숨을 거뒀다. 그가 죽은 후 나는 하나님께 물었다. “왜 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는 많이 해 주셨는데 어찌하여 기적이 필요하고 세 명의 가족이 의지하고 있는 벤은 죽게 놔두셨는지요, 왜요, 하나님?”

진실은 명료하다.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날 때가 가끔 있다. 이 장 도입부분 인용한 성경구문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내 책에 하나님의 행하는 기적에 대해 쓰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께 폐가 된다고 생각한다.

수년 동안 나는 기적의 현상에 대해 아주 흥미를 갖고 있다. 랜덤하우스의 대사전에는 기적이란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비범한 사건이나 그 효과로서 모든 인간과 자연의 힘을 능가하며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거나 그와 같은 효과이거나 사건, 혹은 불가사의 하거나 경이로운 일” 이거나 “하나님의 행위로 간주되는 행위”로 설명되어 있다. 나는 신학교에서 기적에 대해 배웠으며, 그 이후 수년 동안 진실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다방면에 걸쳐 기적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나의 믿음을 영원히 바꿔 놓을 만큼 놀라운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내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들로 인해 비록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뚜렷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내가 겪는 일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다는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었다.

폭풍을 이겨내고 영혼이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한 첫 걸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요, 둘째는 그가 우리 삶을 돌보신다는 믿음이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동시에 수십억의 사람들의 삶을 돌볼 수 있을까 나는 항상 궁금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말하는 보통 사람들의 경험은 오늘 날 소송의 기준에서 본다면 엄청난 것이어서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시험하는 것이라면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유죄이다.

이전에 불가지론자였던 파멜라 어웬은 워싱턴 D.C와 런던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국제 법률 회사 베이커 & 버츠의 동업 변호사로 26년간 일해 왔다. 사 이몬 그린리프와 같은 학자에게서 고무되었고 스스로 믿음을 찾고 싶어서 개인적 신이 존재한다는 논리적인 근거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그녀는 시험에 든 믿음(브로드만 & 홀만)이란 책을 저술했다. 그 저서에서 파멜라는 국내 법원에서 사용되는 증인과 똑같은 기준에 맞게 증거를 제시했다. 개인적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는 부담감도 느꼈다. 조사 결과 그녀는 더 이상 불가지론자 아니며, 신의 존재에 대해 확신이 섰다.

세계 창조와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증거를 동원했다. 거기에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백만 사람들이 겪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했다. 이 이야기 중 몇 개는 나중에 내가 여러분께 들려 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내가 한 학자로서 주장하거나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식에 당황한다. 기억하는가, 내게 청각장애 아들이 있다. 내가 찾은 것은 초자연적인 일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이다. 그 패턴은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1. 항상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기적은 어느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고 나서야 생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의 존재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해 기적을 원한다면 일어날 가망성은 거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을 수 있게 하는 흔적들을 우리 주위에 충분히 남겨 놓으셨다.

2. 내가 목격한 기적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해졌다. 하나님 자신

이 스스로 관여하는 방법 혹은 그로부터 나오는 격려이다. 첫 번째 경우 기적을 받는 사람은 구하지 않아도 기적은 바로 일어난다. 두 번째인 경우 믿음에 따라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하며 자신의 감정이 시키는 것이 아님을 구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본질을 거스르거나 그가 결정한 상식을 뒤엎는 행동을 사람들이 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앓고 있는 특별한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복용하는 약이나 의사의 처방을 따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드물긴 해도 약과 치료로 인해 실제로 사람들이 병에 걸릴 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알고 있는 상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

3.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적을 주신다. 대부분은 초자연적인 힘과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산과 같은 어려움을 이겨 나가게 함으로써 우리의 힘을 길러 주신다. 확실한 기적을 받지 못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에 직면해서도 지속적인 믿음 갖고 사람들은 가끔씩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도구가 된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갖고 죽음에 대한 고통을 극복하는 것도 크나 큰 기적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끔 자연법칙을 거스르며 초자연적인 힘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대한 산과 같은 어려움을 없애 주신다.

진정으로 신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나를 데려 가지던 나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 장에서 나는 당신을 개종시키거나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적 같은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당신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적이야기로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지 기적을 바라게 하는 것이 아니다.

회의론자에게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과장한 것이 아니다. 나는 아주 현실적이고 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과장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켄 가웬은 개인적으로 만나본 사람으로서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일부로 지어낼 사람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과 나처럼 조용한 성격의 인물이지만 기적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은 엄청나게 변했다. 개인적으로 기적에 대해 공부하면서 나는 믿음을 찾으려고 했으며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기적에 대해 읽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가? 믿음과 힘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생긴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나의 삶에 행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데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설명조차 못할 정도로 많다.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침묵하고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올린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이 진실이라는 것을 제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제게 행하는 거부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인해 당신이 진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당신이 진실이라는 것은 압니다. 당신이 진실이라는 것은 당신의 침묵과 제가 겪고 있는 일에도 다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내가 목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자세히 마음속에서 그려본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에 무한한 신뢰를 두고 있다. 그 성경 구절을 한 예로 들어 본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찌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시편 138:7)이나 혹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이사야 41:10) 하나님의 기적을 읽으면 힘든 시기가 찾아 왔을 때 힘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 기적의 섭리

### 기타

미시시피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있을 때 아주 비범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우연이라고 무시 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밤, 크리스마스 방학동안 나는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기도하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내 마음속에 일어났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어떤 목소리였으며 조용하며 나지막한 목소리가 “기타를 주어라”라고 심연으로 퍼져 나갔다. 그 당시 나는 기타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기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목소리는 내심 듣고 싶지 않았다. 돈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백 달러하는 기타를 주는 것은 앞으로 오백달러 없이 지내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리기 위해 잠자리에 들었고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 강할수록 생각은 더 또렷해졌다. 그날 나는 곁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기타를 집어 들었을 때 평, 다시 그 생각이 떠올랐다. 며칠 동안 기타에 손을 댈 때마다 자꾸만 그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났다.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마침내 나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기타를 건네줄게요. 근데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이 질문을 하자마자 한 이름이 머릿속에 나타났다. 그 이름은 존 에드워드이다. 나는 존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존이 기타에 관심이 있는지도 몰랐다. 대학 성경 공부 반에 같이 참석하지만 나는 그가 음악에 관심이 있었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챘다.

방학이 끝나고 개강하자 나는 존을 찾았다. 존을 만났을 때 나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타를 너에게 주란다. 기타를 치지 않아도

네가 그냥 갖고 있어.”라고 말했다. 나는 존이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표정으로 반응하리라고 생각했으나 놀랍게도 눈물이 그의 눈에 가득 고인 채 나를 쳐다봤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존은 가방에서 자신의 일기를 꺼내 방학동안 기도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일기장에 적어 놓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내 한평생 살면서 이런 말은 잊을 수 없었다. 그 글귀를 인용하려 한다. 나는 수년 동안 이 말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씩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려는 기타가 하나 있다. 비록 네가 잘 칠 줄은 모르지만 내가 치는 방법을 가르쳐서 나를 찬양하게 하리라.*

존은 그에게 이런 글을 쓰라고 시킨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믿고 있었다. 여하튼 하나님은 그에게 기타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존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른 채 나는 그를 찾아서 주고 싶지 않았던 나의 기타를 그에게 넘겨주었다. 꿈에도 존이 기타 연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내가 기타를 주기 전까지 그는 한 번도 기타를 쳐 본적이 없었다!

존과 나는 모두 감탄했다. 우리 둘 모두 하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진실이며 우리 삶에 관여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 여자 손목시계

조 용기 박사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창시자이며 목사이다. 그가 교회를 짓기 시작할 당시 아주 가난해서 흙바닥의 한 칸짜리 헛간에서 생활을 했다. 그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항상 입는 몇 벌의 옷과 책상과 의자, 몇 가지 식기

도구, 공부하는 책과 자전거 하나였다. 그 당시 조 용기 박사는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다. 아주 기분이 들뜬 순간 그는 약혼녀에게 약혼 기념 시계를 사주겠다고 약속해 버렸다. 다음번 만나는 날 시계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날이 다음 주 월요일이었다.

갖고 있는 돈을 다 계산하고서야 너무 성급하게 약속했음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약속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하며 안 그럴 경우 면목을 잃게 된다. 손목시계이고 그리 큰 선물이 아니지만 조 용기 목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약속을 어기고서도 그녀가 나와 결혼 해 줄까?”라고 그는 생각했다.

며칠 동안 조 목사는 부인이 될 사람을 위한 시계 하나를 주십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는 특별한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크나 큰 공급자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음에 평화가 찾아 왔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며 누구에게도 그가 필요한 시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일요일 밤이 되었으나 시계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 시기는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때여서 서울에는 야간 통행금지가 있었다. 열두시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모두 사람들이 집에 있어야 한다. 조 목사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아주 열성적으로 기도를 올렸다. 그는 기도를 하자 다시 평화로운 마음이 찾아 왔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을 믿기로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벽에 걸려 있는 시계에 자꾸 마음이 쓰였다. 몇 분이 지나면 통행금지가 실시된다. 바로 자정 전에 누군가 그의 문을 노크했다. 미군이였다. 그는 “목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조카가 한명 있는데 그 애 생일이 다음 주입니다. 금요일 생일 선물주려고 손목시계를 피엑스(PX)에서 샀습니다. 문제는 오늘 제가 그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시계를 목사님께

드리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드리긴 하지만 목사님은 남자라서 여자 시계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조 용기 목사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그 군인은 너무 신나서 큰 소리 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신거야, 정말로, 이용했어.” 조 용기 목사는 그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시계를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 하늘에서 온 소식

린다 스미스의 어린 아들 알렉스는 친구 집으로 가는 도중 사고로 총상 맞고 사망했다. 몇몇의 남자아이들이 놀고 있었으며 그 중 한 아이가 장전된 총을 발견하고 서로 만져 보기 시작했다. 총신(원통부분)이 알렉스에게 건네졌을 때 총신이 그를 향했고 발사되었다. 총알이 그의 가슴을 관통하여 즉사했다.

린다는 아들을 잃어서 비탄에 잠겼다. 그러나 죽기 이 개월 전 알렉스가 보여준 모습에 그녀는 알렉스의 죽음에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린다는 “알렉스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죽기 이 개월 전, 알렉스는 피곤한 모습으로 아침을 먹으러 내려 왔는데 밤새 잠을 한 숨도 못잔 모습이였다. 린다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그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꿴다고 했다. 하얀색 옷을 입은 눈부신 여왕 같은 모습의 키 큰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시간이 다 되어 간다고 말했다. 꿈속에서 그가 있는 곳의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으나 한 곳 만이 열려 있었는데 그곳을 나가면 긴 복도가 이어진다.

“그게 다예요. 진짜 이상해요”라고 그가 말했다.

그 다음 주 내내 똑같은 꿈을 계속 꾸었고 꿈속에 나타난 물체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는 높고, 이상하게 생긴 기념비였다. 일정한 형태로 자란 나뭇가지의 나무도 있었다. 그는 그 그림이 뜻하는 바가 뭘지 몰랐지만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으며 그의 부모에게도 의견을 물어 봤다. 린다는 이 일을 일기에 적었고 그 중 몇몇 그림을 모아두기도 했다.

그가 총에 맞기 이틀 전 린다는 아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는 린다의 손을 잡고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내가 죽으면 울지 마세요. 그분들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곳은 아름다워요.” 린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알렉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혹시 자살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 보았고 그는 아니라고 하며 “여기 오래 있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라고 대답했다.

이틀 후, 알렉스가 총에 맞았다. 그의 장례식에서 린다와 그녀의 남편은 묘지에서 알렉스의 그림에서 본 두 가지를 알아 봤다. 높고 이상하게 생긴 기념비가 동네 묘지에 있었으며 독특한 나뭇가지의 그 나무도 거기 있었다.

특정한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이해 할 수 없더라도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아이를 잃는다는 것이 비극이며 세상에 남겨진 이들에게는 그 고통이 진실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 시켜 준다.

## 기적 같은 치료

어브 모루드의 이야기는 암 말기 환자 치료에 대한 놀라운 기록을 잘 설명

해 준다. 어브는 목사로 1980년 불치 림프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암 세포가 온 몸에 전이되어 돌아다녔다. 림프종양은 계속해서 세포를 번식 시켜 나갔다.

목사는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치료 능력에 대해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했다. 열렬하게 기도를 통해 완쾌를 빌었으나 차고가 전혀 없었다. 암은 계속해서 진행 되어 갔다. 몇 개월 후 그가 받는 화학 치료법으로는 종양의 크기를 줄어든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어브 목사는 죽은 목숨이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은 어브에게 “삼일 동안 기도하고 찬양하면 삼일 째 되는 날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계시했다. 하나님의 소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그였지만 화학치료요법 때문에 목소리를 잃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다. 암 말기 환자를 본 사람들은 환자가 뼈만 앙상하게 남는 것을 알고 있다. 음식이나 물을 삼킬 수 없으며 대부분 끔찍한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낸다. 몸이 아주 허약해진 상태라. 대수롭지 않은 일들, 심지어 말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아주 버거운 일이다. 어브가 이 상태에 있었다. 죽음이 몇 달 후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 모레 일이었다. 그러나 3일 동안 매시간 그는 자신의 애창 성경 테이프를 들으면서 가수의 소리를 자신의 소리인양 따라했다.

그러나 3일 째 되는 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도 더 또렷했다. “내가 무화과나무에게 하듯이 해라. 마가복음 11장을 읽어라.” 마태복음에는 예수가 열매를 매지 않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저주했고 그 나무는 말라 죽었다. 어브는 자신의 종양이 무화과나무처럼 힘을 잃고 사라질 것이라는 메시지로 받아 들었다. 아주 나지막이 그는 종양을 뿌리까지 없애주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바로 그 순간 어브의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식

욕도 다시 돌아왔다. 며칠 동안 그는 열의를 갖고 음식을 먹었으며 음식을 삼킬 수 있었다. 종양 전문의는 그를 검진하고 혈액을 검사 한 후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었다. 분명히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후 14년 넘게 어브 목사는 암에서 벗어나 생활하고 있다.

### 하나님은 당신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맨 처음 접했을 때 어느 정도 의심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처음에는 이번 이야기를 이 책에 포함 시켜야 하는지 망설였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조사하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영향력은 아주 대단할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이 알아볼수록 그 진실성은 커져 갔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켄 가움을 찾았다. 그는 실제 인물이며 주소와 전화번호도 알아냈다. 이 기적 같은 일로 인해 그의 인생과 삶의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성경책을 공산주의 국가에 몰래 밀반입 했다. 총상을 입고 수감 생활을 했으며 지금은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다. 사실, 그가 다른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수도 있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체력과 돈에 대한 기도를 했다. 내가 그와 대화 할 기회가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 승합차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켄이 부자인 것처럼 들리는가? 그에게는 이야기를 날조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가 경험한 기적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켄 가움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에 기초를 두고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내 책에 수록하게 된 동기는 믿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 몇몇은 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또한 켄의 부인과 가족 모두 그의 봉사를 돕는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다. 이외에도 그의 이야기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기적 (*Unsolved Mysteries and It's a Miracle*)에서 방영이 되었다. 이 놀라운 이

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리고 희망을 주게 되길 바란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습을 보이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왜 침묵을 지키시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를 보살핀다는 사실에 의문을 갖는다면 그것은 지독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이다.

켄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항상 목표를 두고 살고 있었다. “약간의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순회 전도사가 되었고, 그의 가족과 함께 미국 전역은 물론 많은 외국에서도 사역하였다.

목사라 해도 가끔은 에너지가 고갈되고 기운이 소진되고 다른 직업을 찾아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1970년대 어느 날 켄이 바로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 당시 그는 아내 바바라와 아이들과 함께 전도버스 두 대로 오하이오주, 데이튼 남부에 위치한 고속도로 I-75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며 당신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잘 하고 있는 일입니까?” 켄은 조용히 생각했다. “이 길이 진정 당신이 제게 원하는 것입니까?”

“아! 아빠! 우리 피자 먹자!” 켄의 아들 중 한명이 말을 꺼냈다. 자신의 생각에 몰두 하면서도, 켄은 다음 출구인 741번 도로에서 우회전을 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패스트푸드 광고 표시가 줄지어 있었다. “표시” 켄은 이 말을 깊게 생각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당신으로부터 오는 어떤 표시입니다.”

켄의 아들과 며느리는 벌써 둘째 버스를 피자 가게 주차장에 세우고 아버지가 차를 세우는 동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에 있던 가족이 뛰면서 버스

계단을 내려 왔다. 켄은 빈 허공을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안내려 와요?” 바바라가 물었다.

“별로 배가 안고파.” “여기서 다리나 뻗고 있을래.”라고 켄은 응답했다.

바바라도 가족들을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켄은 버스 밖으로 나와서 버스 문을 잠그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데어리 퀸(Dairy Queen)이란 가게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간 후 음료를 산 후 계속 깊은 생각을 하면서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돌아 왔다. 그는 극도로 지쳐 있었다. 이런 그의 침체가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피곤함의 징조였을까?

계속 울리는 소리가 켄의 생각을 방해했다. 그 소리는 데어리 퀸바로 옆 주유소에 있는 전화 박스안의 공중전화가 울리는 소리였다. 켄이 전화 쪽으로 가면서 주유소의 누군가 나와서 전화를 받는지 보았다. 그러나 주유소 직원은 계속 일만하고 있고 그 소리를 전혀 못 듣는 것 같았다. “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거지?” 켄은 좀 초조하고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응급 전화인가?”

전화벨은 끊이지 않고 계속 울려댔다. 열 번, 열다섯 번....

켄은 호기심이 났다. 전화 부스로 걸어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켄 가웬에게 장거리 전화입니다.” 전화 교환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켄은 기가 막혔다.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가 말했다. 바로 그는 자신의 무

레함을 깨닫고 그렇게 말한 이유를 설명하려 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기 길을 걷는데. 전화벨이 울렸는데...”

그 교환수는 두서없는 그의 설명을 무시했고 “켄 가움씨 계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분께 온 장거리 전화입니다.”

장난인가? 무의식적으로, 켄은 분명히 어디선가 나타날 몰래 카메라를 대비해 자신의 머리를 매만졌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가족들은 즉흥적으로 선택한 식당에서 피자를 먹고 있었고 그 식당은 그가 있는 곳으로부터 몇 야드 떨어진 곳에 있었다. 식구들 모두 그가 여기 있는 것을 몰랐다.

“선생님, 켄 가움씨께 장거리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환수는 인내심이 바닥난 소리로 다시 한 번 말했다. “그 분 지금 계세요, 안계세요?”

“제가 켄 가움입니다.” 켄은 아직도 상황을 이해 못한 채 대답했다.

“정말이세요?” 교환수가 물었다. 바로 그때 전화로 또 다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내원, 그 분이 바로 켄 가움씨야!” 그 여자가 말했다. “가움씨, 저는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에 사는 밀리에요.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아주 절박한 상태예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켄이 물었다. 전화 교환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밀리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켄은 그녀가 마음을 가다듬을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마침내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제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해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밀리는 자신이 외로움에 휩싸여 있는 동안 켄이 TV에 출연한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자상하고 감사 줄 수 있는 저 친절한 목사님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목사님과 연락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번에 밀리는 침착하게 계속 말을 이어 나갔다. “그래서 유서를 다 작성하려는데, 어떤 숫자가 생각나서 적어 놨어요.”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조용히 켄은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사하고 기도를 드렸다.

“제가 그 번호를 들여 다 보고 있는데..” 밀리는 울음이 가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게 내려 주셔서 켄의 전화번호를 주시면 얼마나 황홀할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지금 캘리포니아 사무실에 계신건가요?”

“캘리포니아에는 사무실이 없어요.” 켄이 설명했다. “사무실은 워싱턴 야기마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계세요?” 밀리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켄은 그녀보다 더 당혹했다. “밀리. 그거 아세요? 전화를 건 쪽은 밀리, 당신이예요.”

“그렇지만 저는 전화 연결 된 곳이 어디인지 몰라요.” 밀리는 장거리 전화 교환에게 전화를 걸어 지명 통화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번호를 교환수에게 말했다. 어떤 일인지 그 교환수는 켄이 오하이오 데이튼 주차장에 있

다는 것을 알아냈다.

켄은 친절하게 밀리에게 상담해 주었다. 밀리는 자신의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인생으로 안내해준 그 분을 만났다. 켄은 끊고 나서도 머리가 어지러웠다. 가족들이 이 놀라운 이야기를 믿어 줄까? 아마 그는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것이다.

켄은 대답을 듣기 위해 기도를 했고 그가 필요로 했던 것을 얻었다.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작은 가치도 깨달았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깨달음에 희열을 느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능하게 해 주셨다.

### 놀라운 나의 이야기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꼭 읽으세요

이번 들려드릴 이야기를 쓰면서 나는 아주 깊숙이 겸손함을 느꼈다. 일어날 수 없으며, 그래서 더 기적 같은 일이지만 이 이야기로 인해 나 자신을 내세우고 싶지 않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랐을 뿐이다. 어디가던 매번 나는 청중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 주었으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울었다. 기도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고 뭔가 느끼시고 우리를 전혀 돌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 각자의 삶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은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끝까지 읽으세요. 그러면 뿌듯한 마음이 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책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다. 물론 나도 이 책을

가볍게 쓰지는 않았다. 단순히 어떤 동기와 상관없이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식의 책이 아니다. 분명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하듯이 이 이야기는 진정한 기적이거나 기적의 연속이다. 작가로서의 나의 경력이 기적이다. 내 인생이 기적이다.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1997년 나는 아주 전형적이 열일곱 살 소년이었다. 내 삶은 축구, 자동차, 여자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나는 주 대표 축구선수였고 옛날 TV시리즈에 나왔던 형사시리즈 스타스키와 허치에 나오는 것과 거의 똑같은 차종인 포드 자동차의 그랜드 토리노 스포츠를 운전하고 다녔다.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아서 성적은 평균 이하를 약간 밑돌았다. 학교 공부와 독서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으며 수업시간에 교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다. 지금이야 알았지만 나는 당시 심각한 주의력결여장애(ADD)를 앓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는 이병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학교 다니면서 유일한 관심은 스포츠와 친구들이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내 삶에 극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내가 높이 평가하고 꽤 좋게 생각하는 친구 한명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예수를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다. 나의 이런 결심으로 성격에도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변화는 계속 유지 되었다. 내 자신도 그렇지만 남들 눈에도 맥스 데이비스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축구를 하고 멋진 차를 운전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청소년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전에 없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그는 사실적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일이 발생했다. 그냥 운전만 하고 있다가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다. 그 생각은 “너는 책을 쓰는 작가가 될 것이다”였다.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며

내 스스로 만들어 내지 않은 거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독서와 책이다. 게다가 내 평균 학점으로 대학 입학이 가능한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무엇인가가 내가 작가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은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할 것이다.

그 이후, 내 맘속에는 작가라는 작은 씨앗이 심어졌다. 이전에 기타를 주라는 생각이 나를 귀찮게 한 것처럼 작가가 될 거란 이 생각도 마찬가지로 나를 괴롭혔다.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 어떤 식으로 작가가 될 진 모르지만 깊은 마음 한구석에서 어느 날 내가 작가가 될 거란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당시 철없는 열일곱 살 소년의 생각으로는 당장 그런 일이 이루어 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작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미술학도였던 여자 친구는 나의 베스트셀러 책의 표지 디자인을 도와주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나는 겨우 영어시험을 톱걸이 성적으로 통과했다. 나의 작문은 형편없었으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했다.

굽이쳐 흐르는 강 근처에 있는 시골에서 살 때 모래제방을 한참 걸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그곳에서 성경을 읽기도 했다. 걷는 동안 자주 TV나 라디오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나 자신을 보았다. 상상 속에서 청중들과 이야기하고 내가 쓴 책과 관련된 인터뷰하는 연습을 하곤 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일곱 살에 일어난 것이라는 게 이해되는가! 이는 분명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는 TV, 라디오, 책 선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내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고 계속해서 나는 글을 쓰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놓지 않았다. 졸업하자 전액 장학금 조건으로 미시시피대학 축구선수 제안이 들어오는 축복이 있었다. 평균 학점은 2.0이었지만 학업 가급제(假及第)로 입학했다. 이는 장학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 평균학점 2.5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래의 작가와 연사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것이고 저널리즘 전공이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개발하는데 일조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학부시절 내내 쇼핑몰에 들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서점으로 달려가 책들을 둘러보며 언젠가 내가 쓴 책이 진열대에 있을 날을 꿈꾸었다. 작가가 나와서 직접 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상상했다. 내 맘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준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온갖 관심이 글쓰기여서 첫 아파트에 입주할 때 방 하나에 나를 위한 책상과 타자기까지 갖추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습작 실력이 향상되고 있었다. 또한 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대학 4학년 때는 대학우등생명단에 올랐다!

졸업 후 저널리즘 관련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집에 있으면서 에어컨 수리하는 아버지를 도와고 있었다. 그때에도 방 하나는 글 쓰는 공간으로 사용했다. 2년 동안 작가와 연사로서의 부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나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해 보였다. 조바심이 났다. 자주 밤에 산책을 오래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빌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분에 말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세계 작가가 되라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할 순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6년 넘게 지금도 글 쓰고 있습니다만 어떤 한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 다음 몇 주 동안 신학과 상담전공 석사 학위를 위해 다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해졌다. 전공인 저널리즘과 신학과 상담을 혼합하는 것이 내 목표였다. 아내와 어린 자식을 하나가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주를 떠나 오크라호마 털사로 이사했고 신학대학교에 다녔다.

신학대학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UPS에서 새벽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수업을 들었다. 친구들 모두 내가 작가지망생인 것을 알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 중 한명이 선물로 책 한권을 주었는데 그 책속에 “언젠가 네가 쓴 글이 지금 유명한 작가들 것보다 더 유명해 질 거야, 왜냐하면 네가 진정으로 글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라고 메모되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글 쓰기 연습했고 그 책 또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오래지 않아 교수들도 나의 재능을 인정했다. 가장 까다로운 교수 중 한명은 나의 논문집 맨 위에 “맥스, 너의 글은 살아 숨 쉰다.”라고 적었다. 이런 몇 글자가 내게 준 용기를 상상해 보라! 글쓰기 능력은 점점 늘었고 더불어 지식의 폭도 넓어졌다.

곧 졸업은 했으나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은 털사에 있는 UPS의 트럭기사로 일하게 되었다. 10년 동안 부름을 쫓아 노력했지만 트럭 운전사로 취직한 것 외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월급은 괜찮았고 서서히 가족의 일상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나는 계속 노력했다. 글을 써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중단하도록 나누지 않았다. 트럭운전을 하면서도 나는 항상 공책을 갖고 다녔다. 내가 배달하는 구역에는 서점이 두 군데 있었다. 그곳에 들리는 시간이 무척 즐거웠다. 거기서 항상 오랜 시간 머물렀다. 3년 이상 이런 일이 계속됐다. 그 이후 두 번째 아이, 제임스가 태어났다. 13개월 후 우리는 제임스의 귀가 안 들리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기적,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밤, 나는 생생한 꿈을 꾸었다. 나는 작은 교회의 목사였다. 너무 사실적이라서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았다. 교회 꼭대기 너머로 보이는 플

랜카드에는 ‘캔자스 로렌스’라고 적혀 있었다. 잠에서 깬 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캔자스 로렌스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뉴멕시코의 벤드, 오레곤 혹은 앨버커키라야 말이 된다. 도대체 이 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나 같은 성격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이상한 꿈이라고 무시해 버렸다. 그냥 농담으로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하고 넘겼다.

그 다음 토요일 제임스와 크리스틴을 데리고 시내에 있는 공원으로 갔다. 텔사는 오십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도시로서 공원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네에 탄 제임스를 밀어주며 수화로 대화하고 있는 데 초면인 한 여인이 내게 와서 “아드님 귀가 안 들리는군요.”라며 말을 걸었다. 몇 분 동안 대화를 나눈 후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나에게 “아드님을 캔자스의 로렌스 시로 데려 가세요, 그곳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짐작하겠지만 그때 나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져 턱이 땅을 칠 정도였다. 내가 꿈과 오늘의 이 상황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집으로 돌아와서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 만날 수 있는지 알아 봤다. 나는 목사님께 두 가지 별난 일에 대해 말씀 드렸다. 그리고 그에게 이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로렌스로 이사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여쭙어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대답했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목사님과 만나고 이삼일 후 목사님은 조그만 새로운 교회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짐작하겠지만 캔자스 로렌스에서 온 것이다. 그 편지는 우리 교회와 같은 종파로서 지부 설립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과 함께 목사님께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 할 목사가 있는지 묻는 편지였다. 목사님은 즉시 그 내용을 내게 알려 주었다. 내 이야기를 전해들은 교파 지도부는 적당한 보수에 로렌스로 가서 교회가 잘 운영 되도록 도우라고 나를 허락했다. 짧은 몇 주 동안 우리

가족은 로렌스로 이사 갔고 나는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기묘하게도 이 교회는 내 꿈속의 교회와 비슷했다. 제임스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최고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단순히 우연이라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부름에 대해 확신 때문에 나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책을 쓰는 것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나를 괴롭혔다. 마음속에서는 모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목사와 작가, 둘 다 할 수 있었다.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글 쓰는 연습을 했다. 신도들은 내 글쓰기 작업의 실험 대상이 되었다. 매번 내가 무엇인가를 쓰면 몇몇 신도들에게 그것을 읽게 해서 의견을 물어 보곤 했다. 첫 해에는 모든 일이 잘 풀렸다. 교회는 점점 커져갔다. 교회 건물도 세 채로 늘었다. 멋진 집도 장만했다. 인생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보였지만 폭풍을 예고하는 먹구름이 수평선에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곧이어 내 인생에 변화가 찾아왔고, 되풀이해서 말하지만 그 변화는 내가 전혀 상상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일치 하지 않으며 그분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그 분은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개월 동안 나는 집에서 무언가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다. 그러나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 짚어 낼 수는 없었다. 긴장감이 느껴졌으나 스스로에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어”라며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렸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었고 곧이어 고통스런 이혼의 한복판에 선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 완전히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이혼 전 까지 내 인생에는 많은 성공들이 있었다. 내가 하는 일마다 거의 대부분 잘 풀렸었다. 나의 미래는 순조롭게 펼쳐지고 있었다.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눈에 보였다.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을 상담하고 나의 비전을 실현시키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나 자신도 모르게 가족을 등한시 하게 되었던 것이다.

몇 달 사이에 승승장구 하던 인생이 곤두박질쳤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새 집, 목사로서의 내 직업(가족에 충실하기 위해 목사를 그만 두었다)을 잃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이들과의 이별이었다. 그 이후, 옆친 데 덮친 격으로 적당한 구직과 함께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로 돈이 매달 빠져 나가는 것이었다. 나 혼자 살 아파트조차 구 할 형편이 못돼서 몇 개월 동안 집 없이 살았다. 며칠 밤은 차를 길가에 세워 놓은 채 그 안에서 잠을 잤다. 한번은 경찰이 내차의 창문을 두드려서 아침잠을 깬 적이 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생활했다.

전처가 다시 루이지애나로 이사 간 후, 머지않아 나도 애들과 가깝게 있으려고 그 곳으로 옮겼다. 꿈이 산산조각 나고, 굴욕적이고, 가난하고, 낙담한 나는 인생에 대한 한 줄기 희망도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나는 혼동 그 자체였다.

나는 성취자이다. 어찌 내가 완전한 실패자로서 삶을 끝낼 수 있겠는가? 나의 개인적인 꿈들은 사라졌다. 작가가 되려는 생각도 오래 전에 없어졌다. 이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아이들을 만나는 것과 나 자신에게 힘을 북돋는 것이었다.

팬찮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찾아다닐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았다. UPS에서 다시 일하려 했으나 내 경력으로 정규 운전사직은 해당사항 밖이었다. 그래서 나는 청소기를 팔러 다녔다. 자동차도 판매했다. 보험 영업도 했다. 주택의 페인트칠도 했다. 고물 에어컨에서 고철도 수집해서 팔았다. 이 모든 직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돈을 모을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 12년 된 내 고물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했다.

결국, 나는 갈 수 있는 끝까지 갔다, 다시 말해서 완전 빈털터리가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내게 일어났던 일 중 최고의 일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이 말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다.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 대해 전처를 비난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이성적인 결론을 내린 것을 나는 기억한다. 울면서 나는 하나님께 내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던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믿으며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길 원한다고 털어 놓았다. 그런 결정을 내리자 평화로움이 내 마음에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털사에 계신 내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12단계 기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집중 치료를 받았다. 내 상처가 치유 된 것뿐만이 아니라 시야가 넓어져서 예전과는 다르게 이해심으로 충만해졌다. 나에게 분명히 자멸적인 습성이 있었고 이 습성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그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맥스 데이비스에 대한 책임을 져야했다. 이런 부분은 나에게만 있는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다. 모든 사람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강점을 아는 것처럼 약점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은 내가 많은 일들을 겪는 것을 지켜보시며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하신다. 이제, 나는 다시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서 갓 이혼한 사람을 목사로 쓰겠는가?

**기적, 두 번째 이야기**

내가 깨달은 모든 이야기들을 저술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에 대해 내가 보아온 이야기들은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어느 날 새벽 세시, 잠이 오지 않자 기도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때도 혼자 힘으로 내가 이 이야기들을 출판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었다. 출판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는 것도, 내가 돈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이라면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내게 “대담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일을 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말하는 것들이 어설프게 들릴 지라도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도와 줄 것을 부탁하고 다녔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 그것은 기적이었고 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내가 출판한 책인 “절대 엄마에게 혀를 내밀지 말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뜻밖의 일”이 서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 책으로 인해 독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하고자 하는 전화와 편지들을 받게 되었다.

이런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예언을 암시하는 꿈을 꾸게 되었다. 옛 캔자스의 로렌스에 대한 꿈처럼 이번 것도 아주 생생했다. 이번에는 뉴욕이었다.

꿈속에선 거리들, 노란 택시들, 차가 밀리는 것들이 보였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 당시 나는 출판업계에 대해서는 무지했으며 대부분의 대형 출판사들이 뉴욕 시에 있다는 것조차 몰랐었다. 그 꿈 때문에 다음 날 장모님과 이 일을 상의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네 책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이 드네.”라고 말했다. 몇 달 후, 뉴욕에 있는 한 에이전트에 내 책을 건네 준 한 사람을 소개 받았다. 그 에이전트는 내가 출판사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 출판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사 중 하나였다. 이제 일 년에 두어 번 뉴욕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 내가 쓴 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할 기회가 온 것이다.

이 이야기가 놀라운 것은, 이십여 년 전 하나님께서 내게 나는 글을 쓰게 되고 연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는 코미테 강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일들은 내가 계획하거나 상상한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내 자신을 없애고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꿈을 이루어주셨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매일 어떤 대형 출판사가 내 책을 출판하는 일들을 상상 하곤 했었다. 그러나 나는 루이지애나, 그린웰 스프링 출신의 촌놈일 뿐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대형 출판사가 나의 책을 선뜻 출판하려는 것일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문을 열어 주셨듯이 그 분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이다.

이 글에서 놀라운 강력한 메시지는 내가 작가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그 수많은 세월동안 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그분은 항상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다. 내가 낙담해서 트럭운전을 할 때도 그분은 내 곁에 있었다. 목사로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혼으로 고통에 몸부림 칠 때도 내 곁에 있었다. 내가 경험한 모든 일들은 나를 이곳에 인도하기 위한 것들이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서 나를 가르치시며 나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의 의미는 진실로 “모든 것”을 말한다.

그렇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오고 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기적은 진짜 일어난다고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을 행하는 기회를 드리자.

## 8. 빗길에서 펑크 난 타이어를 바꾸는 일곱 가지 효과적인 방법

인간은 도구를 이용하는 동물이다. 도구 없는 인간은 무가치하다-토마스 칼라일

내 아버지는 어떤 것도 고칠 수 있다. 사실이다. 뭔가 고장이 나면 아버지의 전문적인 솜씨에 모든 것을 맡겼다. 열거해보면, 내가 쓰던 세탁기, 냉장고, 내 차(수없이 많이), 내 에어컨. 어떤 물건이든 그는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놀랍게도 아버지의 그 능력의 많은 부분이 내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버지의 가르침에도, 채주꾼으로서 나는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에 적합한 도구가 없으면 중간에 그만 두는 경향이 있었다. 말하자면 비교적 간단한 일을 하는데 맞는 연장이 없어서 일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짜증스런 일이다.

대부분의 이런 일은 아주 작은 부품하고 관련된다. 예를 들면 소켓이 1mm 떨어진 곳에 있거나, 볼트 하나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을 때 그렇다. 일을 끝마치는데 필요한 것은 아주 작은 기구 하나이다. 그래서 연장통을 다 뒤지면서 딱 들어맞는 그 뭔가가 있길 바라지만 뽀뽀한 십만 달러가 주머니 속에 없는 것처럼 맞는 연장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연장통을 온통 뒤집어가며 필요한 도구를 찾고, 옆집이나 사돈집으로 달려가서 찾고 있는 바로 그 물건이 있는지 물어본다. 그러나 끝내는 힘은 빠지고 기진맥진해지고 손가락 관절의 피부가 벗겨져도 일은 끝마치지 못한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그에게는 도구가 있다. 그가 운전하는 트럭에는 아주 커다란 강철 연장통이 트럭 밑바닥 공간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아버지는 ‘맥스야, 올바른 도구만 있으면 어려운 일은 없는 법이다’라는 말을 수없이 나에게 했다. 내가 이제 그 사실을 수긍했을 거

라고 여러분은 생각 할 것이다. 실로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도구만 갖추어진 것이 아니라 그 도구들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와 아버지가 다른 점이다. 소켓에 맞는 볼트가 있는 것과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다.

한번은 아버지가 에어컨을 설치하시 데 도와 드린 적이 있다. 집안 구석구석에 환풍기를 다는 것이 내가 맡은 일이었다. 나는 필요한 도구를 다 챙겼다. 드라이버, 나사, 접이사다리. 두 번째 방에 환풍기를 달 쫓 돼서 나는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팠다. 이런 딜레마를 눈치 챈 아버지는 자신의 연장통에서 끝에 드릴용 날이 부착된 동력 드릴을 꺼냈다. 그것을 사용하니 힘들고 팔 아프면서 한 시간 걸린 일을 겨우 몇 분 안에 끝낼 수 있었다.

고장이 나면 물질적인 도구를 써서 물건을 고치듯이 인생에서 때때로 겪는 힘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적 혹은 영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빗길에서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차 트렁크에 자동차 잭 혹은 타이어 갈아 끼우는 장비가 없다고 생각하면 무척 짜증이 날 것이다. 안전하게 다시 운전 할 수 있도록 차를 고치기 위해 적당한 연장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힘의 원천인 하나님께 가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어지는 페이지에는 여러분의 정신적, 영적 연장통을 채울 몇 가지 효과적인 도구들에 관련된 글이다. 오늘 여러분 영혼에 꼭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 **도구#1. 귀찮아도 가끔은 빛속으로 걸어 나와서 상황을 정리해야한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기회를 잡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로버트 솔러 목사*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 억수로 비가 쏟아져 양 옆 도로에

물이 넘쳐흐르고 있다. 그런데 밖은 캄캄하다. 와이퍼를 삼단으로 해서 작동시키지만 역수같은 비에는 무용지물이다. 중요한 자리에 가기 위해 말끔하게 차려 입고 운전하는데 갑자기 평하는 소리와 함께 탁, 탁, 탁, 쿵, 쿵, 쿵. 순식간에 “음, 자동차 펑크다”라는 결론에 이른다. 조심스럽게 차를 도로 한쪽에 세우고 비상등을 켜다. 여전히 비는 그칠 기색 없이 퍼붓고 있다.

잠시 툭툭거리며 혼잣말로 “이제 어떡하지”라고 중얼거려 본다. “항상 비가 억수로 올 때만 타이어가 펑크 나는 일이 생긴다. 참 지질이기도 난 복도 없어”라며 타이어 펑크 난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든 저절로 일이 풀리기를 기원해 본다. 천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당신을 위해 펑크 난 타이어를 교체해 주지도 않는다. 물론 바람 빠진 타이어에 공기를 채워 넣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현실로 돌아와서 차려 입은 옷이 젖고 더러워져도 차문을 열고, 빗속으로 나가서 직접 이 난처한 상황에 맞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십중팔구 우리를 숨 막히게 하던 일들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 가면 결국에 남는 것은 통제에 대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다. 과거에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나 사건들을 놓아 버리지 못했거나,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 할 때 자그마한 일까지 건사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일에 대해, 상황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순간 해방이 찾아온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동안 팔을 걷어 부치고, 이를 굳게 다물고 어떠한 상황에 휩쓸리기 전에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순간은 있게 마련이다.

몇 년 전, 아이오와 수시(Sioux City)에 있었던 UA 항공기 232편에 대한 사건은 어려운 상황에서 적절한 통제가 얼마나 빛을 발휘하는지 보여준다. 만

오천피트 상공에서 순항하던 비행기가 DC-10의 중앙 날개 엔진이 갑자기 폭발하여 뜨거운 파편이 꼬리 쪽으로 날아가서 작동중인 수압장치를 두 동강 내어 버렸다. 이 수압 장치는 항공기의 플랩 날개와 착륙 기어를 통제하는 극히 중대한 연동장치이다.

비행기가 연기로 가득 차고 지상으로 급강하 하자, 눈에 보이는 죽음에 맞서기 위해 조종사들과 지상 관제탑 직원이 상황을 통제하고 나섰다. 부조종사가 황급히 비행기 뒤쪽으로 달려가서 조잡한 수동 케이블을 인위로 조작하여 비행기의 플랩과 날개를 수의 조작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사이 조종사는 무전기를 통해 관제탑으로 온 지시사항을 부조종사에게 전달했다. 비행기는 활주로에 불시착했지만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세 사람의 영웅적 행동이 없었다면 그 비행기는 어느 옥수수 밭 가운데 추락해서 승객 전원이 사망했을 거라고 밝혔다. “활주로는 고사하고 아이오와 주에 비행기를 착륙 시킬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이다.”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바로 이것이 통제이다. UA 232의 누군가가 상황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185명의 승객의 목숨이 안전했다. 이러한 적절한 통제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죽어 가고, 희망은 사라지고 산터미 같은 문제들만이 우리를 집어 삼켜 버리게 된다.

UA 232 조종사들은 손을 쓰지 않고 가만히 결과를 기다린 게 아니었다. 그들은 책임감을 갖고 상황 통제를 하였다. 극한 상황이었지만 조종사들이 손을 써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통제를 해야 할 때는 공포와 고통이 우리를 마비 시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때이다.

통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장난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기적 같은 나의 작가 경력에 관한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문을 열어 주셨고 나는 그 문을 걸어가야 했다.

아주 많은 경우 그러한 문들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유토피야를 쫓는 몽상가로 생각했다. 전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 하나하나를 통과하는데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다. 내가 생각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의 나의 실패와 함께 내가 다시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 나의 모습이 얼마나 바보스러울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는 운명을 사는 거라서 공포를 통제하고 한 걸음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다. 이게 바로 책임감을 갖고 통제 한다는 것이다.

## **도구#2. 가끔은 우리 모두 우산을 받쳐 주거나 경찰을 불러 주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서로가 돕지 않고 지내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서로의 도움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은 동료들에게 도움을 청할 권리가 있다. - 월터 스콧 경

드디어 당신이 빗속에서 있게 된다. 타이어잭과 스페너도 준비가 되어 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젖고 옷이 헝클어진다고 해도 당신은 이 상황을 통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자마자 튀어나온 고정나사를 돌리는데 힘이 부치며, 차축에서 타이어를 들어 올리는 것은 더더군다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도움을 청하는데 뭐가 창피하단 말인가.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도움을 청하는 것에 대해 뼈에 박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아주 대수롭지 않은 도움을 청하느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용쓰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또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 도와 달라는 말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나

뭔가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두려움 없이 도움을 청하는 능력이야말로 개인적으로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시이다.

세일즈맨의 직업 세계에서 거의 모든 유능한 판매 사원들은 판매 설명회가 끝나면 물건을 사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그들은 토로한다. 그러나 실제로 판매 사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구입 할 것을 부탁하자 판매 실적은 놀랄 만큼 높아졌다. 계속되는 세미나에서 판매사원들은 제품 구입하도록 요청하는 교육을 계속 받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것일까? 그 이유는, 뭔가를 부탁한다는 것을 치욕적인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제품 구입을 요청하던, 도움을 요청하던 상관없다. 때때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가 위대한 정신적 스승이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고차원적인 의식의 소유자로서 우주와 연락했다고 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역사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예수라는 것에는 동의 할 것이다. 예수로 인해 우리 사회는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년도도 그의 탄생을 기준으로 한다.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휴일이 되었다.

한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가? 예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능력을 생각해 보라.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산 인물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세계 역사의 기둥이자 우상인 이 분도 역시 도움을 필요로 했다. 자신의 혼자 힘으로 그의 임무를 완수 할 수가 없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장으로 가는 길에 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다. 구타를 심하게 당한 데다 몸이 너무 허약했기 때문이었다. 인내는 한계에 다

다르고 육체적으로 부상을 당해서 쇠약한 그를 대신해서 한 친구가 십자가를 끌고 가도록 명을 받았다.

질문하나 하고 갑시다. 만약 이 우주에서 가장 착실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신의 십자가를 끌고 갈 수 있다고 장담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혼자서 살아 갈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누군가로부터 도움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자라다는 뜻은 아니다. 레오 13세 교황은 “아무리 부자라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아무리 가난해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친절하게 그 도움을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성의 일부이다.”라고 밝혔다.

### **도구#3. 침착해라, 겁 먹지마라: 상황이 생각보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공포란 “그렇듯하게 보이는 잘못된 증거” 라는 약성어이다. -베리파버

현실을 직시하자. 비가 오는데 타이어가 펑크 났다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니다. 낡은 옷을 입고, 손에 렌치를 들고,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난 적이 언제 인지 기억하는가? 비가 오는데 타이어가 펑크 나면 보통 우리는 인생이 멈춘 것처럼 느낀다. 실제로 그렇다.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계속해서 가지만 당신은 곤경에 처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 망할 놈의 타이어를 갈아 끼우지 않은 이상 목표로 한 곳에 갈 수도 없거니와 해야 할 일을 마칠 수도 없게 된다.

이런 종류의 경험은 우리에게 주의를 경고한다. 하던 일을 멈추고 완전히 이런 경험에 집중하라고 우리의 등을 떠민다. 생각으로는 하던 일을 멈추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할 일, 가야 할 곳도, 만나야 할 사람도, 내야 할 요금 고지서 등등 많다.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고 느끼지만 실제 상황에서 바로 코앞의 일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빗길에서 펑크 난 타이어로 인해 엄청난 불편이 따르고 난처한 상황이 되며 멧있는 계획이 틀어지고 엉망진창이 된다. 이런 경험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는 듯 한 느낌을 받는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쾌감대가 줄어들어 압박감을 느끼는 원인이 된다. 압박감이 우리를 누르면 자칫 잘못할 경우 현실의 균형 감각이 쉽게 깨져 버린다.

정신적인 몰락을 피하려면 자신이 처한 상황 밖으로 나와, 침착하게 마음을 먹고, 때가 되면 이 문제도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최근, 내 친구 중 한명이 힘든 시기를 넘기고 겨우 정신을 차린 다음 이와 같은 말을 했다. “가끔은 한꺼번에 나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가 된다. 문제들이 서로 맞물리고 얽히고설켜서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아주 큰 공모양의 덩어리처럼 보인다. 압도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찬찬히 그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큰 덩어리가 아니라 한 가닥 가닥의 작은 문제점들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각각의 그 가닥을 풀고 나면 내가 처한 문제가 그리 거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아주 적절한 조언이다.

마크 트와인은 “인생은 대체로, 거의 대부분 사실과 사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생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고의 폭풍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비꼰 적이 있다. 우리 스스로를 부풀려진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면 공포는 더욱 확대되어 공황을 일으키게 된다. 공황을 느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치광이들은 미친 것만 한다.* 우리의 사고를 현실에 붙들어 매야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처한 문제들 때문에 당황하게 될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나열해 보았다.

- 펜과 종이를 준비해서 문제점들을 적어본다. 종이에 적힌 문제들을 눈으로 보면 문제점들은 그다지 어려운 것들이 아니다

- 각각의 문제점들을 따로 떼어 내어 분석하고 그것들을 올바른 생각을 갖고 바라본다.

-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슬프고, 낙담한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적절한 관점으로 각 상황을 볼 때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고 초월하는 방법들을 찾아 낼 수 있다.

#### **도구#4. 깨끗이 청소하는 것을 명심해라**

용서를 빌 때 혹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사람은 가장 아름답다. -장폴 리처

빗속에서 타이어를 갈아 끼운 후 뒷정리 하는 것도 중요하다. 손에 묻은 기름을 깨끗이 씻어 내야하고 목욕을 할 수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전과 같은 사람으로 계속 살아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살면서 과거 문제 때문에 양심을 간직하고 괴로움을 흘려보내지 않을 때 이런 삶은 기름때 묻은 손과 더러운 옷을 입은 채 비관적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이런 영향을 받게 된다.

아이들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우리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다 그렇다. 엄청나게 쾌활하며 관대하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했었는지 다 설명 할 순 없다.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라고 하면 아이들은 언제나 “그래, 아빠!”라고 금세 반응을 보이며 마치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내 무릎에 올라와서 책을 읽거나 TV를 본다. 반성문을 쓰거나 일주일 동안 벌을 받거나 20분 동안 벌로 구석에서 따분하게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육아 전문가가 아니지만 성공하는 자녀 양육의 한 가지 원칙을 배웠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쉬워 보이지만 확신하건대, 어려운 일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적의를 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부모들이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를 용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나의 두 딸과 조카 두 명이 같이 놀고 있었다. 복도 끝 화장실에서 들리는 그들의 의식 치루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좀 더 가까이서 들으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소녀 네 명이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만들었다. 각자 다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일들을 적은 한 장의 종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네 명이 각각 돌아가며 큰 소리로 종이에 적힌 내용을 읽었다. 한 명이 읽은 내용을 상기 시켜보면 아무개가 나를 따돌렸다고 했다. 또 한 아이는 우리는 항상 아무개가 원하는 것만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한 아이도 아무개가 내 맘을

아프게 했거든 하고 말했다. 각자 돌아가며 이야기는 계속 되었다. 그런 다음 그 종이를 다 한 곳에 모으고, 그 위에서 기도를 하고 종이를 찢고 그 조각들을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냈다. 그리고 나서 곧장 밖으로 나오더니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장난치는 것이었다.

거짓말 같지 않은가! 우리도 이렇게 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악의를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깨끗이 청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님께 갖고 있는 불만을 흘려보낼 필요도 있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 곳으로 통하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용서이다. 자유와 기쁨은 용서의 상처를 통해서 맛 볼 수 있다. 괴로움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면 당신의 영혼의 축복은 약화되고 말라버린다. 당신의 힘을 마비시킬 것이다. 더군다나 전문가들도 장시간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영과 우환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를 내놓았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도 자기 궤멸적인 괴로움을 놓아버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여기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말들을 적어보았다.

-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화가나있거나 괴로워하는 것을 인정해라
- 그것들이 당신의 웰빙(well-bing)에 해롭다는 것도 깨달아라
- 당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실수를 하며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라

- 상담자 혹은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면 당신의 괴로움에 대해 말하지 마라.

- 그런 괴로움을 하느님께 터놓고 이야기하라

- 성경을 마음 속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지만 여러분과 비슷한 어려움에 대한 자료들을 읽어라

- 과거를 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가라

#### **도구#5 나무나 나뭇가지 밑에 멈추어서 쉬어라**

죽음을 직시하면 지금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게 된다.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바로 친구들이다. - 암투병하는 한 여성

비는 역수로 쏟아지고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비를 피해 차를 세워서 좀 더 쉽게 타이어를 교체할 수 있는 나뭇가지 밑이나 큰 나무 아래보다 더 값진 곳은 없다.

아시다시피, 친구들도 이와 같다. 친구의 사망 직후 시인인 사무얼테일러 콜리지는 “친구는 안식처를 제공하는 나무이다”라고 말했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알고 있겠지만, 삶이 우리를 열나게 할 때 친구들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시원한 기운을 제공해주는 안식처 나무이다. 휘몰아치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맹렬한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안식처이다.

나의 할무니는 끝임 없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 (“할머니”라고 해야 하는 데 나는 할무니(grandmoma)라고 부른다). 할무니에겐 친구들이 많다. 대부분이 평생친구들이다. 사실, 너무 친구들이 많아서 나는 종종 헷갈린다. 나는 항상 그분들을 삼촌, 이모라고 부르는데 실제 친척은 아니지만 아주 가깝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들은 아주 오래된 친한 친구들이라서 가족과 다름없다.

수년 동안 할무니와 친구 분들은 많은 어려운 일도 서로 도우며 지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세월은 흘러갔다. 돌봐야할 6명의 다른 자식 외에 할무니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할무니 친구인 노마가 거의 매일 집에 와서 도움을 주었다. 노마는 아이들을 먹이고, 목욕시키고, 요리하고, 빨래를 하고 심지어 집안청소와 설거지까지 해주었다. 노마는 할무니 스스로 집안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주신 것이다.

좋은 친구는 물처럼 삶과 건강에 필수품이다. 앤 카이저 스티즈는 *개인적 위기를 이겨내기 (Living Through Personal Crisis)*란 자신의 책에서 “인생을 통틀어 우리가 행하는 최고의 자기애는 친한 친구를 사귀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가족 안과 밖의 친구들 둘 다 가장 근본적인 배려의 원천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친구는 상처를 동반한다. 우리 모두 친구가 필요한 만큼 우리 대부분은 과거에 친구나 가족들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느껴 본적이 있다. 하지만 포기란 없다. 한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노아의 방주에 수천마리의 동물이 오랜 시간 같이 있었는데 그곳의 환기시설은 아주 협소했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감을 잡겠는가? 동물 배설물이 바닥에 온통 깔렸다는 뜻이다. 그런 악취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떠있는 배는 노아의 방주뿐이었다.

물론 가족과 친구가 우리를 가끔 실망시키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만약 타인의 위로와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폭풍 속에서 납처럼 물속으로 갈아 앉아 버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친구를 만들 것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 간단하다! 당신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라.

**도구#6 여정을 즐겨라. 빗길에서의 펑크 난 타이어는 고난 대신에 뜻밖의 경험이 될 수도 있으며 그 경험으로 인해 최종 목적지가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

만족하는 사람은 돌아가야 하는 길도 즐기는 사람이다 -조지 허버트

폭풍에 관련된 기억 중 내가 제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은 폭풍우가 아닌 눈보라이다. 로키 산맥을 따라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휴가를 떠났는데 거대한 눈보라 때문에 모든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야 했다. 몇 마일 앞에도 도로제설 작업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아서는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심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몇 시간 동안 연료의 거의 반을 헛되이 낭비하며 차에 앉아있어야 했다.

시동을 켜 채 기다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약 200야드 멀리 오래된 통나무 교회 하나가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어떤 곳인지 알아보려고 차 밖으로 나와서 눈 위를 터벅터벅 걸어 그곳으로 갔다. 그곳은 아주 오래되고 소박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교회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눈을 의심했다. 뒷벽은 커다란 두꺼운 판유리로 되어있어서 눈이 덮여 산 계곡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유리 정중앙에는 소박하지만 큰 나무 십자가가 걸려있었다. 내가 본 광경 중 최고였다. 나는 유리를 향한 조야한 신도 좌석에 앉았고 하나님을 만났다. 경외심마저 들게 했다. 하나님께서 창조

하신 모습에 흠뻑 취하니 평화가 나의 영혼에 넘쳐흘렀다. 눈보라가 아니었다 라면 절대 경험하지 못할 순간이었다. 아마도 그 교회를 지나치거나 아예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여정을 즐기는 것 자체가 도착지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결과보다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좀 더 균형 잡힌 속도로 살아 갈 수 있게 된다. 삶에 균형이 잡히면 우리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에 관심을 두게 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주위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인생에서 작은 실패나 조금 뒤쳐진 다해도 여유 있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되며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보다 보람 있는 일이 된다.

한 십년 전, 산 안토니오 스퍼스(Spurs)야구팀은 키가 2미터 18센티나 되는 데이비드 로빈슨을 영입하여 NBA세계챔피언에 팀이 출전하길 기대했다. 매년 스퍼스는 시즌에는 경기를 잘했으나 기대에 못 미쳐 우승 결승전시리즈에서는 패했다.

큰 경기에서는 결코 우승을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마침내 기나긴 십년이 지나서 그들은 우승했다. 우승을 한 후, 제이 레노와의 인터뷰에서 로빈슨은 우승해서 기분이 어떤지 질문을 받았다. 그는 “우승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만 십년 동안 우승을 위해 땀 거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데이비드 로빈슨은 여정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인생에서 목표를 세우고 큰 비전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면 현재를 놓치게 된다. 현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현재의 중요성과 현재와 관계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여정을 즐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우리가 과도하게 목적지에만 집중하면 자주 현재를 놓치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인생의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재산이다. 그들 없는 목적지 도착은 현저히 의미가 감소한다. 친구, 가족, 하나님과의 관계야말로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다.

알마돔(Alamodome)에서 경기시간 종료 부저가 울리자 스퍼스는 NBA세계 챔피언 우승을 마침내 이루었고 그곳 39,514명의 군중들은 열광적이었다. 팬들과 카메라맨과 기자들이 함께 구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런 대소동 속에서 한 카메라가 데이비드 로빈슨이 어린 아들을 껴안는 장면을 포착했다.

나중에 로빈슨이 제이레노(Jay Leno)에게 말했듯이 시즌경기와 특히 NBA 우승결승전 기간 동안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야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다.

이 특별한 경기는 만약 스퍼스가 이긴다면 뉴욕 닉스와의 일곱 경기 중 마지막이었다.

스퍼스가 진다면 다시 뉴욕으로 와서 닉스와 또 한 경기를 치러야했다. 로빈슨은 아들에게 스퍼스가 이기면 집에서 둘이 함께 놀자고 말했다. 군중들이 우승을 축하하기위해 경기장으로 뛰어나올 때 로빈슨의 아들은 스퍼스가 우승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아빠가 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기뻐서 아빠에게 안기려고 경기장안으로 달려갔다.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우승하는 것과 일등 하는 것을 엄청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데이비드 로빈슨의 어린 아들에게

성공은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 봤을 것이다. “죽어가면서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했는데’라고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살면서 무엇을 시도하던 간에 그 일의 최고가 될 때 그 일의 과정 속의 사람들과 그 과정을 만끽하지 못하면 정상의 자리도 공허하게 된다.

인생은 짧다. 우리는 순간을 살고 수증기처럼 사라진다. 여정을 즐기고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을 만끽해라. 그리하면 빗길에서의 타이어 펑크는 하나의 축복으로 변할 것이다.

#### **도구#7 스페어타이어가 맞지 않아도 걱정하지마라**

협곡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린다면 그 조각의 아름다움을 결코 볼 수 없게 된다.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창세기 2:7)라고 적혀 있다. 여러분과 나를 이루는 물질요소가 진흙성분과 같은 요소임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사실이다.

진흙과는 달리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다. 살아 숨 쉬는 질그릇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있다. 흙으로 만든 램프 속 촛불을 상상해보라. 고린도 서후기 4:7-9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깨지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는 가끔 인생이 주는 타격에 “이건 불공평해”라고 소리 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자. 우리는 파괴되지도 않고 부서지지도 않고 단지 그릇에 금이 갈 뿐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길 바라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사실은 흠으로 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릇에 금이 가더라도 그 금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우리라는 그릇 밖으로 환하게 빛이 난다. 그릇에 더 많이 금이 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잘 보게 된다.

고통 속에서 즐거움, 평화, 사랑을 볼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진정으로 “희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우리의 숭고한 업적이나 훌륭한 재능과는 거리가 멀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내재한 희망에 대해 알려고 한다.

나의 할머니 부엌에는 경탄할 정도로 곱게 뿜아놓은 양념(향신료)이 아주 많이 있다. 이 향신료가 줄기에 매달려 있거나, 땅속에 있을 때, 껍데기 속에 있을 때는 그 향과 맛이 향신료 안에서만 살아있는 것이다. 껍질이 깨지고 부서져야만 향이 비로소 나오는 것이다. 이런 깨짐과 부서짐이 없다면 우리는 달콤한 향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의 그릇이 깨졌다는 것은 바로 절망 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가 기회이며 치유의 시간이기도하다. 깨짐은 자신을 동정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에 탄식하며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혹은 그 깨짐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내적 아름다움의 향을 발산 할 수도 있다.

매일 나는 깨진다는 것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항상 완벽하고 완벽한 척 할 수도 없다. 내가 볼 때, 우리는 세계정상에 선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항상 떠들지 않으면 자신들이 뭔가 결점이 있다고 느끼는 성공스토리에 대해 자주 듣게 된다. 우리 자신이 깨질 때 우리는 더 열정적이 되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남을 감동시키는 것은 인생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비결이다. 여기 좋은 생각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깨진 부분을 숨기기보다는 밖으로 내보일 때 우리는 진실이 되는 것이다.

나에게 진실의 가치를 아주 감동 있게 보여준 마거리 윌리엄스 비앙코의 *The Velveteen Rabbit* (벨벳토끼)이다. 이 책에는 형겁동물 두 마리, 빼빼한 말과 벨벳토끼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 둘은 놀이방에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 대화 내용은 이렇다.

“진짜 된다는 게 뭔지?” 나나가 방을 치우러 오기 전에 놀이방 벽난로 펜더 근처 나란히 누워 있던 토끼가 물었다. “몸 안에서 윙윙 소리를 내고 몸 밖으로 튀어나온 손잡이를 가진다는 뜻인가?”

“진짜는 네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가가 아니야” 라고 빼빼한 말이 대답했다. “그것은 너에게 일어나는 일이야. 한 아이가 너를 그냥 놀아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너를 좋아하게 되고 진짜로 너를 사랑하게 되면, 그때 너는 진짜가 되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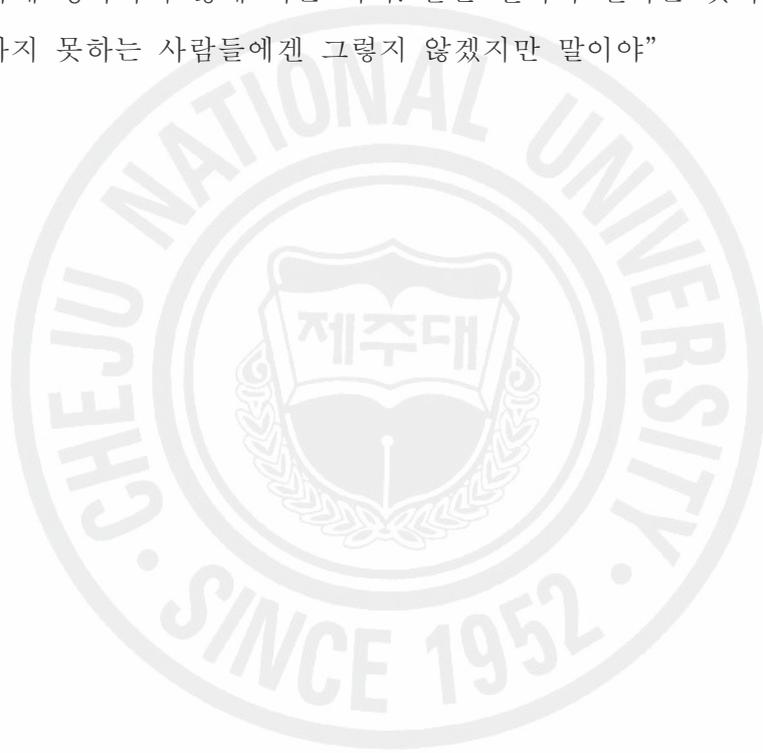
“아픈거야”라고 토끼가 물었다.

“가끔은” 빼빼한 말이 대답했다. 그는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 한다. “그렇지만 네가 진짜가 되면 아픈 것도 개의치 않게 돼”

“태엽 감는 것처럼 한 번에 바로 진짜가 되는 거야 아니면 조금씩 진짜가

되는 거야”라고 토끼가 물었다.

“태엽 감는 것처럼 진짜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 뻘뻘한 말이 대답했다. “진짜가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쉽게 상처 받거나 날카로운 성격을 가졌거나 조심스러운 사람들에겐 일어나지 않아. 보통은 네가 진짜가 되면, 머리털이 거의 다 빠지고 눈은 떨어져나가고 팔다리 관절도 느슨해지고 모습이 초라해 지지. 그렇지만 일단 진짜가 되고나면 너는 더 이상 추하지 않고 그런 것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야. 물론 진짜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야”



## 9. 계속되는 인생

뜨개질하는 사람의 노련한 손은 그가 계획한 문형을 짜기 위해 금실, 은실과 마찬가지로 어두색색실로 필요하다. - 그리스 속담

이 책은 처음 쓰기 시작한 이후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 매일의 새로운 도전과 역경에서 나는 성장하고 배우고 있다. 예를 들면, 며칠 전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데 배우들 중 한명이 내뱉은 웃긴 대사 때문에 관객들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관객들이 왈카하게 웃고 있을 때 나는 내 아들 제임스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모두가 웃고 있는지 전혀 감이 없는 것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의 얼굴에 다른 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 표정은 말로 형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 온 사람의 표정으로서 자신의 귀가 정말 안 들린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그 때까지 나는 고통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제임스가 영화 볼 때 웃어야 할 대목에서 못 웃는 이런 사소한 일들이 다시 고통을 상기시켰다. 이렇게 물밀 듯이 밀려오는 아픔에는 어찌할 줄 몰라 눈물을 참고 영화관 밖으로 나오고 싶지만 그런 감정을 억누른다.

그날 오후 나는 오랜 시간 걸었다. 하나님께 제임스를 부탁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만, 제가 제임스를 사랑하는 것보다 당신이 더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그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그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임스를 하나님께 받치는 것이 나에게서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렸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헬렌 켈러에게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생각났

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헬렌 켈러는 시각과 청각 장애인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과 청각 장애인과 대화가 없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자신의 방식으로 그녀와 대화를 했던 것이다. 헬렌 켈러는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녀의 산 인생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녀의 말을 들어보자.

가는 곳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난다. 어려움은 인생의 동반자이다. 어려움은 개인의 특징과 개성이 한 데 어우러져 발생한다. 이에 대처하는 확실한 방법은, 만약 그를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잠을 자지 않는 친구가 있으며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면 깊숙이 이런 생각을 간직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에 대한 한계가 없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모든 아름다움도 만끽 할 수도 있다. 우리가 받는 상처마다 부드러운 위로의 보답이 주어진다. 고통 속에서 보랏빛의 인내와 달콤함이 자란다. 극복의 한계가 없다면 놀랍도록 풍부한 인간의 경험에 대한 기쁨도 적어질 수 밖에 없다. 만약 가로지르는 암흑의 계곡이 없다면 산꼭대기에서 보이는 아름다움은 절반으로 반감할 것이다.

기억하라, 이 글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누군가에 의해 쓰였다는 것을! 만약 하나님께서 헬렌 켈러를 이와 같은 놀라운 방식으로 돌보셨다면 그 분은 분명히 제임스와 여러분과 나도 보살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빗길에서 타이어가 펑크 난 것과 같은 경험을 초월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겨 보자. 그러면 여러분은 놀라운 힘과 은총으로 인생의 웅덩이를 걸어갈 수 있게 되며 홍수도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것이다.

## 작가에 대하여

맥스 데이비드는 미시시피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고 아메리칸 성서 신학 대학교에서 신학과 카운슬링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오렐 로버츠 대학에서 신학 활동을 하고 있다. 데이비드는 카운슬링을 하고 목사직을 맡았었다. 지금은 책 집필과 대중 연설가로 활동하며 루이지애나 바톤 로그 외곽지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 참고 문헌

「Special 만나성경」 (2006), (주)성서원.

박용남(2005), 「영한 번역의 기초」, 신아사.

서계인(2004), 「영어 번역의 기술」, 북라인.

이근달(1998), 「알고하면 쉬운 영어 번역의 노하우」, 시사영어사.

